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 연구

- 웃음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정 희 (인)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정 은 선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 연구

-웃음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정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정 은 선

정은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웃음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장르의 주요한 특질로, 사설시조 교육에는 학습자들이 희극성의 미적인 경험에 이를 수 있는 학습자 반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는 일탈이라는 반-규제적, 욕망의 보편성으로 추동되는 대상의 범용함을 긍정하는 공감적, 대상의 열등함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조소적 특성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므로, 각 유형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웃음 이론을 검토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불일치 이론과 이를 확장한 파버(J. Farber)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파버는 희극성 경험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내적인 반응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는 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복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의 내적 단계를 따라 희극성을 경험하며, 그 내용은 반-규제적 웃음, 공감적 웃음, 조소적 웃음으로 유형화된 희극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Ⅲ장에서는 교육적 처치 없이 학습자의 반응을 리커트 척도와 감상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콜레지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에 어려움을 겪은 학습자들은 모든 웃음 유형에서 단계화되지 않은 반응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반-규제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의미화 실패의 양상이, 공감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거리조절 실패의 양상이, 조소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관습화된 반응의 양상이 드러났다. 반-규제적 웃음에 대해 학습자는 사회적 규범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에 대한 학습자 반응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의 희극성을 인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정의적으로는 반응을 활성화하지 않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은 단계적이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반응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희극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습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와 경험한 학습자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웃음의 유형에 따라 희극성 반응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비계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이 가진 지식 자원과 초점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간 소통을 통해 반응을 활성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Ⅳ장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였다. 우선, 학습자 반응을 고려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목표로는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설시조 희극성의 다양한 실현 방식을 이해한다. 둘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 셋째, 고전시가의 희극성 향유 능력을 신장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설시조의 불일치 요소 발견,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 파악,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 경험의 단계적인 교육을 제시하였다. 각 교육 내용의 적용의 실제는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텍스트 수준이 아닌 수용과 반응이라는 학습자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고가 제시한 교육 설계는 학습자가 사설시조 작품을 능동적으로 즐기는 문학 향유 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시 교육, 사설시조, 희극성, 불일치 이론, 심리적 반응, 단계적 반응, 웃음 유형

학 번 : 2020-21222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사 검토 ····· 4
2.1. 사설시조 희극성 연구사 ····· 4
2.2. 희극성 연구사 ····· 7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Ⅱ. 학습자 반응 중심의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 19
1. 희극성 개념과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본질 ····· 19
1.1. 희극성의 개념과 희극성 유발의 기제 ····· 19
1.2.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의 본질 ····· 24
2. 희극성에 대한 수용자의 일반적 반응 단계 ····· 30
2.1. 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 31
2.2. 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 34
2.3. 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복과 심리적 보상 ····· 34
3. 사설시조 웃음 유형과 심리적 보상 ····· 37
3.1. 반-규제적 웃음과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충족 ····· 38
3.2. 공감적 웃음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 ····· 41
3.3. 조소적 웃음과 우월감에 대한 욕구 충족 ····· 44
4.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의의 ····· 48
4.1. 사설시조의 웃음 유발의 기제 이해 ····· 48
4.2. 희극성 향유를 위한 상상력 증진 ····· 49
4.3. 웃음을 통한 미적 쾌감의 경험 ····· 50

Ⅲ.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에 대한 학습자 반응 양상 ····· 52
1. 웃음 유형별 문제적 반응 양상 ····· 57

1.1.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 ····· 57
①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 58
②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 ····· 61
1.2. 공감적 웃음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 ····· 66
①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 66
②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 68
③ 정서적 무반응 ····· 71
1.3. 조소적 웃음에 대한 관습화된 반응 ····· 74
①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 74
②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 76
③ 정서적 무반응 ····· 78
2. 웃음 유형별 단계적 반응 양상 ····· 82
2.1.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추론적 반응 ····· 82
① 배경지식을 통한 사회적 규범의 확인 ····· 82
② 상상을 통한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환기 ····· 83
③ 위반의 긍정을 통한 욕구 충족 ····· 84
2.2. 공감적 웃음에 대한 관용적(寬容的) 반응 ····· 86
① 내면 해석을 통한 대상의 보편성 확인 ····· 86
② 자기 연결을 통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 환기 ····· 87
③ 타자와의 동질감 확인을 통한 욕구 충족 ····· 87
2.3. 조소적 웃음에 대한 평가적 반응 ····· 89
① 행위 분석을 통한 대상의 열등함 확인 ····· 89
②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한 우월감에 대한 욕구 환기 ····· 90
③ 대상에 대한 부정을 통한 욕구 충족 ····· 91

Ⅳ. 학습자 반응을 고려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설계와 적용 ··· 94
1.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목표 ····· 94
2.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 ····· 95
2.1. 사설시조의 불일치 요소 발견 ····· 96

2.2.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 파악 ····· 98
2.3.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 경험 ····· 100
3.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적용 ····· 102
3.1.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 103
3.2.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 110
3.3.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 ····· 115

Ⅴ.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부록1>: 분석 대상이 된 학습자 자료 ····· 130
<부록2>: 적용 수업 활동지 ····· 146
Abstract ····· 153

〈표〉 차례

<표 1> 조사 개요 ····· 13
<표 2> 웃음 유형의 분류 ····· 38
<표 3> 웃음 유형별 희극성 경험의 내용 ····· 48
<표 4>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 범주 ····· 97
<표 5> 적용 수업의 개요 ····· 102
<표 6>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의 범주 ····· 105
<표 7> 공감적 웃음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의 범주 ····· 107
<표 8> 조소적 웃음에 대한 관습화된 반응의 범주 ····· 108

[그림] 차례

[그림 1] 리커트 척도 ····· 15
[그림 2] 콜레지에 따른 범주화 예시 ····· 17
[그림 3] 파버의 불일치 이론의 웃음 유발 과정 ····· 36
[그림 4] 희극성 경험의 단계 ····· 36
[그림 5] 반-규제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 40
[그림 6] 공감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 43
[그림 7] 조소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 46
[그림 8] 웃음 유형별 학습자 반응 비율(%) ····· 53
[그림 9] 웃음 유형별 '4점 이하' 답변 비율(%) ····· 54
[그림 10] 웃음 유형별 '1점' 답변 비율(%) ····· 55
[그림 11] 웃음 유발의 희극성 경험의 단계 ····· 56
[그림 12] 반-규제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 65
[그림 13] 공감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 73
[그림 14] 조소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 80
[그림 15] "부정적 감정 경험"의 주제 사례 비교 ····· 99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고의 목적은 사설시조의 미적 본질인 희극성을 학습자들이 경험[1]하게 하기 위하여, 웃음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하여 사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노래하는 시조의 한 형식이다. 사설시조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삶의 실상을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 웃음을 일으키며 삶의 실상을 시비한다[2]는 점에서 평시조와 차이를 가진다. 사설시조의 작품 세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웃음으로,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설시조를 풍부하고 온전하게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장르의 주요 특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나 실제의 교육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웃음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교육 영역에서 평가절하되었으며[3],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진지한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고 즐기는 법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웃음은 미학적인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른 미학적 경험들과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4] 희극성 경험은 외재적 목표 없이 경험 그 자체에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미적 경험과 동질적이다. 또한 희극성 경험은 그 경험을 즐기기 위해 현실적, 실제적인 우려를 잠시 중지한다는 점에서 미적 경험의 특

---

1) 고전문학 교육에서 '경험'이란 듀이(J. Dewey)의 이론을 따라 타자 혹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에 가깝게 정의되어 왔다.(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류연석,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본고의 희극성 '경험' 개념은 기존 논의에서 더 구체화하여, 외부의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인 반응의 단계에 따라 얻게 되는 것으로, 인지로 시작하여 쾌의 감각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p.336.

3) 조현일, 「웃음, 유머에 대한 문학교육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66, 국어교육학회, 2018.

4) John Morreall, "Humor and Aesthetic Educ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5(1),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1, pp.55-70.

징을 가진다.[5] 맥신 그린(M. Greene)은 미적인 체험이 우리 존재의 결핍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열어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적 체험의 교육을 주장하였다.[6] 사설시조의 희극성 역시 인간의 욕망과 결핍을 드러내고 수용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해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한편 희극성과 그 외의 미적 특질은 그 자체로 즐겁다는 점에서 자족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희극성은 쾌의 감각이라는 구체적인 심리적 보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미적 특질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고전시가에는 우리의 전통문화로서의 전통적 세계관이 담겨있다. 자연친화와 한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웃음이다. 김대행은 우리의 전통적 웃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를 '웃음으로 눈물 닦기' 로 명명하였다.[7] 우리 문학에는 비극적인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양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설시조에서도 부정적인 시적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들이 많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전통문화를 담고 있다는 수준에서 교육적 필요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여유와 능력을 함양해준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한 교육 내용이 된다.

이러한 사설시조는 부정적인 시적 상황과 우스꽝스러움이라는 모순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가진 비극과 희극의 양면성은 학습자들의 사설시조 감상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설시조의 언어가 다른 고전시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의 웃음은 상반된 요소와 모순된 정서를 담고 있어 학습자들은 사설시조의 감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감상 없는 암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현재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지식의 형태로 사설시조의 특징으로서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희극성은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 설명되었

---

5) Mordechai Gordon, "What makes humor aesthetic?",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CPI, 2012.
6) Greene M., "The Ambiguities of Freedom", *English Education* 33(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2000.
7)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한국언어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을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성찰과 사고 없이 대상에 반응하면서 경험된다.[8]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에게 희극성을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것은, 의식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논리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학습자를 희극성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희극성을 경험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련의 반응을 수반한다. 가시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웃음이다. 그러나 희극성의 미적인 경험은 반드시 가시적인 웃음의 반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관찰과 탐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사설시조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희극성 경험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정리하자면,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설시조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지식을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본고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내적 반응의 과정을 마련한다. 그간 사설시조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연구는 희극성에 주목하였으나, 텍스트 차원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용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수용자를 중심으로 사설시조 희극성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석 틀로서의 수용자 내적 반응의 과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웃음 이론을 검토하여 수용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희극성 경험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반응의 과정을 살필 것이다.

둘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의 유형에 따른 실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본다. 물론 모든 학습자가 이론적인 희극성 반응의 과정에 따라 이상적으로 단계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도 모든 단계를 외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

8) 희극성 경험은 의식적인 성찰과 사고 없이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해하지 않을 때 일어나며, 이성의 논리(reasons of reason)뿐만 아니라 감성의 논리(reasons of heart)가 통합될 때 일어난다. 이것은 희극성 경험의 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희극성 경험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적인 감정 반응을 통해 완결됨을 의미한다. Mordechai Gordon, 앞의 글, p.106 참조.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이 동질적이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자의 실제 반응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할 것이며, 각 웃음 유형에 따른 학습자 경험의 경향성에도 주목할 것이다.

셋째, 사설시조 웃음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계된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단계적으로 제시된 비계를 따라 최종적으로 희극성의 미적인 보상을 경험하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논의의 구체성을 더한다.

2. 연구사 검토

2.1. 사설시조 희극성 연구사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유형화한 연구는 본고의 논의 진행에 큰 참고가 되었다. 고정희[9]는 사설시조의 형식적·내용적 지표를 통해 사설시조에 나타난 희극성을 유형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사설시조의 사설의 확장과 잉여는 신체적 비용의 낭비로써, 시어의 반복은 욕망의 분출과 억압으로써, 구조의 반전은 논점을 회피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이 논의는 사설시조의 진지한 문제의식 및 태도를 어떠한 언표의 '우스꽝스러움'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의로부터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단일한 성격과 웃음 유발의 기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고가 사설시조 희극성의 유형을 고려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사설시조의 희극성 중에서도 그 범위를 좁혀 특정한 주제와 종류의

9) 고정희, 「사설시조의 희극적 특징 고찰」, 『한국문학논총』 35, 한국문학회, 2003.

웃음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고정희[10]는 사설시조 속 희화화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 수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사회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신의 욕망이 사설시조의 희화적 표현에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18세기에는 민중적 언어와 함께 여성의 언어가 사설시조에 활발히 침투하였으나 19세기로 갈수록 여성의 욕망이 관음증적 희화화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논의는 여성 형상에 주목하여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반영된 인간의 욕망을 수사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형대[11]는 사설시조의 희극성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육체적 표상에 주목하여 이 육체와 정신과의 상관성, 육체와 사물과의 연관성, 변신과 변장의 모티프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조성진[12]은 베르그송의 이론에 기대어 사설시조 사랑노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는 자기풍자의 웃음에 주목하여, 화자가 자기풍자를 통해 두 가지의 엇갈린 목소리로 드러나는 자기분열을 통합하고 삶의 균형감을 회복하였음을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송지언[13]은 기다림을 노래한 사설시조를 금지와 허가, 갈망과 염려, 노출과 은폐, 집중과 분산이라는 구체적인 상반항들로 해석하여, 사설시조의 해석틀로서 자아의 갈망과 세상의 금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설시조가 유발하는 웃음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성찰의 웃음으로 규정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희극성은 객관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의 반응과 관련한 주관적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설시조 희극성 연구는 텍스트가 분석의 중심이 되어 수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수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밝힌 연구이다.

박상영은 불일치론과 우월론 등 웃음 이론을 검토한 후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기대-탈 기대의 놀람형, 기계적 반복구조의 꼭두각

10)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11) 이형대, 「사설시조에 발현된 희극성의 육체적 표상들」, 『한국시가문화연구』 33,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pp.265-292.
12) 조성진, 「사설시조 사랑노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35, 한국시가학회, 2013.
13) 송지언, 앞의 글.

시형, 작용-반작용 구조의 메아리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사설시조의 웃음의 미학을 유머와 넌센스의 미학, 단성성과 리얼리즘의 미학, 다성성과 뒤섞임의 미학으로 설명하였다. 이 논의는 언어, 인물, 구조 등 텍스트의 상황과 함께 독자가 인지한 텍스트의 내적 상황이라는 수용자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박상영[14]은 희비극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사설시조에서 드러나는 상반된 미의식을 규명하였다. 희비극성을 유발하는 발신자 측과, 이중적 시각을 경험하는 수신자를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설시조의 미학을 설명하려는 다른 논의와 차별성을 가진다는 의의가 있다. 사설시조에 드러난 희비극성의 양상을 언어, 인물, 구조의 차원에서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은 독자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사설시조의 희극성 양상을 밝히고 실제의 독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한편 시조 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 교육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사설시조의 특수한 희극성을 밝히고자 한 그간의 연구 성과에 비해,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주목한 교육 연구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가령 류수열[15]은 사설시조의 교육 연구로서, 사설시조가 선행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설시조 감상에서 중요한 희극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교육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적 시사점을 주는 연구도 있었다. 고정희[16]는 사설시조와 조선시대 규범서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사설시조 교육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고정희는 희극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생산되던 환경에 대한 많은 선험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는 사설시조 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설시조가 생산되는 환경에 선험적인 지식이 부재한 학습자들에게 이에

---

14) 박상영, 「사설시조에 드러난 희비극성의 양상과 그 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2011.

15) 류수열, 「사설시조 텍스트 구성 원리 연구: 선행 텍스트 수용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6) 고정희, 「조선시대 규범서를 통해 본 사설시조의 희극성」,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회, 2011.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웃음의 지향과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수용자 내부의 반응보다는 텍스트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교육적 적용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사 검토 결과, 사설시조 희극성에 대한 연구 축적에 비해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한 경우에도 실제적인 수용자의 체험을 규명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용자인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사 검토의 범위를 확장시켜 희극성 연구사를 살펴보고,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2. 희극성 연구사

희극성에 관한 연구는 서구의 웃음 이론(study of humor)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그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 과거의 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최근까지 축적되며 이어져 온 현대의 웃음 이론을 우선 검토한다. 여기서는 희극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희극성을 가진 문학 제재의 교육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희극성의 유형 분류, 웃음의 발생 기제, 희극적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프리맨틀(A. Fremantle)[17]은 위트(Wit)와 유머(Humor)를 구분한다. 위트는 타인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이며, 유머란 자신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이다. 위트는 대상의 인격을 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학적이며, 유머는 피학적이다. 유머는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을 향해 웃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의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참고점을 제공해주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수용자의 내면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러셀(R. E. Russell)[18]은 웃음은 여러 요소의 조합의 결과이지 독립적으로 발

17) Anne Fremantle, *This Little Band of Prophets*, Mentor, 1960.
18) Roy E. Russell, “Understanding laughter in terms of basic perceptual and

현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단 하나의 특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그 5가지 요소를 모호성, 개념 형성, 쾌-불쾌 인식, 대안적 반응과 유머러스한 기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웃음이 단순히 텍스트 요인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감정, 인식, 반응 등의 복잡한 조합으로 유발되는 것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에 따르면, 수용자의 첫 번째 인식에 방해로 작용하는 요인이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적응될 경우 쾌락이, 방해 요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은 불쾌로 남는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학습자의 내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감상문을 분석하였으며, 쾌와 불쾌의 감정 반응에 주목하였다.

파버(J. Farber)[19]는 유머(Humor)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은 예술에서 유머의 역할을 밝히고 예술 속 유머에 대해 개인의 각기 다른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웃음을 기대와 실제의 괴리로 설명하는 불일치 이론(incongruity theory)을 발전시켜, 예술 속 유머의 연구를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불일치 이론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웃음 유발의 기제를 설명했다면, 파버는 이를 발전시켜 수용자 차원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웃음 이론에서 수용자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우스운 상황과 수용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시키며, 희극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희극성의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단계적인 반응을 분석하는데 파버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희극적인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연구한 논의로는 샤론(D. M. Sharon)[20]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아동 학습자들이 책에서 희극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관찰하였다. 학습자들은 (1)

---

response patterns", *Humor* 9(1), De Gruyter, 1996.

19) Jerry Farber,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Humor in Literature and the Other Arts",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Vol.41 No.4,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7.

20) Donna M. Sharon, "What children find humorous in the books they read and how they express their responses", *Humor* 12(2), De Gruyter, 1999.

우월감 (2) 신체적 사건과 외양 (3) 배설과 더러움 (4) 언어적 표현과 언어유희와 관련된 부분에서 희극성에 대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 반응은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말하기(re-telling), 요약하기, 소리 내어 읽기, 주관적인 평을 제공하기, 자기 자신과 관련짓기, 다른 책과 관련짓기, 분석이나 해석 제공하기로 나타났다. 연구는 학습자들이 희극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배경지식과, 함께 읽고 공유하는 사회적 작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 반응을 관찰한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프리드와 카슨(Fried & Carson)[21]은 유머와 희극성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주관적 기대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조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첫인상에만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지며, 기대보다는 순응성, 성별과 나이가 희극성 평가에 더욱 핵심적인 요소임을 밝혀냈다. 이 논의는 사설시조 희극성에 대한 학습자의 선기대가 가지는 영향을 우선 배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한 본고는 이 논의의 희극성 경험 평가의 방법인 10점 리커트 척도를 차용하여 본조사에서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문학의 희극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존재해왔으며, 그 초점은 교육의 내용, 구체적인 교육 방법, 미적 체험 등을 아우른다. 모레알(J. Morreall)[22]은 전통적으로 비극을 희극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웃음을 교육으로부터 배제해왔음을 비판한다. 유머(Humor)는 미적인 경험의 일부이며,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미학 교육이나 교육 전반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분야는 문학교육임을 주장하였다. 문학작품의 희극성이 가진 교육적 의의를 주장한 모레알의 논의는 국내외에서 다시 인용되어 후속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유머를 교육에서, 그중에서도 문학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논증한 글로서 모레알의 주장은, 본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참고가 되었다.

---

21) Kristopher Fried and Shelley Carson,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expectations and personality on audience ratings of humor”, *Humor* 31(4), De Gruyter, 2018.

22) John Morreall, 앞의 글.

안드레(R. J. Endres)[23]는 희극적인 시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한다. 희극성을 가진 시의 교육에 대한 그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교육은 희극적인 시 작품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희극적인 시는 교수자가 그것을 잘 즐길 수 있을 때 성공적으로 교수될 수 있다. 셋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시를 즐길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넷째, 대신 교수자는 인간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신경을 일깨움으로써 학습자를 인간에 대한 향상된 인지로 이끌 수 있다. 다섯째, 희극적 시는 설명될 필요 없이 학습자들이 즐기면 충분하다. 문학에서의 희극성 교육 연구가 시를 잘 언급하지 않는 데에서, 이 논의는 본고의 논의에서 주의할 점을 미리 제시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의 구체적인 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논의가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의 논의는 희극성 경험의 미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희극성을 분류하여 교육 내용적 차원의 논의의 기반을 다졌다는 의의가 있다. 강태근[24]은 일찍이 문학교육 분야의 해학의 개념을 해학(Humor), 반어(Irony), 풍자(Satire), 기지(Wit)로 분류하여 우리 문학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학의 희극성을 유형화하여 교육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희극성 감상 교육을 위해서는 희극성의 구체적인 분류의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본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시켜 주기도 하였다.

교육 논의는 아니지만 조동일[25]의 미적 분류는 문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여기에서 다룬다. 조동일은 미학을 숭고, 우아, 비장, 골계로 구분되는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하고,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의 관계를 기준으로 관계의 속성을 융합과 상반이라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중 문학의 희극성과 관계되는 '골계'를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의 희극성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틀이 될 수 있으나 학습자가 희극성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직접적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

23) Raymond J. Endres, "Humor, Poetry, and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19(4),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 1966.

24) 강태근, 「<문학 교육 분야> 해학의 개념 연구」, 『새국어교육』 41, 한국국어교육학회, 1985.

25)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희극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 조현일[26]의 연구는 큰 참고가 된다. 조현일은 문학교육에서의 웃음, 유머 교육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유머의 구조를 파버의 이론에 따라 조소적, 감정이입적, 규제-대항[27]으로 분류하고, 유머 교육의 세 차원을 인식적, 심리적, 윤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논의는 희극적인 텍스트에 대한 교육을 언급한 연구로서 가장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이상으로 사설시조의 특성으로서의 희극성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한 뒤, 범위를 넓혀 희극성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설명하거나,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희극성의 중요성을 설명한 연구는 있었으나 학습자가 이러한 희극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어떻게 경험해야 하고 어떤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여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과 수용자의 반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 후, 실제 학습 독자가 보고한 희극성 경험의 정도와 감상문을 분석하여 교육의 실제를 설계할 것이다. 우선, 희극성을 설명하는 웃음 이론과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가진 특징을 검토한 후 불일치 이론에 근거한 파버의 희극성 분류를 참고하여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성격을 '반-규제적', '공감적', '조소적'으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한 이론을 바탕으로 희극성의 반응의 단계와 수용자의 기대되는 반응을 논의한다. 파버의 이론은 웃음의 유형에 따른

26) 조현일, 2018, 앞의 글.

27) 본고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조소적(derisive), 공감적(empathetic), 반-규제적(counter-restrictive)으로 번역하였다. 웃음의 유발에는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그러한 거리가 함의되지 않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보다는 '공감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항'이라는 단어가 가진 강한 의도성보다는 개념의 포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반-규제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용자의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Ⅲ장의 사설시조 텍스트의 희극성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내면을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이후,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의 실제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예비조사을 통해 학습자 반응의 정도를 확인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앞에서 분류한 사설시조 희극성의 세 종류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의 시조를 모두 감상하고, 동일한 활동을 각 시조에 따라 세 번 수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내(1차시)에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세 종류의 사설시조를 읽고 작품 이해를 위해 화자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간단한 학습활동을 수행한 후, 작품의 희극성 경험을 리커트 척도로 표시한 뒤 작품에 대한 짧은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이는 교육적 처치 전의 사설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한 것으로,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하였으며, 학습자는 동료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희극성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설시조를 감상한 뒤 보이는 반응을 확인하고, 그 반응의 양상을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희극성 경험의 과정과 비교하여 교육적인 처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본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Ⅳ장에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이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수업을 실시하였다. 적용 조사에서 연구자는 직접 교수자로 참여하여 총 2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의 조력자로 한정하였다. 교육 내용과 방법은 Ⅲ장에서 분석한 교육적 시사점을 통해 웃음 유형별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인 비계 설정을 핵심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로, Ⅳ장 교육 방안의 사례로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논의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높였다. 전체적인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구분	조사 기간	연구참여자	인원	활동 내용
예비조사	2021.5.24. -2021.5.25.	서울 S 음악 고등학교 1, 2, 3학년	85명	- 화자의 상황, 화자의 감정, 작품의 분위기 정리 - 작품의 희극성 경험을 리커트 척도로 표시 - 감상문 작성
본조사	2021.5.27. -2021.5.31.	서울 D 고등학교 2학년	78명	
	2021.6.2. -2021.6.4.	서울 H 과학 고등학교 1학년	132명	
적용 수업	2021.8.23. -2021.8.26.	서울 Y 고등학교 1학년	21명	- 비계 질문을 통한 맥락 탐색 -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 패러디 창작 활동 - 감상문 작성

작품 선정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사설시조 희극성 유형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의 유형은 Ⅱ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으나, 사설시조의 다양한 희극성인 '반-규제적 웃음', '공감적 웃음', '조소적 웃음'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설시조 작품을 선정하였다. 희극성의 유형은 한 텍스트에서 동시에 여럿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각 희극성 유형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둘째, 비교육적이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희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설시조의 일부는 성적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적 제재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작품의 희극성이 단순한 유희성을 넘어 교육적 의미가 있거나 이미 교육적 의미가 검증된 제재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고는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 <님이 오마 하기에>, <두터비 파리를 물고>를 제재로 선정하였다.

제재 선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작품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에게 기대되는 규범을 비합리적으로 벗어나는 대상', '기다림 속 착각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허무를 느끼는 대상', '약자에게 강하다가도 강자 앞에서 작아지는 대상'이 희극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세 작품은 각각 해방감을 유발하는 반-규범성, 공감을 유발하는 대상의 열등함, 조소를 유발하는 대상의 열등함이 희극성 경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8] 또한 <님이 오마 하기에>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는 교육적 의미가 잘 검증되어 이미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은 규범의 경계선에서 드러나는 솔직한 인간적 소망을 신선한 표현으로 드러내[29]면서도 그 내용이 저급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는 제재로 적합하다.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감상과 교사의 해설 개입의 최소화를 위해 사설시조는 현대어역으로 제시되었다.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등학생 학습자군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조를 이미 접한 경험이 있으며, 시조의 장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상반되거나 이중적,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할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 셀만(Selman)은 역할수용이론을 말하며, 10~12세 아동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호적 역할 수용의 단계에 있으며, 12~15세의 아동은 타인의 관점을 상황,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역할 수용 단계에 있다고 하였다.[30] 사설시조에서는 정신적 추리과정과 타인의 관점에 대한 맥락적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친 고등학교 학습자가 가장 적절하다. 셋째, 이러한 복잡한 정서를 어휘로 표현할 만큼의 어휘력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학습자군은 다양한 학습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음악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학습자를 모두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1) 리커트 척도[31]와 2) 감상문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 연구를 지향하였다.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일차적 자료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여 경향성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수량화된 자료는 무엇의 차이가 있고 없음을 드러내고, 그 차이의 정

---

28) 김흥규, 『사설시조의 세계:범속한 삶의 만인보』, 세창출판사, 2015, p.39; 김흥규, 「사설시조의 시선 유형과 그 변모」, 『한국학보』 18(3), 1992, p.14; 하윤섭, 「인간 존재에 대한 사설시조의 시선」,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p.384 참조.

29) 이 작품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일상적 삶 속 욕망과 그 실현을 향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 윤리적 위기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그것을 심판하기보다 사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감정의 방향에 대해 음미해 볼 만한 여운을 남긴다. 김흥규, 앞의 책, pp.38-40 참조.

30) 성현란 외, 『발달심리학』, 학지사, 2019, pp.386-388.

31) 희극성 경험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뇌 과학적 방법, 카메라를 통한 표정 및 행동 관찰, 리커트 척도를 통한 자기보고 방법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K. Fried & S. Carson, 앞의 글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리커트 척도를 통한 자기보고 방식을 선택하였다.

도를 알려준다는 유용성이 있다.[32] 학습자는 희극성 유형을 대표하는 사설시조 세 작품을 읽고 각각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한 희극성에 대해 10점 척도로 표시하기를 요구받았다. 10점은 가장 강한 정도의 희극성 경험, 1점은 희극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로 설정한 후,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10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

1점	10점
희극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함	강한 정도의 희극성을 경험함

[그림 1] 리커트 척도

그러나 양적인 방법론만으로는 수용자의 내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감상문 자료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희극성 경험의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또한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반응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보완적[33]인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본고는 리커트 척도 4점 이하를 희극성 경험의 부정 응답으로 간주하고, 학습자들의 반응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긍정 응답의 학습자 중 희극성 경험의 단계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감상문을 선별하여,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범주화된 반응과 희극성 경험의 반응을 비교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2) 김황기, 「미술교육에서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의 통합」, 『미술교육논총』 19(3), 한국미술교육학회, 2005, p.5.

33) 로스맨과 윌슨(Rossman & Wilson, 1985), 그린, 캐라셀리, 그래햄(Greene, Caracelli & Graham, 1989)은 통합된 탐구 방법의 다섯 가지 장점으로 다면적 검증, 상호보완성, 발전, 안내, 확장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통합방법론은 이 중 한 연구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다른 연구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로서 검증, 확장, 예증, 설명하는 상호보완성과 다른 탐구 요소들을 위한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탐구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는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Rossman, G. B., & Wilson, B. L., “Numbers and word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single large-scale evaluation study.”, *Evaluation Review* 9, 1985; Greene, J. C., Caracelli, V. J., & Graham, W. F., “Toward for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Educational Evaluation an Policy Analysis* 11, 1989. (위의 글, p.9에서 재인용)

학습자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범주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이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 방법이다.[34] 현상학적 접근은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실재에서 그들을 알고,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35] 1차적으로 리커트 척도를 통해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에 부정응답을 한 학습자 자료를 대상으로는, 반응의 범주화에 강점을 둔 콜레지의 방법을 선택하였다.[36] 콜레지의 방법론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37]

①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②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③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한다.

④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다.

⑤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 단위(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방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취합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재진술하고, 이후 공통단어와 문맥으로 해당 주제를 범주화했으며, 이렇게 범주화한 주제를 반복 검토하였다. 각 희극성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범주화한 결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34) 김분한 외 8명,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9(6) 한국간호과학회, 1999, p.1209.

35) 위의 글, p.1208.

36) 방민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통일의식 연구-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5,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에서도 콜레지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소수 대상에 대한 면담을 주로 활용하는 여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다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가 가능한 콜레지의 방법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7) 김분한 외 8명, 앞의 글, p.1211.

원자료		재진술
[D2-1-08-저] (화자는) 흰 옷 입은 ‘임’을 얄밉다고 할 정도로 돌다리 건너에 있는 ‘임’을 좋아하고 있다. (화자는) 흰 옷을 입은 ‘임’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 만약 같이 살지 못한다면 친구의 임이 되어 계속 볼 수 있길 원하고 있다. (시는) 그냥 임을 사랑하고 특정한 소원을 기원하고 있다. 슬프거나 감각적인 분위기는 없다. **화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임이랑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화자가 바라는 뒷 소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나랑 사귈 운명이 아니면 임이랑 잘되라고 바라고 있지만 솔직히 나랑 안 된다고 그 사랑이 바로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친구랑 임이랑 사귀면서도 화자는 그 마음을 버리기 힘들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임한테 치근덕댈 수 있다. 친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다.** (1)	➔	학습자는 화자와 임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종장에 나타난 화자의 소망에 문제를 제기한다. 화자는 친구와 임이 이어지기를 희망하지만 화자가 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친구와 임이 실제로 이어지더라도 임에게 의도하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것은 친구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구성된 의미
		학습자는 화자가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친구와 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중에 부도덕적인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주제		주제 단위		범주
학습자는 **화자를 비판**한다.	➔	언어적 비합리성에 반응	➔	비합리성에 대해 논리적 비판

[그림 2] 콜레지에 따른 범주화 예시

위의 사례는 자신의 희극성 경험에 대해 10점 리커트 척도에서 최저점인 1점을 보고하여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자의 자료이다. 학습자의 감상문에 해당하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학습자의 희극성 경

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밑줄)을 추출한다. 그 다음,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을 보다 일반화된 형태와 언어로 재진술한다. 그 다음 구성된 의미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주제, 주제 단위, 범주로 보다 큰 항목에 분류하여 조직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반응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추출한 후, 희극성 경험 실패의 원인이 위치하는 희극성 경험의 단계에 따라 주제 단위로 묶었다. 그 후 주제 단위들을 다시 공통점을 기반으로 2~3개의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그렇게 조직하고 분류하여 완성된 범주화 작업의 결과는 Ⅲ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범주화된 학습자 감상문의 발췌문에 해당하는 원자료는 <부록1>로 제시한다.

Ⅱ. 학습자 반응 중심의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희극성 개념과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본질

1.1. 희극성의 개념과 희극성 유발의 기제

사설시조의 미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 논의에서는 희극성 외에도 여러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희극성을 선택하였다. 과거의 논의에서는 미학의 범주에 따라 숭고미의 대칭개념으로 골계미를 설정하고 그 안에 해학, 아이러니, 기지(위트), 풍자로 나누어 설명하는 양상을 보였다.[38] 고정희는 '희극성'을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과 인지의 방식'으로 설명하며[39], '우스꽝스러움'과 문제의식 및 태도의 '진지함'을 아울러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희극성'을 사용하였다[40]. 박상영은 사설시조의 비극적 절망감이 내용적 측면에서 실현되며, 희극성은 형식적 측면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설시조의 특징을 '희비극성'으로 제시한다.[41]

조규익은 사설시조의 미적 특성을 골계로 설명하고 그 종류를 해학과 풍자로 나누었다.[42] 그에 따르면 해학은 인간 본능의 긍정을 통해 사회의 억압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진다. 해학은 유정골계라고도 하는데, 대상을 부정하면서도 이 부정의 대상에 동정적이다. 반면 풍자는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3] 이도연은 국문학 연구에 있어 희극성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를 통해 해학과 풍자를 각각

38) 심여택, 「사설시조에 나타난 해학성」, 『논문집』 14, 인문학편, 1982, p.19.
39) 고정희, 앞의 글, 2011.
40) 고정희, 앞의 글, 2003.
41) 박상영,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 한국시조학회, 2012.
42) 조규익, 「만횡청류 연구-골계와 미적 승화에 대한 논의」, 『숭실어문』 12, 1995, pp.1-28.
43)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20, p.282.

‘언제나 부정된 현실 속에는 자기가 있음’과 ‘부정된 대상 속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이를 아우르는 희극성을 ‘주체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인 속성과 자질들’로 보고 그 본질을 악에 대한 ‘부정(negation)’으로 정리하였다.[44] 이는 웃음의 종류를 자신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인 유머(Humor)와 타인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인 위트(Wit)로 나누고 각각을 피학성과 가학성과 연결시킨 프리맨틀(Fremantle)의 논의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45] 위트는 대상의 인격이나 위상에 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가학적이며, 유머는 자신을 향해 웃기에 피학적이다. 프리맨틀이 위트를 내용적 측면의 용어로 개성 있게 사용하였으나, 위트는 본래 풍자와 해학과 같은 내용적 성격 그 자체보다는 지성 및 언어적 표현과 연관되어 구분된다.[46]

본고에서는 사설시조의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웃음과 진지함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설시조의 진지한 지향과 대비되는, 웃음 유발의 의도를 가진 풍자와 해학, 미적 특성으로의 골계 등을 묶은 사설시조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희극성’을 사용한다.

웃음 이론(study of Humor)이라고도 불리는 일련의 논의와 연구들은 희극성과 웃음의 관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희극성과 웃음을 구분하여 희극성을 표현과 인지로, 웃음을 주체의 반응이자 행위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둘째는 희극성과 웃음을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 경향에 해당한다.[47] 본고는 후자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희극성 개념을 취하며, 희극성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불일치에 대한 해방적인 쾌의 경험 및 그러한 경험을 유발하는 텍스트의 자질로 규정한다. 다음은 이러한 희극성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한 웃음 이론의 검토 내용이다.

희극성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보통 이하의 악인의 모방’이라고 말하며, 우스꽝스러움은

---

44) 이도연, 「국문학 연구에 있어 희극성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예비적 시론」,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45) Fremantle, 앞의 책.
46) 김진희, 「영어시조에 나타난 위트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42, 한국시조학회, 2015, p.124.
47) 박상영,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pp.39-40.

남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 실수나 기형이라고 정의하였다.[48] 보들레르는 희극성의 본질이 '우월감'이라 말하며, 의미론적인 평범한 코믹은 타인의 실수와 서투름에 대비되는 자신의 우월감이 드러나며, 그로테스크한 절대적 코믹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주체의 우월성을 자신감 있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9] 베르그송은 희극성의 본질을 '기계적인 것과 생명을 가진 존재의 대립'에서 찾았다.[50] 이처럼 희극성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으나, 본고에서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불일치 이론(Incongruity Theory), 심리적 우월 이론(Superiority Theory), 무해한 위반성 이론(Benign Violation Theory)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희극성이 기대의 무화에서 온다는 견해

불일치 이론은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무(無)로 전화하는 데서 유발되는 희극성을 설명한다. 이는 새로 추가된 정보가 기존의 인식을 수정함에서 오는 희극성으로, 이때 인식의 조정은 상황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사소하게[51] 만든다.[52] 이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칸트는 웃음을 긴장된 기대가 갑자기 무로 전화하는 데서 일어나는 감정이라 보았다.[53] 이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괴리의 포착으로, 상황을 제시하면 수용자가 결과를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 놀라움을 경험한다. 2단계는 괴리의 해소로, 앞에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규칙을 찾고, 찾는 경우 웃음이 유발된다. 만약 결과가 예측가능하고 뻔하거나, 규칙

48)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제5장, 문예출판사, 1994, p.43.
49) 김효, 「보들레르의 웃음 담론과 판소리의 희극성」, 『비교문학』 52, 한국비교문학회, 2010.
50) 이영석,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서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8(2),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6.
51)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설명하는 이해-조정 이론(Comprehension - Elaboration Theory)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때 조정된 해석은 상황의 가치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52) Rod A. Martin, Thomas Ford, *The Psychology of Humor: An Integrate Approach,*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2006.
53) 백종현 역,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을 찾을 수 없다면 각각 웃음 없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유발할 뿐이다. 사설시조 종장의 반전은 초장과 중장에서 쌓아 올린 긴장된 기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고, 상황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사소하게 만들어 희극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평시조와 달리 사설시조에는 유독 반전이 많은 것은 이와 관련된다.[54]

② 희극성이 대상의 열등함에서 온다는 견해

심리적 우월은, 대상의 행동이나 말의 지나침 혹은 부적절함에서 유발되는 희극성이다.[55] 다른 말로는 우월 감정설, 우월성 이론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체가 열등한 희극적 대상에 대해 심리적 우월감을 느낄 때 웃음이 유발된다고 하였다.[56] 이와 유사하게 플라톤은 웃음을 친구들의 나쁜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심술궂은 시기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았으며, 홉스는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기 흉한 일을 발견하고 자신과 비교하여 갑자기 자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57] 사설시조의 대상의 추락, 반복적인 의태어나 대상의 과도한 신체적 행위[58]는 주체가 열등한 희극적 대상에 대해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게 하여 희극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③ 희극성이 규범의 위반에서 온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무해한 위반성이란, 두루 용인되지만 위반되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법한 규범을 위협함에서 유발되는 희극성이다.[59] 이는 비교적 현대에 제시된 웃음 이론으로서 상황에 대한 인지와 해석이라는 사고과정으로부터 웃

54) 이에 대해서는 사설시조의 논점 회피의 희극성을 '구조의 반전'으로 설명한 고정희, 앞의 글, 2003과 기대-탈 기대 구조의 '놀람형'으로 설명한 박상영, 앞의 글, 2009 참조.
55) 위의 책.
56) 천병희 역, 앞의 책, p.43.(이도연, 앞의 글에서 재인용)
57) 조현일, 2018, 앞의 글에서 재인용.
58) 이에 대해서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사설의 확장과 잉여'로 인한 신체적 비용의 낭비로 설명한 고정희, 앞의 글, 2003과 기계적 반복구조의 '꼭두각시형'으로 설명한 박상영, 앞의 글, 2009 참조.
59) Rod A. Martin, 앞의 책.

음이 나옴을 설명한다. 따라서 앞의 이론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황 자체의 객관적 속성보다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해석을 강조한다. 무해한 위반성 이론은 불일치 이론과 유사하면서도, 모순되는 두 가지 뜻의 병치나 개념이나 사건의 예상하지 못한 진행인 불일치(incongruity)의 범위를 좁혀 위반(violation)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해한 위반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위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사회적, 언어적 규범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위반이 무해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자극이나 상황을 위반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을 악의가 없고 무해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두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악의가 없고 무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규범이 받아들여질 만한 규범이여야 하며, 그 규범이 위반되어도 크게 신경 안 쓸 만한 일이거나 위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심리적으로 느껴야 한다. 한편 위반당하는 대상이 자신과 정신적으로 가까운 경우, 더 웃기게 받아들여진다. 사설시조에는 앞에서 규정한 '무해한' 수준에서 당시 규범을 위협하는 인물이나 표현이 등장한다. 특히, 사설시조 속 인물들은 규범과 욕망 사이에서 분열되며 희극성을 유발한다.[60] 규범과 욕망 사이에서 때로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파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설시조는 그러한 인물을 심판하기보다 이면의 동기와 맥락을 포착함으로써[61] 그것이 악의가 없는 무해한 위반임을 보여준다.

위의 이론들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희극성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주목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에 하나의 기준에서 사설시조의 여러 희극성 유형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상반된 요소가 유발하는 희극성이라는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인해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④ 희극성을 복잡한 요인의 종합으로 유발된다는 견해

러셀(Russell)[62]은 학습자의 인식 패턴(perceptual patterns)과 반응 패턴

60) 고정희, 앞의 글, 2011.
61) 김흥규, 앞의 책, p.279.

(response patterns)을 고려한 웃음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웃음은 독립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가진 단 하나의 요인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반응의 패턴이 조합된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는 웃음 유발의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모호성’은 의미의 모호함이나 내용의 불일치를, ‘개념 형성’은 의식적인 개념이 하나의 방해 요소로 제한되며, 그 요소로 인해 조정되는 것을, ‘쾌-불쾌’ 인식은 방해 요소로 인한 적응 및 조정이 쾌락적이며 조정되지 않는다면 불쾌로 남는다는 것을, ‘대안적 반응’은 놀람, 외침, 신체적 움직임, 눈물과 같이 희극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웃음과 그 외의 유사한 반응이 실은 보다 합리적 이성이 막다른 길에 봉착되었을 때 유발됨을, ‘유머러스한 기분’은 비판적이지 않고 유연하며 즐거운 상태의 개인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조합되었을 때 웃음은 유발된다.

이 이론은 수용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과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반응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웃음이 가지는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획일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파버의 확장된 불일치이론은 수용자의 내면의 반응을 고려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희극성 유발 기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서구의 웃음 이론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학습자의 주체성과 수용을 강조하면서도, 인지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학습자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본질을 살펴본다.

1.2.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의 본질

앞에서 검토한 이론들은 농담, 코미디 극, 특정 장면 등 여러 상황에서의 웃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문학, 그중에서도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갖는 특수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62) Roy E. Russell, 앞의 글.

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설시조 희극성이 제공하는 경험의 본질은 크게 반-규제적 경험, 공감적 경험, 조소적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도 아니며 동시에 둘 이상이 발견되거나 경험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사설시조는 규제를 넘어서는 일탈적 모습을 통해 수용자로 하여금 그에 동조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상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며 수용자가 그러한 조소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다음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되는 사설시조 희극성의 세 유형이다.

① 반-규제적 경험

평시조와 비교하였을 때, 사설시조는 장형화와 산문화를 지향함에도 평시조의 3단 형식을 유지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평시조가 수렴한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는 파격과 일탈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다.[63] 사설시조 연구의 초창기부터 사설시조의 특징으로는 '육욕의 기탄없는 영발', '욕설의 도입' 등의 규범을 벗어나는 특징이 주목받았다.[64] 가령, 이정보의 사설시조에서 "간밤에 자고간 그놈"이라는 성적인 표현과 또 다른 사설시조에서 "중놈이 승년의 머리털 잡고"라는 구절에서 폭력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설시조를 '놀이'로서 즐기는 현장에서 '여유에 바탕한 일탈'의 미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용인되는 표현이었다.[65] 사설시조의 반-규범성은 성적 혹은 폭력적인 요소로 일탈적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로는 비합리성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비합리성이란 일종의 넌센스(nonsense)로, 모순적이거나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 폭력적, 비합리적 반-규제성은 규제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극대화하여 폭로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63) 이재준,「사설시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그 의미 - 대상과의 관계 맺기 방식을 중심으로」,『온지논총』37, 온지학회, 2013, p.10.
64) 고정옥,『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서문.
65) 김학성은 사설시조를 일부의 시조가 추구해나가는 '파격의 미학' 단계에서 그 정점에 위치해 있는 시조로 규정하였다. (김학성,「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어문연구』3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p.89-94.)

또한 규범의 범위를 넓히면 사설시조의 반-규범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반전구조가 수용자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유발하였다면, 수용자가 그 전에 이와 다른 특정의 상황을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전에 주입된 '관습적인 무엇'을 떠올린 것이다.[66] 이 '관습적인 무엇'은 사설시조의 반전이 수용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기를 바라는 의도적인 무엇으로, 상식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바탕하며 예측 가능한 규범적 범위 내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나 사설시조는 기대되거나 마땅히 그러한 것으로 수용되는 결말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수용자에게 규범을 벗어난 무엇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밑남편 광주 싸리비 장사~'[67]에서는 남편을 두고 여러 종류의 정부(情夫)를 둔 부정한 행실의 화자가 등장한다. 수용자들은 화자가 자신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비난을 방어할 것을 예상하겠으나, 종장에서 화자는 엉뚱하게 자신의 '얼골'을 언급하는 넌센스를 보인다. 이러한 반전으로 심리적 강조점은 화자의 행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무화시키고, 가치의 전복을 암시하기까지 한다.[68] 이는 수용자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 반-규제적 경험으로 이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은 규범을 벗어나는 반-규제적인 파격을 통한 미적 쾌감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69]

② 공감적 경험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통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사설시조의 내용적 분위기를 저속하거나 덜 진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로써 더

---

66) 이재준, 앞의 글, p.25.

67) 밋난편 廣州ㅣ 빠리뷔 쟝ᄉᆞ 쇼대 난편 朔寧 닛뷔 쟝ᄉᆞ
눈경에 거론 님은 ᄭᅮᄯᅡᆨ ᄭᅮ두려 방망치 쟝ᄉᆞ 돌호로 가마 홍도깨 쟝ᄉᆞ 뷩뷩 도라 물레 쟝ᄉᆞ 우물 젼에 치ᄃᆞ라 ᄀᆞ댕ᄀᆞ댕 ᄒᆞ다가 워렁충창 풍 빠져 물둠복 ᄯᅥ내ᄂᆞᆫ 드레곡지 쟝ᄉᆞ
어듸가 이 얼골 가지고 죠릐 쟝ᄉᆞ를 못 어드리
『진본 청구영언』#565.

68) 고정희, 앞의 글, 2003, p.94.

69) 규범의 위반은 적정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특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웃음은 분노나 멸시, 비난 등으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이형대, 앞의 글, p.273 참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앞에서 웃음 유발의 기제 중 '③ 희극성이 규범의 위반에서 온다는 견해'에서 '무해한' 규범의 일탈로 설명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70] 이러한 희극적인 통속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열등한 대상의 존재이다. 사설시조의 열등한 대상은 종종 능력과 심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범용한 존재[71], 즉 변변하지 못하고 '평범'한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사설시조의 인물들은 감정이 과잉되거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친 자부심을 갖거나, 사소한 것을 심각하게 다루거나, 태도가 일관성 없이 빠르게 전환되고 행동이 경망스러운 등 과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낭패를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된다. 변변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때로는 수용자가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설시조는 수용자에게 공감적인 경험을 유도하게 된다. 김흥규는 이를 '희극적 투사'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작중인물과 수용자의 완전한 동일화는 차단되지만, 그 바탕에 있는 욕구와 낭패의 심적 체험은 친화적 관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72] 대상의 열등함이 보편성을 가지는 한, 그것은 타자의 문제만이 아닌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하기에 공감과 관용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 보편성의 근원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핵심으로 지적될 수 있다.[73] 열등하고 범용한 존재의 뒤에는 그러한 존재의 특성이나 행동을 추동하는 욕망이 존재한다. 사설시조는 서민적 소재와 감정의 노출[74], 형이하학성[75]을 특징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현세적 삶이 부여하는 욕망을 극대화[76]하고자 하는 힘이 깔려있으며, 이 욕망의 보편성으로 인해 수용자는 사설시조의 열등한 대상을 긍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설시조 중에서는 인간의 열등함을 징벌하고 조소하기보다 대상의 결함을 인간 보편성의 차원에서 끌어안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긍정의 시선이 나타나는 사설시조 작품 중에서는 '자기풍자

---

70) 조성진, 앞의 글, p.147.
71) 김흥규, 앞의 글, p.13.
72) 위의 글, p.14.
73) 위의 글, p.14.
74) 신윤경, 「사설시조에 나타난 '연애걸기'의 양상과 그 의미-<만횡청류>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6, 이화어문학회, 2008, p.277.
75) 고정옥, 앞의 책, 서문.
76) 신윤경, 앞의 글, p.290.

(self-parody)' 의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이 있다. 자기풍자란 '언제든 모방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을 웃음거리로 내어놓아 조롱하며 비판하는 동시에 연민하고 반성하는 비평적 태도' 로 규정된다.[77] 이는 작품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비감에 함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자신을 조롱하면서도 연민과 긍정을 놓치지 않아, 엇갈리는 목소리 속에서 삶의 균형감을 회복하는 지향을 보인다.[78]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웃음거리로 내놓고 스스로 연민하는 화자의 태도에, 수용자 역시 상황적인 비극성에 함몰되기보다는 연민과 긍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풍자는 웃음이 연민을 함께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대상을 부정하면서도 부정의 대상에 동정적[79]' 인 해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수용자들은 대상의 과잉된 욕망과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도 동시에 그 얼굴들이 '낯설지만은 않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80] 이처럼 열등한 대상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과 함께 웃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설시조 희극성의 경험은 공감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③ 조소적 경험

온정적인 태도로 대상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설시조도 있으나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설시조도 존재한다. 이 유형의 사설시조는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공격[81]하면서, 부정된 대상 속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82]으며 대상의 인격이나 위상에 해를 가하고, 대상을 향해 웃는 가학성[83]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대상의 열등함은 수용자와 공감되는 보편성을 가지기보다는,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고, 심한 경우 혐오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수용자와 공유되지 못하는 열등함이 된다. 수용자들은

77) 조성진, 앞의 글, p.147.
78) 위의 글, p.148.
79) 김준오, 앞의 책, p.282.
80) 김흥규, 앞의 책, p.224.
81) 김준오, 앞의 책, p.282.
82) 이도연, 앞의 글.
83) Fremantle, 앞의 책.

대상을 추락시키고 조롱함으로써 우월감과 재미를 느낀다.

가령, 사설시조는 때로는 배척과 배제 대상으로서 장애를 가진 대상을 그리기도 하는데, 앞의 유형처럼 공감적인 희극성을 가진 사설시조가 그러한 장애를 감싸 안았다면, 이 유형에서는 오히려 대상의 열등함에 거리감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형은 <곰보타령>류의 작품과도 맥을 같이한다. 곰보를 소재로 한 공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은, 당시에 곰보가 인기있는 공연 레퍼토리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는 곧 당대 곰보에 대한 혐오의 시선이 연행 현장에서는 하나의 유희로 활용되었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84] 사설시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열등한 대상이 배척과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설시조의 웃음은 '대상과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대상을 향해' 웃는 것이 된다.

'바독바독 뒤얼거진 놈아~'[85]는 얼굴이 얽은 사람에게 고기들이 그물로 오해하여 달아날 것이라며 냇가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질병으로 인해 곰보가 된 대상에게 화자는 비하하는 태도와 공격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로 거리감을 넓히고 있다.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혐오를 유희와 오락으로 향유하는 것은 공유하지 않으며 동시에 공유하고 싶지 않은 대상의 열등함을 조소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신체적인 장애와 같은 대상의 열등함을 희화화하는 것은 유희와 오락, 재미를 더해 주는 문화적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86] 이러한 조소적인 희극성은 조롱의 유희성에 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기도 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은 앞에서 검토한 무해한 위반성 이론의 반-규제성과 심리적 우월 이론의 조소적 태도, 그리고 불일치 이론의 비일관적 요소 내지는 모순된 요소의 병치가 때때로 결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앞에서 검

---

84) 박상영,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p.141.

85) 바독바독 뒤얼거진 놈아 졔발 비자 네게 넛가에란 서지마라
눈 큰 준치 허리 긴 갈치 츤츤 가믈치 두르쳐 메오기 부리 긴 공치 넙젹ᄒᆞᆫ 가자미 등곱은 ᄉᆡ오 겨레만흔 곤장이 그물만 너겨 풀풀뛰여 다 다라나는ᄃᆡ 열업시 삼긴 오증어 둥긔ᄂᆞᆫ고야
眞實로 너 곳 와셔 이시면 고기 못잡아 大事ㅣ리라.
『악학습령』 #1008.

86) 박상영, 앞의 글, 2018, p.140.

토한 웃음 이론은 대상의 결함을 긍정하는 사설시조의 독특한 시선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파버의 희극성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파버는 희극성을 텍스트 차원의 내용, 구조, 형식을 연구한 연구자들과는 달리, 희극성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을 모색하려고 하는 본고의 지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그는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희극성을 반-규제적 웃음, 공감적 웃음, 조소적 웃음으로 나누어 희극성을 분류하였다. 이는 사설시조가 가진 반-규제성과 수용자로 하여금 공감 혹은 조소를 유도하는 특성과도 관련된다. 이 둘의 연결에 대해 Ⅱ장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본 후, Ⅲ장에서는 각 희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적 제재로서 선별된 사설시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수합한다. 한편 사설시조의 웃음은 야유, 자탄, 조소의 성격일 수도 있으며, 어느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의 복합일 수 있다. 희극성의 유형은 수용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며, 하나가 아닌 여럿이 동시에 경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희극성에 대한 수용자의 일반적 반응 단계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을 구명하고, 희극성의 유형별 반응의 단계를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의 개념은 독자반응이론[87]을 참고할 수 있다. 독자반응이론에서는 텍스트와 마주선 ‘독자’에 주목하여 독자가 텍스트와 관계 맺는 직접적인 양상을 ‘반응’으로 이름 붙였다.[88] 반응은 독자의 특성이나 발달 단계,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다.[89] 본고는 이러한 독자반응이론의

87) 반응의 개념은 수용 개념과 함께 언급되고는 한다. 경규진은 수용을 반응의 하위 요소로 보고, 독자반응이론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나 수용이론은 정의적 영역만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경규진,「반응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33 참고.

88) 강민규,「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행방과 향방」,『문학교육학』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p.33-72.

89) 진선희,「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문학교육학』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301-302.

반응 개념을 참조하여, 반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본고에서 반응이란, 학습자가 텍스트와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와 그것이 표현되는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지적・정의적인 작용을 모두 포괄한다.

사설시조 희극성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파버의 확장된 불일치 이론은 주목할 만하다.[90] 그는 수용자 내부의 반응을 설명하여, 문학과 기타 예술에서의 유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의 특수성은 바로 희극성을 수용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불일치 이론을 수용자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데에 있다. 국내의 기존 사설시조의 희극성 연구가 수용자보다는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버의 이론은 교육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불일치 이론이 매우 특정한 종류의 웃음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파버의 확장된 이론은 더욱 다양한 웃음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다. 그의 웃음 이론은 수용자 외부의 상충된 두 요소와 이들이 각각 수용자 내면에 일으키는 반응을 통해 웃음을 설명하는 바, 그 반응은 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복과 심리적 보상의 단계를 갖는다.

2.1. 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파버는 기존의 불일치 이론이 퍼즐과 같이 불일치하는 요소가 있지만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들을 예외적인 규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론 자체의 논리로 충분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불일치하는 두 요소의 관계를, 그는 두 가지 용어를 검토하여 선택한다.[91] 첫째는 기존의 불일치 이론이 사용하던 해소(resolution)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관점은 웃음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유발된다고 본다. 첫 단계는 불일치의 포착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불일치의 해소이다. 불일치의 포착 단계에서 수용자는 상황을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놀란다. 두 번째 단계에

90) J. Farber, 앞의 글.
91) 위의 글, p.68.

서는, 앞의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포착한 수용자가 앞에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규칙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경우 불일치가 해소되며 웃음이 유발된다. 만약, 규칙을 찾을 수 없다면 대상은 수용자에게 웃음을 유발하지 못하며 당혹감만 남기게 된다.

파버는 해소(resolution)라는 용어가 유머 보편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수의 농담만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용어인 연결(link)을 선택하는 바, 연결은 최소한의 연결인 단순한 병치(juxtaposition)부터 완벽한 대응(correspondence)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해소(resolution)보다 더 큰 범위의 사례들을 포함한다. 파버는 연결(link)이라는 용어를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 대상이 갖춘 두 불일치 요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두 불일치 요소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용자는 자신 내면에 [a], [b]의 반응을 일으키는 모순되는 텍스트 요소 A, B를 인지한다. 텍스트에서 A와 B는 함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구성한다. A는 예측 가능한 규범적 요소[92]이며, B는 A와 달리 규범이나 기대에 반하는, 공격적/부당/천박하게 여겨지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이다. 여기서 규범은 사회적인 규제보다는 보다 큰 개념으로, 수용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입견을 포함한다. 규범이나 기대에 반하며 공격적/부당/천박하게 여겨지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그 자체로 웃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B는 A와 함께 제시될 때 희극적이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희극성을 경험했다 하여도 규범적인 A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음으로써 기능한다. 수용자의 희극성 경험은 작품 내 상반되는 불일치 요소를 탐색하여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파버는 이 사례로 지위가 높은 대상을 풍자하여 그린 캐리커처를 든다.[93] 높은 지위를 가진 왕(A)을 과일(B)로 그린 캐리커처를 보았을 때, 수용자는 규범적이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대상(A)을 그림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규범과 예상에 반하는 과일(B)로 표현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에서 희극

92) 여기서 '규범적'은 그렇지 못한 대립쌍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93) J. Farber, 앞의 글, p.73.

성을 경험한다.

사설시조에는 이러한 연결을 가진 쌍들이 등장한다. 아래의 사례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담은 사설시조이다.

> 시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바흘 구루지 마오
> 빗에 바든 며나린가, 갑세 쳐 온 며나린가, 밤나모 서근 등걸에 휘초리 나니 갓치 알살피선 시아바님, 볏 뵌 쇳동가치 되죵고신 시어마님, 삼년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갓치 뾰족하신 시누의님, 당피 가론 밧틔 돌피 나니 삿치 새노란 욋곳 갓튼 핏똥 누난 아들 하나 두고,
> 건 밧태 메곳 갓튼 며나리를 어듸를 낫바 하시난고[94]

이 사례 역시 예측 가능한 규범적인 요소와 이에 반하는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A)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인 며느리보다 우월한 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화자가 이러한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을 낮은 자리에 위치시켜 한탄한다면, 이 작품은 지금처럼 희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화자는 대신, 자신을 구박하는 시댁 식구(A)를 나열하며 이들을 하찮은 사물(B)에 비유하여 순간적으로 대상의 권위를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 시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회초리가, 시어머니는 쇠똥이, 시누이는 송곳 부리가, 남편은 병든 오이꽃이 된다. 종장에서는 하찮게 구박 당했던 자신을 기름진 밭의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하여,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시댁 식구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시댁 식구들을 더욱 하찮게 만든다. 하찮은 사물(B)로의 비유는 만약 하찮은 대상을 하찮게 비유했다면 희극적 효과가 없지만, 권위 있는 우월한 대상(A)과 함께 병치된다는 점에서 서로 불일치하여 희극성을 유발한다. 여기까지는 텍스트에서 불일치하는 요소를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불일치 이론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나, 파버는 불일치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그러한 심리적인 반응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94) 『진본 청구영언』#520, 작자미상

2.2. 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다음으로, 수용자는 인지한 A, B에 대해 [a], [b]라는 각각의 내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각각의 내적인 반응은 심리적으로 수용자 내부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b]는 수용자의 강한 욕구나 자연적인 심리적 경향성에 해당하는 반면, [a]는 이에 반하는 내재화된 규범으로, 욕구를 성취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 장애물이 된다. 즉, [a]와 [b]라는 수용자의 내적인 반응은 수용자 내에서 길항 관계로 서로 작용한다. [a]가 수용자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b]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b]는 수용자가 선호하는 심리적 상태가 된다. 수용자는 자신의 욕망에 더 가까운 [b]를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싶어 한다. 수용자의 내적인 반응인 [a], [b]는 웃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앞의 사례 <시어마님 며느라기 낫바>에서 수용자의 반응을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시댁 식구(A)를 하찮은 사물(B)에 비유하는 것은 시댁이라는 [대상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a])과 [내재화된 사회적 규범]([a])을 환기한다. 이들은 모두 수용자의 욕구와 반대로 작용하는 내적 반응이 된다. 반면 하찮은 사물로의 비유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b])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b])를 환기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욕망에 더 가까운 내적 반응을 선호하게 된다.

2.3. 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복과 심리적 보상

마지막으로, B가 환기한 [b]의 반응이 성공적으로 [a]에 반대되면서 본래의 위계에 변동을 줄 때, 웃음은 유발된다. 이러한 변동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예측 가능한 A보다 공격적/부당/천박하게 여겨지는 B를 순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반대되는 두 요소의 원래 위계에 변동을 주어 심리적인 보상으로서 쾌(快)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텍스트의 B는 이성적 상태에서는 해방적이라기보다 자극적이거나 과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수용자가 유희적인 상태(play mode)에서는 동일한 요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b]가 [a]를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수용자는 쾌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95]

이 유희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은 앱터(M. J. Apter)의 전환이론(Reversal

Theory)[96]을 참고할 수 있다. 앱터에 따르면, 누군가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한 동기화 상태(motivational state)에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강한 각성을 경험해야 하며, 조정된 인지가 조정 전 대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한 동기화 상태는 열광 상태(paratelic state)이며, 이는 이완 상태(telic state)와 반대되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의 동기화 상태를 오가는데, 하나는 목표에서 자유롭게 흥분을 추구하는 유희적 심리 상태(패러탤릭 상태, paratelic state)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목표 지향적이며 흥분을 회피하는 상태(탤릭 상태, telic state)이다. 이 이론은 자극은 수용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여, 희극성 경험의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파버의 지향과 일치한다. 성차별적인 농담을 코미디언이 하는 것과 직장 동료가 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그 수용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는 직장 동료에게 듣는 경우에서 수용자는 목표 지향적인 흥분 회피 상태이며, 코미디언에게 듣는 경우에서 수용자는 목표에서 자유로운 흥분 추구 상태이기 때문이다. 파버의 이론에서 [b]가 [a]와 위계를 바꾸는 것은, 수용자가 자유로운 흥분 추구 상태인 놀이 모드(play mode)일 때 가능하다.

[b]가 [a]를 압도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한 의미가 다른 의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한 의미가 다른 의미에 대항하여 작용한 결과, 지각자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지배하는 제한을 일시적으로 무시하면서 유발된다.[97] 파버의 불일치 이론의 웃음 유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95) J. Farber, 앞의 글, p.83.

96) Rod A. Martin and Thomas Ford, 앞의 책.

97) 여기서 희극적인 것이 주는 쾌감과 다른 사례가 주는 쾌감의 유발 양상은 구분된다. 파버는 다음과 같은 비교 사례를 제시한다. 잘 풀리지 않는 퍼즐을 풀거나 지고 있던 축구 경기를 이기는 것은 희극적이지 않다. B가 A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사례를 들자면,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오만과 편견>에서는 수다스럽고 짜증스러운 인물인 베넷 여사가 등장한다. 많은 독자들이 희극적이라고 평가한 문장은 다음 ㉠과 같다. 그러나 이를 ㉡이나 ㉢으로 수정하면 희극적인 효과가 사라진다. 대립되는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베넷 여사는 그녀의 평소의 짜증스러운(B) 평온(A)을 회복했다. (원 문장)**
㉡: 베넷 여사는 평온한 상태(A)에서 짜증스러운 상태(B)로 바뀌었다.
㉢: 베넷 여사는 짜증스러운 상태(B)에서 평온한 상태(A)로 바뀌었다.

<오만과 편견>의 원래 문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부인의 평온(A)에서 기대되는 규범적인 모습에 대한 내적 반응([a])과 이에 걸맞지 않는 짜증스러운 평소 성격(B)이 환기하는 열등하

<table>
<tr><th>텍스트
요소</th><th></th><th>수용자
내면</th><th>수용자의
선호</th><th></th><th colspan="2">수용자 내면</th><th>최종 반응</th></tr>
<tr><td>A
규범적</td><td rowspan="3">➔
환기</td><td>[a]
억압적</td><td>비선호</td><td rowspan="3">위계
변동
⤨</td><td>[b]
비억압적</td><td rowspan="3">욕구
충족</td><td rowspan="3">쾌의 감정과
웃음 유발</td></tr>
<tr><td>↕ 모순</td><td></td><td></td><td></td></tr>
<tr><td>B
반-규범적</td><td>[b]
비억압적</td><td>선호</td><td>[a]
억압적</td></tr>
</table>

[그림 3] 파버의 불일치 이론의 웃음 유발 과정

기존 이론이 수용자 내부의 반응을 '규칙 발견'의 인지적 반응으로 압축하였으나, 파버의 이론은 수용자 내부 반응의 과정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의 양상을 모두 고려하였다.

본고는 파버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①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 ②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 ③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변동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쾌의 감정과 웃음)

[그림 4] 희극성 경험의 단계

파버는 실제 수용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는 같은 텍스트를 감상하고 희극성을 경험하였으나 각자가 다른 이유로 희극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희극성 경험이 동질적이지 않으며, 유형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불일치 이론이 불일치의 요소의 다양한 성격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

거나 반 규범적인 모습에 대한 내적 반응([b])이 길항관계를 유지하며, 순간적으로 [b]의 감각이 그 위계를 바꿔 수용자에게 쾌의 감각을 제공한다. 정리하자면, 희극성이 쾌감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든 제 자리에 남아 있어 수용자에서 제한적이거나 차단적인 것과 해방적인 것 사이의 대립쌍을 계속 형성해야 한다. (J. Farber, 앞의 글, p.71.)

파버의 이론은 불일치 요소의 성격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웃음 유형별 수용자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더욱 자세하게 서술한다.

3. 사설시조 웃음 유형과 심리적 보상

파버는 보편적인 틀 안에서 상충되는 두 요소와 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보상의 내용에 따라 웃음을 반-규제적 웃음, 공감적 웃음, 조소적 웃음[98]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앞에서 언급한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내용적 측면과 대응성을 가진다.

첫째, 반-규제적 웃음에는 규범과 이를 반하는 반-규범이 공존하며, 이에 따라 수용자에게 각각 내면화된 규범과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99]를 환기한다.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가 성공적으로 규범을 우회함으로써 수용자는 희극성을 통한 비합리성(넌센스)의 쾌의 보상을 얻는다. 둘째, 공감적 웃음에는 대상의 우월함과 수용자와 공유되는 열등함이 공존하며, 이에 따라 수용자에게 각각 우월함에 대한 감각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환기한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성공적으로 소외감을 약화시킴으로써 수용자는 희극성을 통한 소속감의 쾌의 보상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조소적 웃음에는 대상의 우월함과 수용자와 공유되지 않는 열등함이 공존하며, 이에 따라 수용자에게 각각 타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과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환기한다. 우월감이 타자의 우월성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킴으로써 수용자는 희극성을 통한 우월감의 쾌의 보상을 얻는다.

---

98) 원문에는 'humor'로 명명하였으나 '농담'의 의미가 아닌 수용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로서 희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웃음'으로 번역하였다.

99) 반-규제적 웃음에서 내면화된 규범과 대치되는 욕구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반-규제적 웃음 중 비합리성으로 유발되는 희극성만을 다루기에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자하는 욕구 중 합리성에 대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표 2> 웃음 유형의 분류

웃음의 유형 / 텍스트 내 상충되는 요소	반-규제적 웃음	공감적 웃음	조소적 웃음
A	사회적 규범	대상의 우월함	대상의 우월함
B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요소	**(수용자와 공유되는)** 대상의 열등함	**(수용자와 공유되지 않는)** 대상의 열등함

3.1. 반-규제적 웃음과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충족

반-규제적 웃음은 공격적 웃음, 성적인 웃음, 비합리적(nonsense) 웃음이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격적 웃음과 성적인 웃음의 사설시조는 교육적 제재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반-규제적 웃음을 논할 때는 비합리적 웃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한다. 반-규제적 웃음은 농담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와도 관련된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농담을 즐기는 이유에는 금지된 즐거움이나 원초적인 충동을 순간 분출할 수 있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100] 반-규제적 웃음 역시 '위반'의 감각에서 오는 심리적 보상으로부터 유발된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제한하는 제약들 속에서 살아가며, 동시에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웃음을 통해 위반되는 규범(A)은 생각, 감정,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B)는 규범이 억압하는 대상으로서 욕구 또는 그러한 욕구 대한 선호가 된다. 각각은 수용자에게서 내면화된 규범([a])과 이러한 규범에 대항하려는 욕구([b])를 환기한다. 비합리성(B)은 자유의 필요성과 생각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이 비합리성(B)은 규범

100) Rod A. Martin and Thomas Ford, 앞의 책.

을 내재화하는 것([a])보다는 규범에 대항하는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b])를 더욱 강화한다. 수용자는 규범에 대항하려는 욕구를 선택한다. 수용자의 내면에서 비합리성(B)에 대한 내적 반응([b])이 내재화된 규범([a])과의 위계를 전복하며 수용자는 비합리성에 대한 해방적인 쾌를 감각하며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져 건너 흰 옷 닙은 사름 존밉고도 양믜왜라
쟈근 돌ᄃᆞ리 건너 큰 돌ᄃᆞ리 너머 밥쒸여 간다 ᄀᆞᄅᆞ 쒸여가ᄂᆞᆫ고 애고애고
내 서방(書房) 삼고라쟈
진실(眞實)로 내 서방(書房) 못 될진대 벗의 님이나 되고라쟈
- <져 건너 흰 옷 입은 사름>[101]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에서는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을 비합리적으로 벗어나는 화자가 등장한다. 화자는 '져 건너'의 흰 옷 입은 사람을 관찰한다. 흰 옷 입은 사람을 서방 삼고 싶어 하는 여성 화자는 애가 탄 나머지 반어적으로 그를 얄밉다고 표현한다. 상대를 서방 삼고 싶어도, 당대의 사회적 규범에서 여성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초장, 중장에서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던 사설시조는 종장에서 희극적인 반전을 보여준다. 종장에서 화자는, 서방으로 삼지 못할 바에는, 친구의 님이나 되어 님의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엉뚱하고 비합리적인 발상을 드러낸다.

101) 『진본 청구영언』 #517, 작자미상

수용자는 텍스트 내 A, B를 발견하고, 이 둘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a], [b]를 내면에서 환기한 후, ㉮를 통해 이 둘의 위계를 변동시켜 ㉯를 얻는다.

A: 사회 규범

[a]: [내면화된 규범에 대한 감각]

B: 비합리적인 여성의 욕망

[b]: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

↙

㉮: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요소

↓

㉯: 쾌의 감정/웃음

[그림 5] 반-규제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쉽게 드러내거나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얄밉다고 말하며, 상대가 자신의 친구와 이어져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비합리적인 표현을 한다. 웃음을 통해 위반되는 규범(A)은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여성 화자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규제가 된다. 이에 대항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B)는 중장까지는 이러한 규범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대놓고 떠벌리는 모습[102]으로 드러나다가, 종장에서는 여성 화자의 엉뚱한 반응으로 화룡점정을 이룬다. 화자의 엉뚱한 발언은 한층 더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규제를 우회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내면화된 규범보다는 이에 대항하려는 욕구([b])를 환기한다.

종장의 독백은 짝사랑의 대상과 이루어질 확률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차라리 님이 벗의 남편이 된다면 가끔 훔쳐보거나 몇 마디 말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담긴 소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단순히 이성과 이어지고픈 욕망을 뛰어넘는 윤리적인 부적절함을 내포한다.[103] 그러나 이러한 비합

102) 김진희, 앞의 글, p.136. 여성 화자는 설렘을 억제하지 못하고 '잔밉고 얄밉다'는 반어와 함께 '애고 애고' 탄성을 터트리기도 한다. (김흥규, 앞의 책, p.38 참조)

리성에 담긴 맥락을 이해한 수용자는 그런 소망마저 품어 보게 하는 이끌림의 간절함에 집중하게 되며[104] 반-규제적 위치에 위치한 작품의 관점에 함께 서게 된다. 수용자는 최종적으로 비합리성을 선호하는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환을 통해 쾌의 감각과 함께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3.2. 공감적 웃음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은 앞의 반-규제적 웃음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규범이 아닌 특정 대상의 열등함이 희극성 유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웃음에서는 대상의 열등함이 수용자와 공유된다는 점에서 다시 조소적 웃음과 변별된다. 공감적 웃음의 심리적 보상은 독자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과 우리의 멍청함, 실패, 미숙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온다. 공감적 웃음은 우월해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동질감을 제공한다.

공감적 유머에서는 대상의 열등함과 대비되는 상대적으로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상의 우월함(A)이 존재한다. 대상의 열등함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행동이나 욕망이 과도한 것, 일관성이 없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와 반대되는 대상의 우월함은 반드시 객관적인 우월성을 가진 특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상의 우월함은 숭고하거나 우아한 것[105]이 될 수 있으면서도,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대상의 우월함(A)은 수용자에게 타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을 유발한다. 이러한 타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내적 반응([b])에 대응한다. 첫째는 우리의 우월감에 대한 욕구이며, 둘째는 대상의 우월함

---

103) 위의 책, p.39.

104) 위의 책, p.39. 김흥규는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의 독자가 욕망과 그 실현이 불러일으키는 윤리적 위기 가능성을 감지하고, 사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정의 행로에 대해 음미하며 웃음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웃음을 시조의 여성을 단순한 웃음거리로 삼은 것이라 보거나, 남성의 성적 욕망을 투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5) 조성진, 앞의 글, p.159. 희극미는 숭고미나 우아미와 대립하는 범주가 되며, 숭고한 것의 전락이나 우아한 것의 변질 속에 희극적인 요소가 끼어든다. 김학성, 「사설시조의 미의식 구조」, 『국문학연구』 40,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1.(조성진, 앞의 글에서 재인용)

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다. 공감적인 웃음은 이 중 후자와 관련되며, 조소적 웃음은 전자와 관련된다. 공감적인 웃음에서는, 이렇게 타인을 배제하는 면을 가진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깊은 욕망([b])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머의 불일치 요소(B)는 우리가 기꺼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감정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우월감([a])이 주는 소외감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적인 불완전함의 공동체에 편입된다.

> 님이 오마 ᄒᆞ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ᄃᆞ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ᄒᆞ고 오ᄂᆞᆫ가 가ᄂᆞᆫ가 건넌 산(山) ᄇᆞ라보니 거머횟들 셔 잇거ᄂᆞᆯ 져야 님이로다
>
>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븨님븨 님븨곰븨 쳔방지방 지방쳔방 즌듸 ᄆᆞ른듸 ᄀᆞᆯ희지 말고 워렁충창 건너가서 정(情)엣말 ᄒᆞ려 ᄒᆞ고 겻눈을 흘긧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ᄀᆞᆯ가벅긴 주추리 삼대 술드리도 날 소겨다
>
> 모쳐라 밤일ᄉᆡ 망정 힝혀 낫이런들 ᄂᆞᆷ 우일 번ᄒᆞ괘라
>
> - <님이 오마 하거늘>[106]

<님이 오마 하거늘>에서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는 화자가 등장한다. 작품에는 착각-행동-확인의 시간에 따른 서사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평시조에도 유사하게 반복되는 님에 대한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보통'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적인 작품 속에서, 수용자들은 기다림의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화자의 진지한 내면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은 종장에서 '곰븨님븨 님비곰븨', '쳔방지방 지방쳔방', '워렁충창'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인한 화자의 행동의 요란스러움은 상황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독자가 화자의 그리움과 간절함에 동화되기보다는 어렵게 한다. 심지어 종장에서 애써 겸연쩍은 마음을 낮이었으면 남들 웃길 뻔하였겠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분에서는 일관성

106) 『진본 청구영언』 #580, 작자미상

없는 화자의 내면으로 인해 희극성이 가장 극대화된다.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모르기에 다행이라는 화자의 안도는, 독자가 이미 모든 것을 엿본 점으로도 이미 모순적이지만, 중장까지의 간절한 마음과 허둥대는 모습과 상반되는, 사회적 체면을 차리는 모습에서 화자의 일관성 없음이 부각되어 희극성을 유발한다.

수용자는 텍스트 내 A, B를 발견하고, 이 둘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a], [b]를 내면에서 환기한 후, ㉮를 통해 이 둘의 위계를 변동시켜 ㉯를 얻는다.

A: 사랑하는 님을 기다림

[a]: [화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

B: 가벼운 행동, 체면 차리기

[b]: [소속감에 대한 욕구]

↙

㉮: <u>나와 공유되는</u>
대상의 열등함

↓

㉯: 쾌의 감정/웃음

[그림 6] 공감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화자의 사랑은 일상적이지 않는 것, 형이상학적인 것, 숭고한 것으로써 작품 내에서 대상이 가진 특징 중 우월한 요소가 된다.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진지한 사랑(A)은 수용자 내부에서 타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을 유발하며 이는 수용자를 상대적으로 소외시킨다. 그러나 화자는 뛰어가며 우스꽝스러운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고, 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에서 유발되었음을 발견하는 데서 대상의 열등함을 보여준다. 작품의 화자는 임이 왔다는 착각을 하여 허둥지둥 집 밖을 뛰쳐나갔지만 그 결과는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골가벅긴 주추리 삼대'에 속았음을 확인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화자는 원망이나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대낮이 아니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먼저 확인한

다. 이러한 모습(B)은 자기 절제의 능력과 판단력 및 심리적 일관성이 모자라는 범용함으로 나타난다.[107] 대상의 열등함이 가진 보편적인 범용함으로 인해, 수용자는 이들 화자에 대한 우월감보다는 이들에서 자신의 모습(B)을 발견하고 '배제되지 않고, 함께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깊은 욕망([b])을 환기한다. 수용자는 착각으로 인해 우스운 모습을 보이거나, 민망한 상황 후 애써 괜찮은 척한 경험을 환기하게 된다. 소위 말해 '나보다 한심하잖아'에서 '이것은 사실 나잖아!'의 발견으로의 심리적 전환이 이루어지며 쾌의 감각과 함께 웃음은 터져 나온다.

수용자들은 대상의 열등함과 함께 이면의 욕망과 간절함에 초점화할 수 있다. 수용자가 짓는 웃음은 대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인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한 상황 조건 및 욕구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긍정하는 특징[108]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수용자는 작품의 공감적 웃음에서 우리는 개인의 결점이 공유되고 따라서 덜 부끄럽다는 것을 발견하는 안도감을 경험할 수 있다.[109]

3.3. 조소적 웃음과 우월감에 대한 욕구 충족

조소적인 웃음의 심리적 보상은 대상의 추락을 통한 우월감 충족에 있다. 조소적 웃음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나 흐름은 대상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상황(A) 그 자체이다. 대상의 우월함(A)은 타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을 유발한다. 대상의 우월함(A)은 대상의 우월을 크게 드러낼 필요는 없으며, 불일치하는 요소(B)보다 조금이나마 우월하여, 수용자가 대상의 위상을 A에서 보다 축소시킬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조소적인 웃음의 불일치 요소(B)는 우스꽝스러운 상황(A)의 더욱 열등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우월감에 대한 욕구([b])를 환기한다. 수용자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b])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우월감을 환기하는 대상의 추락을 필요로 한다. 수용자는 대상의 추락에 가세하며, 우월감에 대한 욕구([b])를 선

107) 김흥규, 앞의 글, p.14.
108) 위의 글, p.14.
109) J. Farber, 앞의 글, p.77.

택함으로써 우리는 우월감([a])보다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b])를 더 앞에 놓고, 작품의 관점을 지지하고 대상으로서 개인이 의미하는 기관이나 규율을 타자로 규정하고, 우월감에 대한 욕구([b])를 충족한다. 이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돌연한 영화(sudden glory)와 같은, 남들 위로 올라가는 우월감을 느끼는 데에서 오는 만족과 관련 있다.[110]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날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듯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낼싀만졍 에헐질 번 하괘라

- <두터비 파리를 물고>[111]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서는 연쇄적인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등장한다. 자연 생태계에서 백송골 - 두꺼비- 파리는 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두꺼비는 송골매 앞에서는 약자가, 파리 앞에서는 강자가 된다. 그런 존재로서 두꺼비는 초장에서 파리 앞에서는 강자로서 힘을 휘두르며 두엄 위에 치달아 앉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중장에 가서 자신보다 강자인 백송골이 등장하며 혼비백산하여 두엄 아래 자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습도 이미 우스꽝스럽지만, 종장에서 자신이 날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멍이 들었을 뻔했다며, 자신의 빠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희극성을 극대화한다. 두꺼비의 특성을 아는 수용자라면, 두꺼비가 실제로는 전혀 빠른 동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꺼비는 나르시스트적이고 자기객관화가 되지 않는 열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10) 위의 글, p.73.
111) 『진본 청구영언』 #520, 작자미상

수용자는 텍스트 내 A, B를 발견하고, 이 둘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a], [b]를 내면에서 환기한 후, ㉮를 통해 이 둘의 위계를 변동시켜 ㉯를 얻는다.

A: 강자의 위풍당당함

[a]: [화자의 우월함에 대한 감각]

B: 더 강한 자 앞에서 망신, 잘못된 합리화

[b]: [우월감에 대한 욕구]

↙

㉮: <u>나와 공유되지 않는</u>
대상의 열등함

↓

㉯: 쾌의 감정/웃음

[그림 7] 조소적 웃음 유발의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사례

작품의 두꺼비는 파리라는 약자에게는 포식자로 군림하지만, 송골매 앞에서는 피식자로서 쫓기는 신세가 된다. 파리를 물고 위풍당당하던 두꺼비는 송골매가 나타나자 놀라 두엄으로 자빠져놓고는, 자신이 날랬으니 망정이기 멍들 뻔하였다며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 약자 앞에서는 힘을 휘두르는 면은 두꺼비의 우월한 면(A)이 된다. 또한 두꺼비의 말에 따르면 그는 날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기애를 드러낸다. 두엄 위에 자신만만하게 '치다라' 있는 모습은 수용자 내부에서 타자의 대한 우월함에 대한 감각([a])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중장에서 임박한 공격의 징후도 없이 지레 겁먹어 '두엄 아래 쟛바지'는 모습과 종장에서 '날낸' 자신이기에 멍들지 않았다는 잘못된 합리화에서 열등한 면모(B)가 드러난다. 특히 이 작품 속 대상은 나르시스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112], 느리고 굼뜬 두꺼비의

112) 하윤섭, 앞의 글, p.385.

속성과는 달리 자신 스스로는 날쌔다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기애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자신의 못남과 추함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종장한 설명은 두꺼비에게는 자부심의 근원을 지키는 합리화로 작용하지만, 두꺼비가 굼뜬 특성을 아는 독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 된다. 여기서 두꺼비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희극성을 유발한다.[113]

공감적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의 열등함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의 관용적 시선을 유발했다면, 이 시조의 경우 독자가 대상의 열등함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두꺼비가 자신에 대해 객관화하지 못하거나, 강자와 약자 앞에서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은 외부에서 관찰하였을 때 발견될 수 있으나 스스로는 그 결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열등함이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는 관찰자로서 대상의 열등함에 반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열등함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 사례에서, 대상의 열등함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인한 착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함' 등의 일상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열등함인 것과 달리, 이 작품 속에서 대상의 열등함인 '나르시시즘'과 소위 말하는 '강강약약의 태도'는 보통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역시 이러한 차이에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작품에서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존재가 되는 어리석은 대상에 대한 웃음은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며 함께 웃는 사람들과의 일종의 공범 의식을 내포한다.[114] 이 작품이 유발하는 웃음은 열등한 두꺼비에 대한 조롱이며, 따뜻한 시선보다는 냉소에 가깝다.[115] 수용자가 함께 웃는다면 그것은 대상과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추락을 함께 기뻐하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수용자는 우월감에 대한 욕

113)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세계사, 1999, p.23.(이영태,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청개고리 복질하여 죽은날 밤"의 해석」, 『시조학논총』 30, 2009, p.306에서 재인용)

114)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역, 앞의 책, p.15, 26에서 베르그송은 웃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 즉 일종의 공범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며 대상의 경직성을 웃음으로써 징벌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115) 하윤섭, 앞의 글, p.384에서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유발하는 웃음은 모자란 두꺼비로 인한 폭소이자 세속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 군상에 대한 냉소가 됨을 설명한다.

구([b])를 선택하여 대상을 더욱 축소시켜 우월감의 욕구를 충족하고 쾌의 감각과 함께 웃음이 발생된다. 조소적 웃음에서 우리는 열등함을 타자에게 할당하고 전가시켜 스스로의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아래는 각 웃음 유형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희극성 경험의 단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웃음 유형별 희극성 경험의 내용

	희극성 경험의 내용
반-규제적 웃음	① 사회적 규범과 반-규범 탐색
	②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환기
	③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충족
공감적 웃음	① 수용자와 공유되는 대상의 열등함 확인
	② 소속감에 대한 욕구 환기
	③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
조소적 웃음	① 수용자와 공유되지 않는 대상의 열등함 확인
	② 우월감에 대한 욕구 환기
	③ 우월감에 대한 욕구 충족

4.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의의

4.1. 사설시조의 웃음 유발의 기제 이해

기존의 사설시조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사설시조 웃음 유발의 기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특징으

로 풍자와 해학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희극성 경험은 이성의 논리로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웃음은 합리적 사고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16]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모순적으로 지식으로 학습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학습자는 경험을 통해 희극성의 유발 기제를 이해하고, 자기화한 다음, 다른 작품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사설시조의 다양한 희극성을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의 웃음에 대한 획일적인 기대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희극성의 다양한 웃음 유발의 기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을 통한 희극성의 유발 기제에 대한 이해는 희극성 경험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자기화된 지식으로 학습자가 희극적인 텍스트를 향유하는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 사설시조 이해를 위한 상상력 증진

윌리엄 프라이(William Fry)는 유머와 창조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조성과 유머는 동일하다. 둘은 모두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두 대상을 가져와서 관계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117]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머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물론이며 유머를 즐기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없는 두 대상의 관계를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성을 가진 텍스트는 웃음 유발의 기제를 포착하기 위해 수용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한다. 쾌의 보상을 얻기 위해 사설시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여하며 대립된 요소를 찾을 때 발휘되는 능력은 상상력이다. 희극성 경험의 쾌의 보상은 불일치하는 요소를 연결(link)하는 데서 시작된 일련의 반응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파버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반-규범에 해당하는 요소와 규범으로 작용하는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희극성은 때로는 수용자로 하여금 보여지거나 말해지는 것 너머의 것을 상상하

116) 필립 네리코 데투쉬, 베르나르 퐁트넬, 사를 몽테스키외는 모두 웃음을 이성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7, p.447.

117) Matt Stanton, “What’s so funny about the imagination?: Four ways humour encourages students to be creative”, *Access* 30(4), Cambridge Publishing, 2016.

기를 요구한다. 유머를 설명하는 것이 유머를 즐기는 일을 망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희극성은 수용자가 상상을 통해 채워야 할 빈 부분을 남겨놓는다. 학습자들은 상상을 통해 빈 부분을 채워 넣으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상충되는 두 요소 사이와, 그에 대한 각각의 내적 반응 사이를 의미 있게 연결시키며 일련의 인식과 반응의 단계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희극성 경험은 예술 경험과 비교되기도 하였다. 둘 모두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인간 존재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18] 희극성의 상상력은 인간 존재와도 관련된다. 가령, 이재준은 사설시조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전구조에 대해, 이를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수사적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무쌍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화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119] 그것이 부정적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관점이든, 권력으로 작용하는 규범 속 관계를 전도시키는 것이든, 엄숙하고 진지한 것을 끌어내려 조롱하는 것이든[120] 수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태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는 의의가 있다. 학습자는 내면화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을 희극성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상상력을 훈련해 나갈 수 있다.

4.3. 웃음을 통한 미적 쾌감 경험

희극성을 우월감, 기대의 무화, 억압하는 규제의 위반 등으로 보는 관점은 모두 공통적으로 희극성으로 인한 웃음의 마지막 종착지를 쾌의 감각으로 바라본다. 파버의 이론에 따르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것은, 억압으로 작용하는 외부의 상황이나 규범에 대한 내적 반응과 이에 반대되는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내적 반응이 그 위계를 바꿈으로써, 불쾌의 감정보다 욕구의 충족이라는 해방적인 쾌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파버를 비롯한 많은 이론가

118) Mordechai Gordon, 앞의 글, p.66.
119) 이재준, 앞의 글, p.25.
120) 이도흠, 「만횡청류 사설시조에서 통속성의 미적 범주와 양상」,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p.129.

들은 희극성이 가진 해방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다. 희극성과 웃음이 많은 시대와 사회에서 금지되거나 억압되었던 것은 이와도 관련된다. 오창근은 문학을 통해 구현되는 웃음은 '허무를 허무로 되돌리는 메커니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희극적인 문학 작품들은 현실을 우스운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착해 재현해냄으로써 현실보다는 우월적인 지위에 독자를 올려놓는다.[121]

고정희는 사설시조 종장의 터무니없음은 수용자로 하여금 그리움과 사랑과 같은 진지한 지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하며, 욕망의 비극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122]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으로 다가오는 규범이나 부정적 현실,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상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설시조의 발상은 학습자들에게 미적 쾌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파버 역시 욕구 충족으로서의 웃음의 심리적 보상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조소적 웃음의 경우 이는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우월한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상의 열등함으로 인한 추락은, 수용자에게 우월감의 쾌를 불러일으킨다. 또는 가령,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비합리성을 포착한 학습자들은 사설시조 속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억압하는 현실의 요소의 심각성을 웃음으로서 부정함으로써 일시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121) 오창근, 「웃음의 미학, 비애의 휘발」, 『실천문학』, 2007.
122) 고정희, 앞의 글, 2009. p.179.

Ⅲ.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에 대한 학습자 반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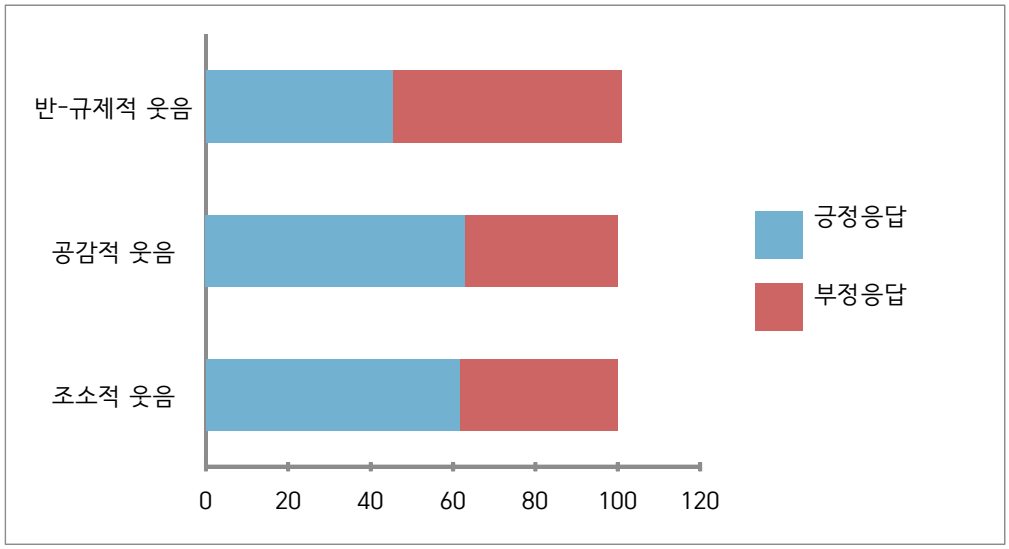
앞에서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과 각각에 대한 반응의 단계와 심리적 보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적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할 것이다. 사설시조의 학습자 반응 양상은 일차적으로는 학습자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본조사에서는 학습자에게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하여 재미를 느끼거나 웃겼던 경우 그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을 10점, 그 반대로 전혀 웃기지 않거나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인 경우 중간대역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원래 5점 이하를 모두 부정응답으로 간주하려 하였으나, 학습자 자료를 살펴본 결과 4점 이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4점 이하의 점수를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의 부정응답으로 간주하였다.[123]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반-규제적 웃음에서 부정응답(55.7%)이 긍정응답(45.3%)을 상회하였으며,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에서는 긍정응답(각각 62.9%, 61.5%)이 부정응답(각각 37.1%, 38.5%)을 상회하였다. 언뜻 보면 과반의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희극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감상문을 살펴보면 희극성을 경험하였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려는 작품의 의도를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거나 과거 학습의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양상을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는 4점 이하의 부정응답의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범주화하여 교육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유사한 반면, 반-규제적 웃음만이 부정응답이 더욱 많았음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앞서 검토한 파버의 이론에서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은 대상의 열등함과 직접 관련한다면, 반-규제적 웃음은 장면 속에서 당장 포착 가능한 대상의 열등함이 아닌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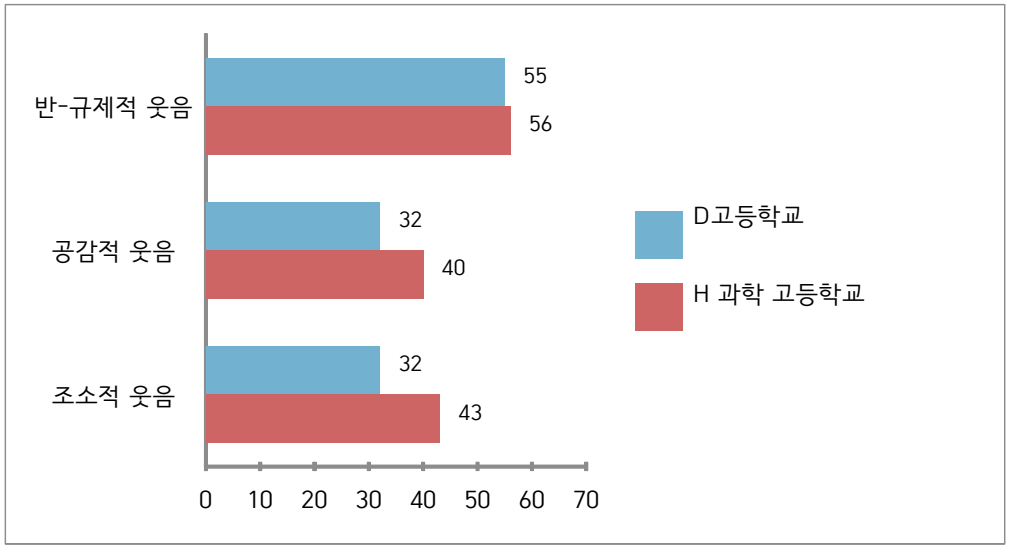
123) 리커트 점수와 감상문 서술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수로 판단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리커트 점수는 5점 이상이지만, 감상문의 서술에는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서술이 몇 존재하였다. 이 경우, 리커트 점수의 의미는 '사설시조'라는 고전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의 희극성 경험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규범의 위반과 관련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실제로 응답의 개별적인 척도값을 보면, 학습자가 희극성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희극성 유형은 반-규제적 웃음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뒤에서 학습자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으나 요약하자면, 규범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비합리성을 유의미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공감적 웃음은 학습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희극성을 경험하였던 유형이었다. 대상의 열등함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유사한 경험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기 쉽고 자신과 의미의 연결성이 있을 때 희극성 경험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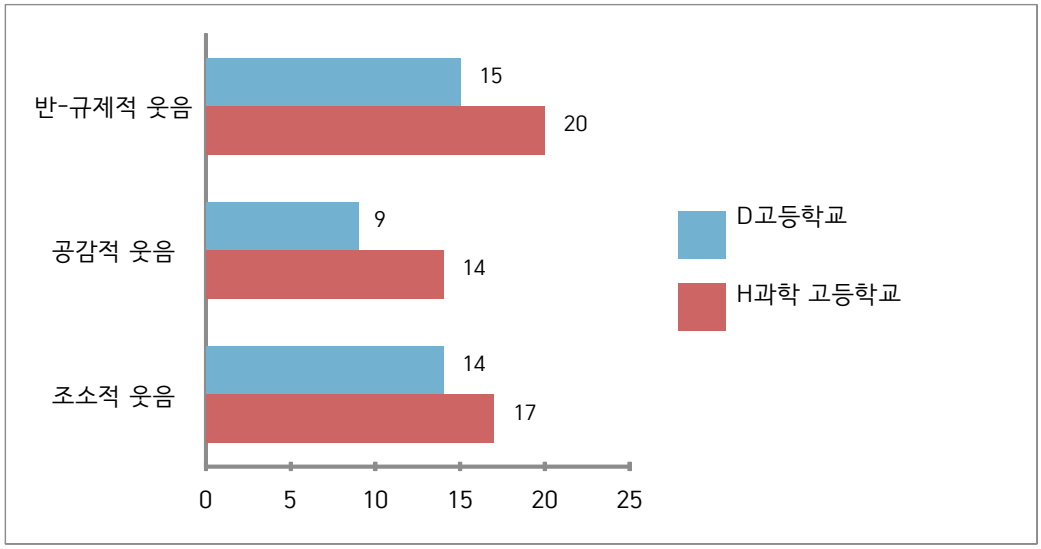
[그림 8] 웃음 유형별 학습자 반응 비율(%)

다음은 학교별 웃음 유형에 따른 '4점 이하'(부정응답) 답변 비율이다. D 고등학교와 H 과학 고등학교의 학습자의 웃음 유형별 반응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9] 웃음 유형별 '4점 이하' 답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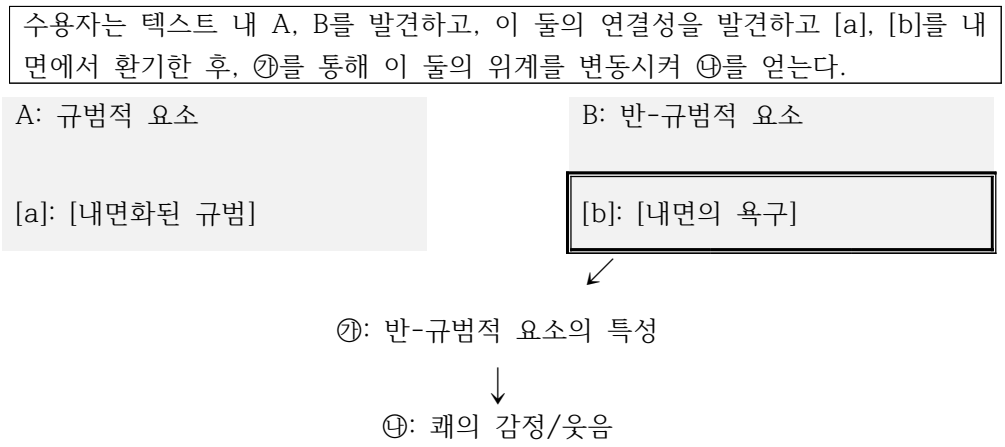
또한 '4점 이하'의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면, 그 정도는 낮지만 아주 미미한 희극성을 경험하였다는 감상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극한값이자 최소점인 '1점'을 표시한 학습자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역시,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 비율이 가장 컸으나, 그 비율이 조소적 웃음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공감적 웃음에서는, 그 희극성을 전혀 감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그림 10] 웃음 유형별 '1점' 답변 비율(%)

전체적인 경향성으로는 학교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희극성에 1점이라는 극단값을 제출한 학습자의 비율은 과학 고등학교의 학습자가 더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4점 이하의 부정응답을 제출한 학습자의 비율이 과학 고등학교에서 더욱 많았다. 이는 인문적 소양과 고전문학에 대한 친숙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양하였으며 웃음 유형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의 경향성도 포착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경험을 범주화한 후, 한계점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희극성 경험의 단계를 따라 희극성을 통한 쾌를 경험하도록 교육적 처치를 설계한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앞에서 살펴본 파버의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파버의 이론은 비록 수용자가 희극성을 경험한 경우, 그 경험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거꾸로 이론이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은 반대의 사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희극성 경험의 방해 요인 및 어려움은 파버의 이론을 통해서도 범주화가 가능하다. 희극성 경험의 양상은 다음 도표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11] 웃음 유발의 희극성 경험의 단계

여기에서 도출 가능한 희극성 경험 실패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①~②와 같이 유의미한 초점화를 하지 못하거나, ③처럼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④처럼 웃음 유형에 적합한 내적인 반응을 환기하지 못했거나 ⑤위계 전복을 통한 쾌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

① A를 발견 못함
② B를 발견 못함
③ A-B의 연결성(link)를 발견 못함
④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a], [b] 환기 못함
⑤ ㉮를 통해 위계 전복 못함

다음 틀을 참고하여, 실제의 학습자의 사설시조 반응 양상 중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례를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학습자의 감상문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학습자의 작품 수용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분리, 추출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적인 경험을 알 수 있는 문장은 선택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나 객관적인 정보는 제외하였다. 예외적으로 학습자의 내적인 경험과 직접

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학습자의 내적인 경험이 아닌 문장들도 함께 추출하였다. ‘4점 이하’에 표시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나, 학습자 반응 중에서는 글이 짧거나 학습자의 경험을 추출한 의미 단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의미 단위를 추출하지 않았다. 또한 한 학습자의 감상문 속에서 복수의 반응이 추출되기도 하였다. 그 경우 나누어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추출된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일반화된 문장으로 다시 진술하는 재진술 과정을 거쳤다. 학습자의 용어를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하여 범주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재진술된 문장들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 범주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제-주제 단위-범주 순으로 작은 범주를 묶어 큰 범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제는 Ⅱ장에서 검토한 파버의 이론을 참고하여 희극성 경험의 내용과 과정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검토한 후, 완성된 범주화 작업을 바탕으로 현상을 기술하는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학습자 감상문의 원자료에서 추출되어 분석의 대상이 된 서술 전체는 <부록 1>로 따로 첨부하였으며, 설명을 위해서 그 중 일부만 선택하여 제시한다. 다음은 4점 이하의 리커트 척도값으로 희극성 경험의 어려움을 보고한 학습자의 반응의 분석이다.[124]

1. 웃음 유형별 문제적 반응 양상

1.1.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학습자들은 작품의 비합리성으로 나타나는 반-규제성을 의미화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의 범주로는 ‘반응의 비활성화’,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이 있다. 분석을 위한 학습자 내부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습자

124) 학습자 번호는 [학교와 학년-반-번호-작품(저(건너 흰옷-)/님(이 오마-)/두(터비 파리를-))]으로 표기하였다. 패러디 시조는 (패)를 덧붙여 표시하였다.

감상문이 있었는데, 이를 '반응 비활성화'의 범주로 범주화하되, 따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한다.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반응의 비활성화로 나타나는 학습자들은 유의미한 초점화를 실패한 경우로, 반응이 없음을 밝히거나, 인물의 외모 등 주변적 요소에 초점화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작품 내 불일치하는 요소로서 A, B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재미가 없다.', '잘 모르겠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나타나며 동시에 작품의 어느 요소에도 잘 초점화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는 반응이 미활성화된 구체적 주제로 '무반응' 외에 '주변적 요소 초점화'가 범주화되는 바, 비합리성을 의미화하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편적 요소, 가령 '그 때의 미의 기준이 궁금하다' 류의 매우 발산적인 사고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외의 학습자들은 작품의 비합리성을 의미화하지 못하고 비합리성에 집중적으로 반응하거나, 비합리성을 제외한 화자의 내면과 상황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작품 내 비합리성에 대해 상반된 학습자 반응을 보여주는 바,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①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범주에는 '언어적 비합리성에 반응'의 주제 단위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A-B의 연결에 실패하여 규범과 욕망의 상충 지점이 가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B, 즉 비합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 양상은 약하게는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강하게는 비합리적 발언을 하는 화자를 도덕적 기준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작품의 진지함을 훼손하는 비합리적 전개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 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 벗(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는 부분이 공감되지 않는다. 남 주기 싫고 내 것 하기에는 아깝다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기에는 꺼려지는 것조차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남에게 주기 싫은데 어찌하여 화자는 자신의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라도 맺어짐을 바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구를 위한 마음이 큰 것인가?

- [D2-1-05-저]에서 발췌

짝사랑의 감정이 공감된다.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남도 갖지 못하길 바라는 심리가 생길텐데 내가 갖지 못하면 친구가 갖으라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 [D2-10-29-저]에서 발췌

두 학습자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의 익숙한 생각의 범위 아래에서 작품 종장의 화자의 말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D2-1-05-저] 학습자의 경우, '남 주기 싫고 내 것 하기에는 아깝다'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D2-10-29-저] 학습자는 '나 같으면'이라며 자신의 상식을 지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기준이 보편 인간 심리이거나 자신의 상식이거나, 둘 모두 비합리적인 전개에 혼란을 경험하였다. '친구를 위한 마음이 크다', '대단하다'라는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종장의 비합리성을 의미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위의 두 학습자들은 종장을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화자의 너그러움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욕망에 대한 초점화를 돕는 비계를 제공한다면, 조정될 여지가 있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화자 비판'의 주제에 해당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화자가 조금 안타깝다. 화자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다.

- [H1-4-07-저]에서 발췌

사랑하긴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시조들처럼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처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

선 중장에는 저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초장에서는 저 사람이 얄밉다고 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꼭 자신의 남편이 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친구의 애인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반어법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반어법은 보통 아예 반대되는 상황(ex 헤어지기 싫다-->헤어져도 괜찮다)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 [H1-4-10-저]에서 발췌

화자의 비합리성을 화자의 열등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비판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H1-4-07-저] 학습자는 화자가 임을 '너무 쉽게 포기' 한다며 그 끈기의 부족과 비일관성을 지적한다. [H1-4-10-저] 학습자 역시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님을 얄밉다고 표현하거나, 친구의 애인이 되어도 괜찮다고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비일관성을 보여 '진정성' 이 보이지 않음을 비판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B에 비해 숨어 있는 사회적 규제로서 A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품 내에서 님과 화자의 사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지 못한 학습자들은, 종장의 반전을 오히려 화자가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인물의 욕망에 초점화하면서 동시에 규범에 대한 비계를 통해 A와 B의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비합리적 전개 비판' 의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이다.

얄밉다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싶다는 부분에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시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 [H2-2-04-저]에서 발췌

학습자는 웃음 유발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나, 비합리성이 불일치하는 요소와 갖는 연결(link)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것이 오히려 일관성 없는 전개로 이어져 시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보고 있다. 비합리성에 천착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비합리성이 규범과 같은 연결성을 유추하는데에 실패하였으며, 따라서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를 통해 쾌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특기할 점으로는, ‘언어적 비합리성에 반응’ 주제 단위 중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의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과학 고등학교의 학습자 수가 일반 고등학교의 학습자 수의 2배 가량 되었다. 또한 ‘비합리적 전개 비판’의 의미 단위에 묶이는 학습자는 모두 과학 고등학교 학습자로, 과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과학 고등학교의 특성이 비합리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 및 거부감의 반응으로 드러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 범주에는 ‘화자의 내면에 반응’과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의 주제 단위가 있으며, 이는 각각 학습자가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을 환기하는데 실패한 사례와 내적 반응의 위계 전복에 실패한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학습자는 A와 B중 규범적인 A에 더욱 반응하며 비합리성을 배제하고 화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반응하여 화자를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중 다수는 작품 내 비합리성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그 의미를 단순화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화자 동정’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 화자의 짝사랑이 안 이뤄질 것 같아서 불쌍하다. 처음에는 화자가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간에는 자신의 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진심은 두 번째(서방이 되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는 친구의 서방이라도 되어서 자신에게는 친구로라도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 점에서 화자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사실은 화자의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상황이 갑자기 떠올라서 불쌍했다.
>
> - [H1-5-08-저]에서 발췌

학습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상의 짝사랑이 실패로 끝날 것에 대한 불쌍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학습자는 앞에서 제

시한 사례의 학습자와는 달리 비합리적 표현 속에서도 화자의 진심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A-B 사이의 연결을 통해 욕망과 충돌하는 규제의 관계를 추론하고 님이 친구와 이어져서라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화자의 내면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을 환기하는데 실패하고 화자의 진지한 내면에 집중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작품의 비합리성으로부터 [b]에 해당하는 비합리성을 선호하는 욕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화자 공감'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 짝사랑했던 예전 생각이 나서 공감이 되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얄밉다고 표현한 것의 의도를 모르겠다.
>
> - [D2-11-16-저]에서 발췌

학습자는 유사한 경험을 환기하며 대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작품의 비합리적 요소에 반응을 환기하지 못하였으며, '얄밉다'는 표현이 화자의 욕망의 과잉에서 나온 반어적인 표현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는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의도'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을 환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부정적 감정 경험'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로, 주제 단위는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이다.

> 그리고 그러한 임을 미워하지만 임을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종장에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
> - [H1-2-20-저]에서 발췌

> 사내를 관찰하며 사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설레는 분위기라고 오해 할 수 있으나 음침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화자의 음침한 면에서 소름끼친다고 느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우습고 화자 또한 답답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나를 향한 마음을 독백한다고 생각해

보라. 실로 소름끼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 [D2-2-05-저]에서 발췌

[H1-2-20-저] 학습자는 종장의 비합리성이 가진 희극성을 유발하는 의도를 파악하였음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웃음이 나지 않았'다고 감상하였다. 그것은 학습자가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였음에도 각각에 환기한 반응의 위계 전복이 일어나지 않고 진지한 지향이자 내면화된 규범인 [a]가 지배적인 반응이 되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D2-2-05-저] 학습자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화자가 아닌 님이라는 점과, 환기된 내면화된 규범이 작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대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고민을 던져준다. 학습자는 누군가를 관찰하며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일방적이기에 따라서 '음침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다. 학습자는 상황을 우습게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리커트 척도값을 적게 준 데에는 이러한 작품의 분위기를 음침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로부터 스토킹과 비매너 등을 연상한 학생들이 더 존재하였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작품을 접할 때 일차적으로는 현대의 규범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이 사례는 학습자들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반응 폭의 양상이 매우 넓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반-규제적 웃음은 사회적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규범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감상문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 반응 중에서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경험하는 유형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리커트 척도 반응의 숫자가 낮은 것을 해석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얄밉다'는 초장의 표현, '서방 삼고 싶다'는 중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벗의 임이나' 되었으면 하는 종장의 소망에서 각각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합리성에 혼란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은 규범을 환기하거나 화자의 솔직한 욕망, 화자의 성별에 초점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작품의 비합리성을 통해

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비합리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작품의 상황에 더욱 초점화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의 분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진술한 표이다.

의미 있는 진술	주제	주제 단위	범주
(생략)	무반응	유의미한 초점화 실패 (A/B 발견 실패)	**반응 비활성화**
	주변적 요소 초점화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	언어적 비합리성에 반응 (A-B연결 실패)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화자 비판		
	비합리적 전개 비판		
	화자 동정	화자가 처한 상황에 반응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 환기 실패)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
	화자 공감		
	부정적 감정 경험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 (내적 반응의 위계 전복 실패)	

[그림 12] 반-규제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최종적 기술을 하자면, 반-규제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수용자는 의미화 실패의 양상을 보였다. 작품 내 비합리성을 의미화하지 못한 경우, 이를 비판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에서 학습자는 비합리성에 집중하여 작품에서 반영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후자에서 학습자는 작품에 반영된 상황과 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1.2. 공감적 웃음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학습자들은 대상과 자신의 적절한 거리조절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의 범주로는 '반응의 비활성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정서적 무반응'이 있다. '반응 비활성화'의 구체적 사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초점화의 실패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의도를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뻔히 보이는 스토리'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작품의 요소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외의 학습자들은 공유 가능성이 있는 열등함을 가진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거나 넓히는 등 조절하여 반응하였다. 학습자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거리를 넓게 조절하여 대상의 열등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상의 열등함을 자신의 것으로 포용하여 인접 경험을 조회하는 등 자신과 연결하는 등 공감적 웃음을 경험하기에는 대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①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범주에는 '대상의 열등함에 반응'의 주제 단위가 있으며, 이는 A-B의 불일치 요소의 연결에 실패하여 상대적으로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의 열등함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화자와 공감 실패를 표현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는 조소적 웃음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화자 비공감'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H1-4-16-님]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저런 상황이 일어 날 것 같지 않아 일상적이라고 느끼진 않는다.

- [H1-4-16-님]에서 발췌

학습자가 작품의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감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작품의 상황이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상황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각 혹은 기다림의 모티프에서 쉽게 경험의 보편성을 발견한 학습자와 달리 이 학습자는 공감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작품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A-B의 연결을 통해 화자의 진지한 지향이 공유 가능한 열등함을 통해 불일치를 이루어 희극성을 유발하고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은 '대상의 열등함과 거리두기'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화자가 매우 멍청해 보인다.

- [H1-3-13-님]에서 발췌

투박하고 단순하기는 하지만, 대상에게 부정적인 특성, 가령 '멍청함'을 명명함으로써, 대상의 열등함을 자신과 먼 것으로 거리를 두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은 '조소적 웃음 지향' 주제 사례이다. 이는 학습자가 A-B를 연결하지 못하고 대상의 진지한 지향을 대상의 열등함과 연결하지 못하고, 대상을 조소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사례이다.

상황이 밤인 것이 좀 아쉬웠다. 낮이었으면 남이 보아 더욱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 [D2-1-05-님]에서 발췌

웃프다. 딱하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중략) 모르는데 하염없이 기다릴 것 같다.

- [D2-11-09-님]에서 발췌

[D2-1-05-님]의 사례에서 학습자는 '밤인 것이 아쉬'웠다고 말하며 '남이 보아' 화자를 비웃었다면 더욱 재미있었을 것 같다고 하여 조소적인 웃음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화자의 추락을 통해 우월감의 쾌를 지향하는 태도에 가깝다. 여기에서는 대상의 내면에 대한 고려나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D2-11-09-님]의 사례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상의 추락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맥락을 추가하여 화자가 진실을 모르고 혼자 애태운다는 설정을 더해 대상을 더욱 추락시키고, 동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화자는 이미 종장에서 스스로 보지 못하지만 보이는 존재이나, 이 학습자는 거기에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돌아오지 않는 대상을 기다린다는 설정을 추가하여 대상의 열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이렇게 대상의 열등함에 중점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학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멍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화자의 표면적인 열등함이 작품의 시적 상황과 이에 따른 인물의 진지한 내면이 연결(link)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②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범주에는 '화자의 내면에 반응'과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의 주제 단위가 있으며, 이는 각각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을 환기하는 데 실패하거나 내적 반응의 위계 전복에 실패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범주의 학습자들은 대상과의 거리를 지나치게 좁혀 희극성 경험에 필요한 거리를 없애버리는 한계가 있었다. '화자의 내면에 반응'한 학습자의 경우에서는 대상의 열등함에 초점화하기보다, 학습자들은 인물의 내면에 초점화하여 화자를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화자 동정'의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 이는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고 아마 만나지 못한 기간도 꽤 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정심이 드는 동시에 여성화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다는 감정도 생기게 만든다.

- [D2-1-17-님]에서 발췌

화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사람이 온 줄 알고 갔다가 아니면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 [H1-6-13-님]에서 발췌

두 학습자는 모두 대상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 [D2-1-17-님] 학습자는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론하여 기다림과 관련한 화자의 내면을 초점화하였으며, [H1-6-13-님]은 착각으로 인한 실망과 관련한 화자의 내면에 초점화하였다. 특히 [D2-1-17-님] 학습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화자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하여 감정의 깊은 몰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화자의 진지한 내면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며 대상의 열등함을 통한 희극성 유발에 필요한 내적 반응을 환기할 만큼의 거리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화자 공감'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며,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평소에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놓는 것이 공감되었다.

- [D2-10-05-님]에서 발췌

공감적 웃음으로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 역시 공감적 수용의 양상을 보이지만, 여기의 학습자 공감은 대립된 두 요소에 대한 대립된 반응이 가지는 관계성이 없는 균질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사례에서 학습자들은 인물에 감정이입적인 반응을 보여 대상과의 거리를 무화시킨다. 다음은 '부정적 감정 경험'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자가 저렇게 급하게 갔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뻘쭘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밤이라서 아무도 보지 못해서 다

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H1-3-01-님]에서 발췌

[H1-3-03-님]안쓰럽고 슬프다. 사물을 달빛에 사람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우스꽝스럽지만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물을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간절함이 느껴져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밤이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 다행이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함께 임은 결국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함이 느껴졌다.

- [H1-3-03-님]에서 발췌

두 학습자 모두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 지배적인 감정은 [H1-3-01-님]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창피를 당한 듯한 부끄러움이며, [H1-3-03-님] 학습자의 경우 슬픔과 씁쓸함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각각에 환기한 반응의 위계 전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이 사례는 진지한 지향이자 화자가 가진 요소 중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인 [a]가 지배적인 반응이 되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다음은 '인접 경험 조회' 주제에 해당되는 학습자 반응의 사례이다.

나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 사촌이 놀러온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촌들이 늦게 온다고 하길래 사촌을 위해 저녁시간이 되도 밥을 같이 늦게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면서 사촌의 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한 적이 있어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됐다.

- [D2-1-22-님]에서 발췌

중학교 시절 특정 지형에서 총을 쏘는 게임을 즐겨했었는데, 사람이 멀리 있을 경우에 모니터에 비치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나무와 식별이 불가했다. 화자를 보며 나무를 사람인줄 알고 열심히 쏜 내 자신이 떠올라서 묘하게 웃겼다.

- [H1-4-15-님]에서 발췌

학습자들은 인접 경험을 조회하여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환기하기도 하였다. 가령, [D2-1-22-님] 학습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척을 기다린 경험을 환기하며 자신과 화자를 겹쳐보았다. [H1-4-15-님] 학습자는 '게임'을 하던 상황을 떠올리고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착각한 경험을 환기하여 '묘하게 웃겼'다고 서술하였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전자에서 떠올린 학습자의 경험은 '기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교적 진지한 사건이며, 후자에서 떠올린 학습자의 경험은 '착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있다. 후자에서 학습자가 떠올린 경험은 학습자를 전자에 비해 놀이 모드(play mode)에 가깝게 만들었으며, '착각'에 초점화한 것은 진지하게 어떤 일에 임하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열등한 무언가로 드러났음에 각각 반응하게 유도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착각' 경험을 떠올려 그 정도가 낮을 뿐, 화자와 함께 스스로의 열등함을 웃는 공감적 웃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습자는 모두 '인접 경험 환기'의 항목에 해당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과 희극성 경험은 위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작품의 상황과 화자의 내면에 초점화하면서도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초점화하고 양쪽에 대해 반응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반응이 위계를 전복하지 못하고 감상의 결과 작품의 진지한 지향에 대한 감정만 남는 양상을 보였다.

③ 정서적 무반응

학습자들은 인지적으로는 희극성 경험의 과정을 거쳤으나, 그 결과가 정서적인 쾌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공감적 웃음의 학습자 수용 양상에서 특기할 점은, 재미를 느끼면서도 그 웃김의 정도가 낮다거나,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파악했으나 정작 그러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몰입하지 못하거나 정서보다는 인지에 치우쳐 작품과 거리를 두는 반응이 빈번하였다는 점이다.

허겁지겁 하는 모습을 보아 해학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웃긴 포인트가 어딘지는 알겠다. 하지만 세대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웃기지가 않다. 약간 이모부가 아재개그를 했을 때의 느낌이다. 약긴 피식 할 정도까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웃기지 않았다. 그랬다.

- [D2-10-27-님]에서 발췌

이것을 글로 풀다보니 재미가 없어졌다. 영상으로 보거나 직접보아야 재밌는 상황일 듯하다. 마찬가지로 내용이 너무 짧아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 [H1-3-14-님]에서 발췌

[D2-10-27-님] 학습자의 경우 오히려 작품의 웃음 유발의 기제가 학습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뻔하게 느껴져서 인지적 과정을 거쳤으나 그것이 쾌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1-3-14-님] 학습자는 작품의 희극성을 인지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역시 쾌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 진단한 바, ‘영상’으로 보면 재미있는 광경이지만 ‘짧은’ ‘글’로 풀어내니 희극성이 반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 대한 학습자 반응의 특징은, 재미를 느끼면서도 그 웃김의 정도가 낮다거나,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파악했으나 정작 그러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몰입하지 못하거나 정서보다는 인지에 치우쳐 작품과 거리를 두는 반응이 빈번하였다는 점이다. 공감적 웃음에서 등장하는 대상의 열등함은 악인의 열등함도 아니며 치명적인 열등함도 아니다. 조소적 웃음의 사설시조와 비교하였을 때,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 반응하는 학습자들은 공감에 그치거나, 종장의 반전의 희극적 효과를 인지하면서도 쾌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위의 분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진술한 표이다.

의미 있는 진술	주제	주제 단위	범주
(생략)	무반응	유의미한 초점화 실패 (A/B 발견 실패)	**반응 비활성화**
	화자 비공감	대상의 열등함에 반응 (A-B연결 실패)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대상의 열등함과 거리두기		
	조소적 웃음 지향		
	화자 동정	화자의 내면에 반응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 환기 실패)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화자 공감		
	부정적 감정 경험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 (내적 반응의 위계 전복 실패)	
	인접 경험 조회		
	인지적 반응	심리적 보상 경험 실패	**정서적 무반응**

[그림 13] 공감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최종적 기술을 하자면, 공감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수용자는 거리조절적 실패의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거리를 넓게 조절하여 대상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조소적 웃음과 비슷한 수용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거리를 좁게 조절하여 인물의 내면에 몰입하거나 자신의 인접 경험을 조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유형의 학습자 반응의 독특한 양상은, 재미를 느끼면서도 그 희극성 경험의 정도가 낮다거나,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파악했으나 정작 그러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몰입하지 못하거나 정서보다는 인지에 치우쳐 작품과 거리를 두는 반응이 빈번하였다는 점이다.

1.3. 조소적 웃음의 관습화된 반응

조소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학습자들은 관습화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의 범주로는 '반응 비활성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정서적 무반응'이 있다. 조소적 웃음 유형에서도 학습자들은 A, B의 불일치하는 초점화 요소를 찾지 못하여 반응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이 셋으로 늘어나고, 대상의 목소리와 화자의 목소리가 함께 등장한다는 작품의 특징이 학습자에게 초점화의 어려움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학습자들은 대상의 추락에 대해 관습적인 교훈을 부여하려 하거나, 관습적으로 화자나 대상의 관점에서 공감하거나, 작품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관습적으로 해석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의 인지가 '풍자'와 교훈 발견 등으로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으로 오히려 정서적 반응이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①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의 범주에는 '대상의 열등함에 반응'이라는 주제 단위가 있으며, 이 안에는 '진지한 지향', '대상 비공감', '대상

비판’의 주제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A-B의 연결에 실패하여 상대적으로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의 열등함인 B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 이 시를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생각보다 심오한 주제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는 글이라 이상한 기분이었다.
>
> - [D2-1-17-두]에서 발췌

>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다. 두꺼비와 파리, 송골매와 두꺼비로 먹이사슬을 표현하여 흥미를 유발한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나에겐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인지, 흥미를 느끼진 못했다.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
> - [H1-1-11-두]에서 발췌

> 두꺼비가 좀.. 재수 없다. 자신보다 약한 파리를 물고 있지만 자신의 천적인 흰 송골매가 산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뛰어내리고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또한 도망치고 나서 자신이어서 살았다며 우쭐하는 모습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는다.
>
> - [D2-11-06-두]에서 발췌

위의 사례는 각각 ‘진지한 지향’, ‘대상 비공감’, ‘대상 비판’의 주제를 보여준다. [D2-1-17-두] 학습자는 ‘심오한 주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H1-1-11-두] 학습자는 ‘먹이 사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D2-11-06-두] 학습자는 대상의 ‘강약약강’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대상의 장단점을 상기하고 있다. 이 범주의 모든 학습자가 구체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주제 혹은 메시지를 감상문에 드러낸다는 교훈에 준하는 작품의 의도를 찾고자 하는 지향을 찾을 수 있다. 학교 학습을 통해 문학 작품의 주제와 교훈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결점으로서의 대상의 열등함을 포착하였을 때 교훈을 연상한다는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

니다.

대상의 열등함에 인지적으로 반응하여 교훈을 도출하려는 학습자의 시도는 작품의 요소들을 연결(link)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 학습자들은 조소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대상의 열등함에 쉽게 초점화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작품의 어조를 종종 간과하였으며, 우월한 위치에서 대상을 향해 조소하는 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②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의 범주에는 '대상의 내면에 반응'과 '작가의 관점 동조'의 주제 단위가 있다. 전자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유사하게 웃음의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을 환기하는 데 실패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줄이는 사례이다. 대상이 가진 부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좁히는 학습자의 사례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조롱하는 것은 교양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교육의 결과일 수 있으며, 둘째는, 주제 또는 교훈 도출이 다년간의 학습에 의한 관습적인 경향성인 것처럼, 시장르에서 대상과 공감하는 것이 올바른 감상 방법이라는 학습자의 판단이 개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두꺼비가 불쌍해 보인다. 사람으로 치면 집에서 밥 먹다가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밥상을 엎고 나를 공격한 거다.
>
> - [D2-1-08-두]에서 발췌

>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에서는 지금 두꺼비가 다칠 뻔 한 것이 아닌가? 이 시를 보고 웃음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 딴 곳 보고 있다가 천적을 만나 화들짝 놀란 개구리를 상상하며 웃음을 지었겠지만 나는 개구리가 떨어져서 다칠 뻔 한 것이 더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며 두꺼비가 불쌍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
> - [D2-10-30-두]에서 발췌

[D2-1-08-두] 학습자는 우화적 상황을 다시 인간의 사례로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만 맥락을 제거한 채, 두꺼비와 파리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두꺼비와의 거리를 좁혀 화자와 송골매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상을 동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를 공격’하였다는 표현에서 학습자가 자신을 두꺼비의 자리에 대입해보았음을 알 수가 있다.

[D2-10-30-두]의 사례에서 학습자는 ‘화들짝 놀란 개구리를 상상하며 웃음을 지었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조소적 웃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자신은 ‘개구리가 떨어져서 다칠 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두꺼비가 불쌍하고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작품의 희극적 의도를 인지하면서도 두꺼비와의 거리를 이렇게 좁게 설정하여 두꺼비에게 공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서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상과 대상을 관찰하는 작가 혹은 또 다른 화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작가의 관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정도의 감상까지 나아간 학습자는 4점 이하의 리커트 척도 응답을 한 학습자 중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 탐관오리에게 세금을 수탈당하고 뜯기는 모습은 이 사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아주 많이 공감된다. 또한 그 억울함과 분함 또한 공감된다.
>
> - [D2-1-26-두]에서 발췌

이러한 작가의 관점에 공감하는 경우 역시 교훈과의 연결성이 두드러졌다. 작가의 관점에 공감하는 양상은 희극성을 통한 쾌를 경험한 학습자에게도 나타났으나, 그 경우, 우월감 충족을 위한 대상의 추락을 관찰하거나 환영하는 태도가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두꺼비의 우월한 당당함에 대한 반응과 위계가 변동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D2-1-26-두]에서는 반응의 위계 변동은 나타나지 않으면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로서 두꺼비의 모습에 대해 작품의 서술자와 같은 관점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 학습자가 탐관오리와 세금을 언급한 것은 작품을 이미 학습한 경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제에 공감한다는 학습자의 심리적 반응

이 과연 개인적인 감상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관습적 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학습자들은 조소적인 태도가 아닌 대상과의 거리를 지나치게 가깝게 설정하여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과 정 반대의 반응을 하거나 내적 반응의 위계를 전복하지 못하고 작품 감상 후 작품의 진지한 지향에 대한 감상만 남는 양상을 보였다.

③ 정서적 무반응

공감적 웃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작품의 희극성을 머리로 인지하지만, 정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조소적 웃음의 사례에서는, 대상의 추락이 학습자들에게 '풍자'를 연상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작품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찾는 것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즐기는 '향유'보다는 진지한 '성찰'에 더 가깝게 이끈다는 점에서 희극성의 본질적 지향과 부딪히는 양상을 보인다.

> 그래도 이 작품은 중딩 때 한번 배웠어서 웃기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
>
> - [D2-10-20-두]에서 발췌

> 우스꽝스러운 것은 맞지만 이것을 통해 웃음이 나진 않는다.
>
> - [H1-6-18-두]에서 발췌

이 범주에 속하는 학습자는 대부분 풍자와 교훈을 염두에 두고 감상문을 작성한 경향을 보였다. 감상을 나타내는 반응보다는 작품의 상황을 그대로 다시 적은 사례가 많았으며, 답의 길이도 비교적 짧았다. 비교적 교훈과 주제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해석과 감상을 펼칠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독특한 점은, 리커트 점수를 낮게 주었으나, 다른 두 사설시조 작품에 비해 '웃기다' 혹은 '재미있다' 등의 희극성을 통한 쾌감을 얻었다는 서술이 비교적 많았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쾌를 얻지

못한 학습자들은 관습적 수용의 양상을 보여, 단순하게 대상과 공감하거나 작가의 관점에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교적 비율이 높았던 반응 유형은 '진지한 지향'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태도로 인해, 정서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위의 분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진술한 표이다.

의미 있는 진술	주제	주제 단위	범주
(생략)	무반응	유의미한 초점화 실패 (A/B 발견 실패)	**반응 비활성화**
	진지한 지향	대상의 열등함에 반응 (A-B연결 실패)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대상 비공감		
	대상 비판		
	대상 동정	대상의 내면에 반응 (웃음 유형이 의도하는 내적 반응 환기 실패)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대상 공감		
	작가의 관점 공감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 (내적 반응의 위계 전복 실패)	
	인지적 반응	심리적 보상 경험 실패	**정서적 무반응**

[표 14] 조소적 웃음의 희극성 경험 실패 사례 분석

최종적 기술을 하자면, 조소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수용자는 관습적 반응의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는 대상의 추락에 대해 교훈적 의미를 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혹은 관습적으로 대상에게 공감을 시도하였으

며,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전달 방식에 초점화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품의 희극성 유발의 의도를 파악 하였으나 그 결과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반응이 인지적인 영역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앞의 공감적 웃음에 대한 반응 사례와 동일하게, 재미를 느끼면서도 그 희극성 경험의 정도가 낮다거나,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파악했으나 정작 그러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몰입하지 못하거나 정서보다는 인지에 치우쳐 작품과 거리를 두는 반응이 빈번하였다. 교훈 발견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반응이 오히려 정서적 반응을 위축시켰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기할 점이다.

리커트 척도에 4점 이하로 응답한 학습자들은 희극성 유형에 공통적으로 작품의 일부 요소에만 반응하였으며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적인 단계적 반응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반-규제적 웃음에서는 비합리성의 의미화 실패의 모습을 보였다. 공감적 웃음에서는 대상과 거리를 조절하지만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거나 멀어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리조절 실패의 모습을 보였다. 조소적 웃음에서는 관습적으로 교훈을 도출하거나 공감의 대상을 찾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모두 작품의 희극성을 총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작품의 단편적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감상을 경험하는 데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을 범주화하는 자료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는 희극성의 경험이 단계적이기보다 부분적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희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비계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의 부족, 불확실한 해석, 궁금증으로 남겨놓은 부분 등이 작품 맥락 이해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셋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희극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희극성 유형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웃음 유형별 단계적 반응 양상

앞 절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범주화하였다. 각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으로 단계성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웃음 유형별 단계적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살펴본다. 리커트 척도 5점 이상의 학습자 감상문을 검토한 결과, 학습자의 내적인 반응이 단계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단계가 감상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감상문이 학습자의 내적인 반응의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하기에는 분량이 짧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본다.

2.1.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추론적 반응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을 향한 여성의 관심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하는 남성의 시선을 뒤집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는 ① 사회적 규범과 반-규범 탐색, ②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환기, ③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충족의 단계적 반응을 보인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배경지식을 통한 사회적 규범의 확인

학습자들은 시대(㉠)와 성별(㉢)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작품 내 사회(㉠)적 규범(㉡)을 추론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범과 화자의 지향(㉣)이 충돌(㉤)하는 지점 역시 추론하였다.

> 당시 ㉠시대 분위기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상과 혼인을 해야 했는데 ㉢시적화자인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고 혼인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내 서방 못 될 터이면

내 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에 든 남성을 보고 얄밉다 표현한 것이 츤데레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아 웃기기도 하다. (7)

- [D2-10-13-저]에서 발췌

[D2-10-13-저] 학습자는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고 혼인을 하고 싶' 어하는 욕망이 사회적 규범으로 인한 한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화자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습자는 조선시대의 혼인에 대한 배경지식을 환기하여 작품 속에서 억압으로 작용하는 혼인에 대한 규범을 추론하고 있다. 학습자는 규범과 욕망의 충돌 지점을 포착하였으며 그것이 작품 내 비합리적인 넌센스의 원인임을 포착하였다. 여성 화자의 욕망과 욕망의 표현이 당시의 사회적 규범에 반(反)하는 반-규범에 해당됨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다수의 학습자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② 상상을 통한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환기

작품에서는 반-규제적인 비합리적인 해결법이 등장하는 바, 남편으로 삼을 수 없다면 친구의 임이 되게 해서라도 계속 보고 싶다는 엉뚱한 반응으로 규제에 유희적으로 반대한다. 학습자는 화자의 비합리적으로 표현(㉠)을 화자의 진지한 지향(㉡)과 연결시키며, 또 다른 비합리적 표현(㉣)을 자신의 익숙한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화자의 진지한 지향(㉢)과 연결하고 있다. 학습자는 겉으로 보기에 연결성이 없는 두 요소를 연결시켜, 각각에 대한 반응을 환기하고 있다.

당시 시대 분위기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상과 혼인을 해야 했는데 시적화자인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고 혼인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내 서방 못 될 터이면 내 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에 든 남성**을 보고 ㉣**얄밉다** 표현한 것이 ㉤**츤데레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아 웃기기도 하다. (7)

- [D2-10-13-저]에서 발췌

학습자는 사회적 규제에 억압받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화자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보고 ‘츤데레 캐릭터’를 보는 기분을 느낀다. 츤데레 캐릭터란, 퉁명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는 정이 많은 인물을 의미하는 일본어 신조어로, 학습자는 마음에 드는 남성을 ‘얄밉다’고 표현하는 비합리성을 자신에게 익숙한 캐릭터의 모습을 상상하여 비합리적 불일치가 가진 연결을 추론하고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원하는 화자의 진지한 지향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규범을 뛰어넘는 말을 통해서라도 연결되기를 바라고 속마음을 반대로 말하는 화자의 비합리적 모습에서 화자의 편에서 화자의 비합리성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위반의 긍정을 통한 욕구 충족

①과 ②의 결과로 학습자는 비합리성을 통해 내면화된 규범을 우회함으로써 작품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향을 수용하였다. 화자의 욕망의 성취불가능성에 대해 감정을 환기(㉠)하였으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를 환기하고 비합리성을 긍정함으로써 쾌의 감각(㉡)을 경험하는 양상을 보인다.

> 당시 시대 분위기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상과 혼인을 해야 했는데 시적화자인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보고 혼인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내 서방 못 될 터이면 내 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 ㉠<u>안타까우면서</u>도 마음에 든 남성을 보고 얄밉다 표현한 것이 츤데레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아 ㉡<u>웃기기도</u> 하다. (7)
>
> - [D2-10-13-저]에서 발췌

학습자들은 비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규범을 위협하지만 그것이 ‘무해

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위협은 심각한 것이 아닌 유쾌한 것이[125]됨을 인지하고 비합리성을 선호하는 위계 변동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틀을 벗어나 쾌감을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 화자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비극성에 매몰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인다. 위의 학습자는 비합리성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츤데레 캐릭터’의 가벼운 엉뚱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웃기’다는 쾌(快)의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다음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비합리적 웃음에 대한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화자의 말의 변화가 우스웠고 화자가 초장 중장 종장에서 말한 게 모두 각각 다른 의견인 것 같아 더욱 그렇게 느껴진 것 같다. 이 작품은 오히려 논리가 되는 말을 했더라면 그냥 작품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작품을 해석하기는 힘들었지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인상이 깊어지는 것 같고 초장에서 나온 얄미움이라는 것은 해석을 다시해보면 미움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8)
>
> - [H1-5-15-저]에서 발췌

[H1-5-15-저] 학습자는 작품의 비합리성을 통해 얻은 심리적 보상과 효과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초장 중장 종장에서 말한 게 모두 각각 다른 의견’이었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경험한 것과 달리, [H1-5-15-저] 학습자는 이러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의도적 장치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비합리성이 ‘작품을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게 만들지만, 모순된 요소들을 연결시켜 반응하면 ‘더욱 인상이 깊어’지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학습자는 초장의 ‘얄미움’이 진짜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미움이 아닌, 관심의 표현을 비합리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식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종장의 비합리성만큼이나 반어적인 표현으로 인한 희극적 효과에 주목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

125) Rod A. Martin and Thomas Ford, 앞의 책.

2.2. 공감적 웃음에 대한 관용적(寬容的)반응

‘님이 오마 하기에’는 님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주추리 삼대를 님이라 착각하여 뛰쳐나가는 화자가 등장한다. 이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는 ① 수용자와 공유되는 대상의 열등함 확인, ② 소속감에 대한 욕구 환기, ③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의 단계적 반응을 보인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내면 해석을 통한 대상의 보편성 확인

학습자들은 님에 대한 과장된 사랑이 갖는 진지한 지향과, 착각과 실수(㉠, ㉡)라는 대상의 열등함에 주목하여, 보편성의 맥락(㉣)에서 화자의 내면(㉢, ㉤)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화자의 행동은 웃겼지만, 마음은 이해가 갔다. ㉠**사람이 아닌 삼대에 속았**으면서 화자는 자신이 마치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웃긴 행동을 보였다는 듯이 ㉡**삼대 탓**을 하였다. 이때,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사물의 탓을 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화자가 ㉢**반가운 마음**에 착각하여 헐레벌떡 나간 행동에서, 나도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선물 받았을 때 기뻤던 점이 떠오르며 ㉤**화자의 마음**이 이해되어 화자가 한 행동에 공감할 수 있었다. (7)
>
> - [D2-10-24-님]에서 발췌

위 사례의 학습자는 가진 웃음과 진지한 지향을 양면을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간절’한 ‘화자의 마음’과 동시에 속았음에도 삼대 탓을 하는 화자의 열등함을 동시에 파악하였다. 특히 화자의 열등함이 사람도 아닌 사물인 삼대에 속았다는 점에서 부각됨을 지적하였다. 학습자는 화자의 진지한 내면 지향과 동시에 모순되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초점화하면서, 동시에 화자의 내면이 가진 보편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화자의 열등함이 가진 보편성에 주목함으로써 자신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② 자기 연결을 통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 환기

학습자들은 작품의 진지한 지향에 매몰되어 자신을 소외시키기보다 인접 경험을 조회(㉡)하여 화자(㉠)와 자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 화자의 행동은 웃겼지만, 마음은 이해가 갔다. 사람이 아닌 삼대에 속았으면서 화자는 자신이 마치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웃긴 행동을 보였다는 듯이 삼대 탓을 하였다. 이때,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사물의 탓을 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화자가 반가운 마음에 착각하여 ㉠**헐레벌떡 나간 행동**에서, 나도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선물 받았을 때 기뻤던 점이 떠오르며** ㉢**화자의 마음이 이해되어** 화자가 한 행동에 공감할 수 있었다. (7)
>
> - [D2-10-24-님]에서 발췌

위 사례의 학습자는 화자의 행동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화자의 모습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었다. 화자가 착각하여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모습에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물건을 선물 받았을 때'의 기억을 연상하여 작품 화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공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화자의 열등한 행동 이면의 욕망과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집중이 전제된다. 학습자는 '화자의 마음이 이해'되며 화자와 자신을 동질함으로 묶으며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③ 타자와의 동질감 확인을 통한 욕구 충족

①과 ②의 결과로 학습자들은 타자의 열등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화자와 함께(㉢) 웃는(㉠) 양상을 보였다.

> 화자의 ㉠**행동은 웃겼지만**, ㉡**마음은 이해가 갔다**. 사람이 아닌 삼대에 속

았으면서 화자는 자신이 마치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웃긴 행동을 보였다는 듯이 삼대 탓을 하였다. 이때,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사물의 탓을 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화자가 반가운 마음에 착각하여 헐레벌떡 나간 행동에서, 나도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선물 받았을 때 기뻤던 점이 떠오르며 화자의 마음이 이해되어 화자가 한 ㉢**행동에 공감**할 수 있었다. (7)

- [D2-10-24-님]에서 발췌

학습자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환기하였으나, 진지한 지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가벼운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마음을 이해' 하고 '공감' 하면서 웃음의 쾌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상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희극성을 경험하지 않거나, 대상을 조롱하며 희극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작품을 감상한 사례가 된다.

이 작품에서는 기대의 긴장감이 쌓이다가 한순간 무로 전환하는 데에서 웃음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독자 자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희극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화자의 행동에 '공감' 하면서 화자의 행동이 웃기게 느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공감으로 인한 소속감을 선호하는 위계 변동으로 인해, 화자와 '함께 웃는' 쾌(快)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가 자신의 착각임을 눈치 채는 모습이 머리 속으로 상상이 되어서 매우 재미있었다. 심지어 지금이 낮이 아니라 밤이라 다행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표현한 디테일에 감탄하였다. 나도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에 착각하여 다가갔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경험이 있었는데, 마치 나의 경험을 적어놓은 듯한 내용에 이 시조가 더 재미있게 다가왔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8)

- [D2-1-06-님]에서 발췌

학습자는 유사한 경험을 환기하였으며, 그것이 마치 '나의 경험을 적어놓은 듯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작품을 통해 '재미' 의 만족감을 얻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또한 화자의 내면과 열등함이 드러나는 외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희극성 경험의 중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의 감상문으로부터 '화자의 열등함이 사실은 독자 자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쾌의 감각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조소적 웃음에 대한 평가적 반응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서는 피식자인 파리에게는 위풍당당하지만, 포식자인 백송골 앞에서는 꼼짝없이 도망다니다 망신을 당하는 두꺼비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는 ① 수용자와 공유되지 않는 대상의 열등함 확인, ② 우월감에 대한 욕구 환기, ③ 우월감에 대한 욕구 충족의 단계적 반응을 보인다. 다음은 유사한 두 학습자 감상문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① 행위 분석을 통한 대상의 열등함 확인

학습자들은 대상의 열등한 행위(㉠, ㉥)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조되는 대상의 우월한 요소인 위풍당당함(㉡, ㉣)에도 비판적인 태도(㉢, ㉤)를 취하였다.

> 이 작품을 보면서 파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가 송골매에게 당하고 자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웃겼다. 또한, 두꺼비가 ㉠**떨어진 뒤** 자신이 날쌔서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오히려 ㉢**멍청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꺼비가 매우 비호감이었다. 또한, 송골매를 보면서 사이다를 마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
>
> - [D2-11-15-두]에서 발췌

> [D2-2-5-두]굉장히 웃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화자의 상황이 웃기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가 ㉣**체면**을 차리려고 흔히 말하는 ㉤**'가오'를 잡는 부분**이 참 웃기다고 생각한다. ㉥**떨어지고 나서** 가오 잡는 말을 하는 부분이 마치 주변에 꼭 한명씩 있는 가오 잡는 친구가 연상되어 그렇게 느꼈다. (8)

학습자들은 두꺼비가 ‘떨어지’는 열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체면’을 차리면서 ‘자화자찬’하는 우월함을 내세우는 것이 모순적임을 파악하였으며, 이 열등한 모습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요소의 연결을 통해 두꺼비가 우월함을 내세우려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가 대상의 열등함을, 공유하고 싶은 열등함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배척하고 구분 지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해석한 것은 다음 단계에서 학습자가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환기하는 원인이 된다.

②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한 우월감에 대한 욕구 환기

학습자들은 두꺼비라는 대상의 지위의 추락에 가세(㉠, ㉡, ㉢)하며, 작품 수용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 이 작품을 보면서 파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가 송골매에게 당하고 자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웃겼다. 또한, 두꺼비가 떨어진 뒤 자신이 날쌔서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오히려 ㉠ **멍청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꺼비가 매우 비호감이었다. 또한, 송골매를 보면서 사이다를 마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
>
> - [D2-11-15-두]에서 발췌

> 굉장히 웃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화자의 상황이 웃기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가 체면을 차리려고 흔히 말하는 ㉡**'가오'를 잡는 부분**이 참 웃기다고 생각한다. 떨어지고 나서 가오 잡는 말을 하는 부분이 마치 ㉢**주변에 꼭 한명씩 있는 가오 잡는 친구**가 연상되어 그렇게 느꼈다. (8)
>
> - [D2-2-5-두]에서 발췌

[D2-11-15-두] 학습자는 두꺼비의 열등함을 ‘멍청하’다고 표현하며 대상

과 거리를 넓히면서 동시에 대상의 지위의 추락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D2-2-5-두] 학습자는 두꺼비의 모습을 '가오' 잡는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허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의 비판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주변에 꼭 한명씩' 있는 허세부리는 친구로 두꺼비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허세를 부리는 친구를 연상하며 두꺼비와 친구를 동시에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한 것으로, 대상과 자기 자신의 거리를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D2-11-15-두]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파리를 불쌍하게 여긴 것은, 이미 두꺼비를 강자이자 악인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공감적 웃음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에서 대상과 거리를 좁히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③ 대상에 대한 부정을 통한 욕구 충족

①과 ②의 결과로 학습자들은 거리 조절을 통해 대상을 비난하며 만족감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학습자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두꺼비의 우월함을 거부(㉠, ㉡, ㉣)하고 열등함을 강조함으로써 희극적인 우월감의 쾌(快)의 감정(㉢, ㉤, ㉥, ㉦)을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 작품을 보면서 ㉠**파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가 송골매에게 당하고 자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웃겼다. 또한, 두꺼비가 떨어진 뒤 자신이 날쌔서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오히려 멍청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꺼비가 ㉣**매우 비호감**이었다. 또한, 송골매를 보면서 ㉤**사이다를 마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
>
> - [D2-11-15-두]에서 발췌

> 굉장히 웃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화자의 상황이 웃기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가 체면을 차리려고 흔히 말하는 ㉦**'가오'를 잡는 부분이 참 웃기다**고 생각한다. 떨어지고 나서 가오 잡는 말을 하는 부분이 마치 주변에 꼭 한명씩 있는 가오 잡는 친구가 연상되어 그렇게 느꼈다. (8)
>
> - [D2-2-5-두]에서 발췌

[D2-11-15-두] 학습자는 두꺼비의 우월함을 거부하며 두꺼비의 그러한 태도에 '매우 비호감'을 느꼈으며, 두꺼비보다 약자인 파리에 주목하여 '불쌍함'의 태도를 가지고 두꺼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우월감을 선호하는 위계 변동으로 인해 추락한 대상을 비웃는 쾌(快)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는 두꺼비의 열등함과 불운함에 대해 '다행'이고 '사이다'라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웃기다'는 내적인 반응을 표현하였다.

[D2-2-5-두] 학습자는 '떨어지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로써 체면을 차리려는 모습이 '가오'잡는 열등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표현하여, 추락한 두꺼비와 그 이후 애써 체면을 차리는 두꺼비의 모습을 보고 '웃'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대상의 표면적 우월함에 대한 열등감보다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우월감을 선호하는 위계 변동으로 인해, 추락한 대상을 비웃는 우월감의 쾌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에서 대상과 함께 웃는 공감적 웃음과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학습자들은 희극성의 여러 유형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아주 소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유형의 희극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작품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였거나 반응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희극성 경험의 자세한 내용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 학습자는 소수였으며,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표시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희극성 경험의 과정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서술하였다.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로서 감상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경험 혹은 감상의 깊이가 얕거나 반응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몇몇의 학습자는 또한 현대의 희극성 판단의 기준인 시각성, 자극성을 언급하며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는 시라는 장르가 문자로 되어있으면서 그 길이가 짧다는 특성으로 인해 영상 매체에 익숙한 현대의 학습자들이 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을 범주화하여 그것을 희

극성을 경험한 학습자의 단계적인 반응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는 희극성의 경험이 단계적이기보다 부분적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희극성을 유발하는 상반된 요소에 초점화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거나, 작품이 의도한 희극성 유발의 기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진단된다. 교육적 처치에서는 학습자가 희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비계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가 궁금증으로 남겨놓은 부분, 지식의 부족, 불확실한 해석 등이 작품의 맥락 이해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반응의 다양성을 살펴본 바, 교사의 개입으로 인한 비계 제공도 필요하지만,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들은 희극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학습자는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추락시키고 조롱시켜야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작품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시 감상에서는 대상과 자신을 일체화하려는 강박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의 화자를 향해 비웃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작품 감상에 개입되기도 하였다.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유형별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설계를 제시한다.

Ⅳ. 학습자 반응을 고려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설계와 적용

1.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목표

학습자들은 희극성 감상과 반응에 있어서 희극성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희극성 유형에서 학습자들의 희극성 경험의 과정이 단계적이지 않고 즉각적일수록,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의 유형에서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많았으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 역시도 그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추상적이며 인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그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사설시조 희극성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희극성의 유형, 주체적인 경험, 향유 또는 즐김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 목표를 마련하였다.

첫째, 사설시조 희극성의 다양한 실현 방식을 이해한다. 앞에서 사설시조의 희극성의 유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사설시조의 웃음이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웃음 유발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희극성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실현된다고 이해하는 학습자가 다양한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향유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설시조가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종장에서 반전이 등장한다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사설시조 희극성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일반화하여 모든 사설시조에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적 제재로는 한 종류의 희극성이 아닌 다양한 희극성이 드러나는 여러 사설시조를 함께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가 각 희극성의 서로 다른 특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 기존의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무관하게 사설시조의 특징을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희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텍스트의 특성이 아니라 수용자의 경험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그 설명에 가려 수용자의 주체적인 향유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희극성은 설명하는 순간 그 본질을 잃고 만다. 작품의 희극성을 진정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성찰과 사고' 없이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126] 비유하자면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 교육의 과정은 목마른 학습자를 희극성 경험이라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해줄 수 있지만, 직접 떠먹여 물을 마시게 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지식 전달이 교육의 중심이 되면 학습자가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고 희극성 경험이 본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학습자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주체로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전시가 희극성의 향유 능력을 신장한다. 희극성은 사설시조의 본질적 요소이지만, 사설시조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다. 사설시조 외의 고전시가 장르에서도 희극성이 존재하지만, 그 역시도 학습자는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인해 즐기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이 전이되어 고전시가의 희극성의 향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

학습자가 단계적인 교육적 처치 없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할 때, 사설시조 희극성의 본질에 해당되는 요소에 초점화하지 못하거나, 반응을 활성화하지 못해 쾌의 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작품이 의도하는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와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련의 반응의 단계를 거친 것과 달

126) Rafael Nunez-Ramos and Guillermo Lorenzo, 앞의 글, p.106.

리,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사설시조의 부분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단편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은 희극성 경험의 단계를 고려하되, 학습자들이 작품의 부분에만 매몰되지 않고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희극성을 생성해 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희극성 유형에 따른 웃음 유발의 기제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학습자 반응 중심의 사설시조의 희극성 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희극성 감상의 수용자 내적 반응의 순서를 따른다. 수용자는 작품 내 불일치 요소를 탐색하고, 불일치 요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활성화한 후, 반응의 위계 변동을 통해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 본고는 이 반응의 순서에 따라 교육 내용을 사설시조의 불일치 요소 발견,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 파악,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2.1. 사설시조의 불일치 요소 발견

사설시조 희극성을 경험하는 첫 단계는 바로 작품에서 드러난 모순된 지향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 모순된 지향은 때로는 가벼운 웃음 아래 진지한 내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이 작품 내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한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가진 상반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로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강태근[127]은 이러한 상반성을 '부정되어진 대상 속의 자기 연민'으로 설명하며, 고정희[128]는 '외적으로는 상충되는 희극적 불일치를 의도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화자 혹은 시인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평시조적인 충동'으로 설명하며, 김대행[129]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자기 연민', '외적으로 상충되는 희극적 불일치', '웃음'은 각각 '부정되어진 대상', '내용 면에서 화자 혹은 시인의 내면 표현', '눈물'과 모순된 지향으로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모순된 요소에 초점을 맞추

127) 강태근, 앞의 글.
128) 고정희, 앞의 글, 2003.
129) 김대행, 앞의 책.

어 감상하는 것을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우선적인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가령 H 과학 고등학교의 사례에서, 학습자들은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가 가진 희극성을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습자들은 작품의 비합리성을 전혀 의미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점, 화자가 임과 이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이유 등에 초점화하지 못하고 종장의 비합리적인 전개에만 단편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비합리성(B)은 명시적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규범(A)은 명시적이지 않기에, 희극성 경험을 위한 첫 단계로 수용자들은 시적 맥락을 통해 규범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 범주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표 4>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 범주

범주	주제 단위	주제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언어적 비합리성에 반응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
		화자 비판
		비합리적 전개 비판

사설시조의 비합리성이 현실의 부조리와 비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된 장치가 됨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전에는 우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중심으로 작품의 불일치 요소에 주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의 경우 학습자가 작품과 관련된 규범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희극성 경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위의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에서는 사설시조와 함께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었던 규범을 설명하는 규범서나 당시의 결혼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130] 그 경우, 학습자들은 화자의 욕망이 규범 앞에서 어떻게 좌절되고 그 부조리함이 종장의 비합리적인 표현으로 폭로되는지 깨달을 수 있다. 종장의 비합리성은 화자의 욕망을 억압하는 규제라는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이상 넌센스 혹은 의미 없는 헛소리로

130) 고정희, 앞의 글, 2011, p.41에서도 '남녀유별'을 강조한 규범서의 내용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전제적 지식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수용되지 않는다. 앞의 예시는 반-규제적 웃음의 사례이며,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비계는 각 웃음 유형에 맞는 서로 다른 비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희극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 자체 내의 균열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술과 유사하다. 예술과 유머는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모호함, 부조화, 부조리, 즉 우리 존재의 결핍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131] 사설시조는 이러한 희극성의 미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미시적으로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특정되는 부정적 현실에 균열을 드러내고, 일상적 질서를 멈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거시적으로는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에 균열을 드러내어, 대안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모두 관습화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의 질서가 가진 단방향성으로부터 수용자를 잠시간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파버의 이론을 검토한 바 이러한 균열을 유발하는 불일치 요소는 텍스트 내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규범 요소와 이와 불일치하는 반-규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가진 불일치 요소에 적절하게 초점화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비계가 필요하다. 사설시조의 종장의 반전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초점화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비계가 될 수 있다.

2.2.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 파악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수용자가 스스로 반응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욕망을 환기하고, 작품의 모순된 요소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 가진 위계를 전복시켜 반응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 중 반응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쾌(快)의 희극성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작품 내 모순된 요소에 대한 반응의 위계가 성공적으로 전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응의 위계가 전복되기 위해서는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환기하고, 작품을 통해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중에서 특기할 점은 '화자

131) Mordechai Gordon, 앞의 글, p.63.

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범주에 해당하는 학습자 중 상당수가 ‘부정적 감정 경험’을 의미단위로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화자의 감정과 자신을 연결한 결과로 불쾌의 감정을 겪은 것으로, 대상에게 몰입하여 부정적 상황에 처한 화자의 불쾌한 감정에 공감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경향일 수 있으나, 축적된 고전시가 학습의 경험이 개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에서 ‘이별’의 상황을 추출해내고, 화자와 자신의 거리를 가깝게 좁혀 ‘슬픔’, ‘창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table>
<tr><th>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예</th><th>희극성을 경험한 예</th></tr>
<tr><td>범주: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td><td rowspan="4">[D2-10-13-님] (8)
임을 너무 빨리 보고 싶어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여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는 등 과장된 행동을 보여 가볍고 경쾌하며 그래도 기대감에 차있어 애틋하다. (중략) 우습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신나하는 모습과 임이 돌아온다고 하여 밥도 일찍 지어 빨리 먹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같았다.</td></tr>
<tr><td>주제 단위: 인물에 감정이입적 반응</td></tr>
<tr><td>주제: 부정적 감정 경험</td></tr>
<tr><td>[D2-1-19-님] (3)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이다. 화자의 감정에 이입되어 화자가 안타깝게 느껴진다.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이 느껴진다.</td></tr>
</table>

[그림 15] “부정적 감정 경험”의 주제 사례 비교

[D2-1-19-님] 학습자의 경우 사설시조를 읽고 경험한 희극성의 정도를 10점 척도 중 3점으로 응답하여 부정응답을 하였다. 이 학습자는 화자의 감정에 이입하여 작품의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다는 감상을 밝혔다. 이 학습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학습자들은 화자의 상황으로부터 화자의 내면 감정을 이끌어낸 후,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들이 종장의

변화나 작품의 진지한 지향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지만,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결(link)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D2-10-13-님] 학습자는 사설시조를 읽고 경험한 희극성의 정도를 10점 척도 중 8점으로 보고하여 긍정응답을 하였다. 학습자는 기대감에 차 있는 애틋한 화자의 내면을 감수하면서도, 과장된 행동과 기다리는 마음에 밥마저 '일찍 지어 빨리 먹고 기다리는' 모습에 반응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밥에 초점화한 것은 식사와 같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영향을 미쳐 '일찍 지어 빨리 먹는' 과한 행동으로 연결되었음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학습자는 화자의 행동이 우습지만 작품이 한편으로는 이를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보고 자신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감상을 밝혀 작품의 어조나 시선 등을 통해 작품이 의도하는 웃음 유발의 기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단계에서 학습자가 작품 내 비합리성과 대상의 열등함에 주목하여 불일치하는 요소를 찾은 다음에도,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그 둘을 연결하여 의미화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단적으로는, 대상의 열등함에 작품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열등함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수용자는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습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습자들의 감상이 갈리는 지점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특히 그것이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할 경우, 그러한 조정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간 소통을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조정하고 소통을 통해 작품 감상에 자신을 관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 경험

희극성은 실용성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즐겁다는 점에서 자족적인 가치를 지닌다.[132] 이 때문에 희극성 경험은 심미적 경험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132) J. Morreall, 앞의 글.

아니다. 유머(희극성)가 주는 즐거움은 심미적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구별하여 '재미(amusement)' 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133] 모레알(J. Morreall)은 희극성이 주는 즐거움을 '쾌락적인 심리적 전환' 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134]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쾌락적인 심리적 전환으로부터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수용자가 첫 번째 인식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해 요인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조정하여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경우, 방해 요인은 불쾌로 남게 된다.[135] 반면 수용자가 인식을 변화시켜 방해 요인에 적응하여 하나의 인식 패턴을 만드는 경우, 희극성 경험의 결과는 우월감, 부조화, 억눌린 신경에너지의 방출 등 어떤 것이 되든 고통이 아닌 쾌락이라는 심리적 보상과 함께 온다.[136] 정리하자면 희극성 경험은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식을 조정하고, 심리적인 반응을 활성화할수록 쾌의 보상이 크다. 그러나 학습자의 경우 인지적으로 작품의 희극성을 판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정서 반응이 제한되거나 심리적 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마지막 교육 내용으로서는 사설시조의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감상자의 정서를 확장시키기 위해 자신을 충분히 관여시키는 반응 텍스트 생성이 필요하며, 이는 사설시조의 현대적인 재창작 활동을 포함한다. 학습자는 희극성을 가진 텍스트를 창작하며 사설시조 텍스트를 더 깊게 이해하고 현대적인 상황에 대입하며 보다 더 자신에게 익숙한 희극성이 드러나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재창작 활동을 통해 나의 욕망과 규범이 충돌한 적이 있었는지, 인간 보편의 용렬하고 열등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 부정적 대상을 웃음으로 조롱하고 풍자하려한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텍스트에 관여하게 된다. 이 때 교수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습자간 소통은 격려함으로써 작품 감상과 패러디 창작 활동이 일종의 놀이가 되어 학습자가 목적적이지 않고 놀이 모드(play mode)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33) 조현일, 앞의 글.
134) J. Morreall, 앞의 글, p.133.
135) Roy E. Russell, 앞의 글.
136) 조현일, 앞의 글. p.342.

3.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적용

이 절에서는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로, 학습자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작품의 요소에 초점화하고, 반응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확대하여 쾌의 보상을 경험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희극성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 예시로 제시되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과 학습자의 반응 예시는 적용 수업의 사례로, 앞에서 살펴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총 2차시의 수업을 통해 진행하여 논의의 실제성과 구체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습활동으로 구성한 것의 일부를 예시로 제시한다. 적용 수업의 학습자는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중점반의 1학년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표 5> 적용 수업의 개요

1차시(50분)	2차시(50분)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 사설시조 장르적 특성 설명 • 활동지의 비계 질문에 개별적으로 답하기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 활동지의 비계 질문을 중심으로 소그룹 토의 • 감정 일기 쓰기를 통해 느낀 점과 바뀐 생각 등을 기록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 • 패러디 시 창작 활동에 대한 안내 • 패러디 시 창작 • 공유하기 ■ 사설시조 감상문 쓰기

위는 실제 수업의 사례로, 본조사과 동일한 사설시조 세 작품을 학습자에게 제시한 후 학습자의 반응을 활성화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수자의 역할은 조

력자로서 활동의 내용과 시간, 순서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소그룹은 4-5인이 한 조가 되어 토의를 진행하였다. 활동지는 <부록2>로 첨부하였다.

3.1.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적용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반-규제적 웃음에서는 화자를 억압하는 규범을, 공감적 웃음에서는 작품 속 상황을, 조소적 웃음에서는 대상의 열등함에 초점화하여 반응하도록 비계 질문을 제공하였다. 비계 질문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시의 맥락을 탐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에서 학습자가 대상이나 화자의 특성을 추출하고,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며, 종장 초점의 변환에 주목하도록 비계 질문을 제시하였다.

가령, 반-규제적 희극성의 경우, 비합리성을 포착하고 그것이 규범을 우회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예시와 같은 비계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 1. 시의 흐름을 고려하여 종장에 들어갈 말을 상상하여 써봅시다. 그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시의 종장과 내가 쓴 종장을 비교해봅시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시의 종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규제적 웃음의 경우 종장의 비합리성에 주목하는 비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작품의 종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초장과 중장에 이어지는 종장의 문장을 상상하여 쓴다. 그리고 작품의 종장을 보고 둘을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고, 작품은 그것과 어떻게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탐색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반응의 예시이다.

[Y1-10-01-저] 1. 가다가 넘어져라. 저주, 원망. 2. 저주 VS 친구의 임. 친구의 임이 되라는 건 내 생각에는 이상하다.

[Y1-10-01-저] 학습자는 자신과 이어지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가벼운 원망의 표현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종장에서 드러난 화자의 소망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른 점에서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서술하였다. 수업 중에는 형식을 갖춘 감상문이 아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쓰는 기회를 활동 중간중간에 배치하여, 사례의 학습자가 가졌던 자세한 감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초장, 중장에는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종장에서 사랑을 이루던지 해서 해피엔딩일 것 같았는데 친구의 임이 되라고 해서 당황했다. 친구의 임이 되면 그 원하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당황스럽다. 돌다리를 건너 어디로 가는걸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하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친구의 임이 된다면 난 조금 이상했을 것 같다.
>
> - [Y1-10-01-저] (중간 감상문)

감상문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학습자가 가벼운 원망으로 예상되는 종장을 서술하였음에도, 사설시조 작품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종장의 반전으로 인해 당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자는 '돌다리', '흰 옷을 입은 사람' 의 의미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을 작품의 화자에 대입하여 자신이라면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 것이라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의 범주는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으로 나타났다.

<표 6>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의 범주

	범주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의	비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비합리성에 대한 무반응

비합리성을 의미화하지 못하고 혼란을 경험하는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비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작품의 비합리성을 규범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예시] 3. 작품이 향유되던 배경인 조선시대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종장을 설명해봅시다.

학습자들은 '결혼은 남자 쪽이 결정[137]' 하기 때문, '여성의 권력이 낮아서[138]', '조선시대 신분제의 차이[139]' 등의 답을 제시하였으나,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기거나, 조선시대에 대한 배경지식과 연결짓지 않고 종장을 설명하는 답변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에게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당시의 남녀관계와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통해 현대의 연애와 비교해볼 수 있는 규범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계를 제공할 수 있다.[140] 또한 학습자들은 비합리성에 대해 반응하기를 포기하고, 부정적 현실에 깊이 몰입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비합리성이 자아내는 희극적인 효과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비합리적인 내용을 통해 반-규제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현대의 예시를 비계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공감적 희극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7) [Y1-10-07-저]
138) [Y1-10-05-저]
139) [Y1-10-08-저]
140) 고정희는 규범서와 사설시조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혀 수용자가 규범의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면 희극성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정희, 2011, 앞의 글.

공감적 희극성의 경우,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상과 공감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작품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두드러지기에 학습자에게 우선 사건의 줄거리와 장면을 상상을 통해 구체화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시] 1. 약간의 상상을 덧붙여 사건의 줄거리를 다시 써봅시다.

[Y1-10-03-님] 1. 화자가 님의 아내이고, 님은 일을 하기 위해 멀리 떠났을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산을 보고 남편인 줄 알았는데 주추리 삼대였을 것이다.

[Y1-10-03-님] 학습자는 상상을 통해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이별의 상황'에서, 둘 사이가 '부부'일 것이라는 추측과 화자가 그 중에서 '아내'이고 남편이 집에 부재한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하고 있다. 착각의 상황에 '일을 위해 멀리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라는 구체적인 사연을 부여하였다. 그 다음, 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시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적기를 요청하였다.

> 님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추리 삼대가 새로운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자는 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았다. 7월 3일이 뭔가 중요해보였다. 화자가 산까지 엄청 빠르게 달려갔을 것이다.
>
> - [Y1-10-03-님] (중간 감상문)

[Y1-10-03-님] 학습자는 상상을 통해 '새로운 남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학습자의 글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대가 밤이라는 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몰래 만나야하는 부도덕한 관계를 연상했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7월 3일'이라고 적은 것은 작품의 '상월 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에 주목하여 '뭔가' 그 이

유를 알지 못하지만 ‘중요해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자는 안동 지역에서는 음력 칠월 초에 삼대를 수확하여, 겉껍질을 훑어낸 속껍질을 가지고 베를 짜는 풍습이 있다는 정보와 그 속껍질을 ‘제추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41] 장면의 구체화를 돕기 위해, 실제 삼대와 세워놓은 제추리의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학습자는 작품의 설정과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있으나 이와 불일치하는 대상의 열등함에는 초점화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반응 조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의 범주는 ‘대상의 열등함에 부정적으로 반응’, ‘화자의 감정과 자신 연결’, ‘정서적 무반응’으로 나타났다.

<표 7> 공감적 웃음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의 범주

	범주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적극적 부정
	화자의 감정에 대한 몰입과 동화
	정서적 무반응

학습자가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상황적인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상과 거리를 멀게 조절한 사례에 해당된다. 대상의 열등함이 가진 평범한 속성에 주목하는 비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유사한 경험을 환기하고, 내가 화자라면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계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계 활동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유발시켜 공감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감적 웃음은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희극성을 경험하는 유형이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유사한 경험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기가 보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없애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141) 안동포 마을 협동조합, “안동포 제작과정”. 2021.12.12.
http://andonghemp.kr/bbs/content.php?co_id=sub1_s3

하였다. 희극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수용자의 완전한 동일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며 적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공감적 웃음에서 공감의 의미는 완전한 몰입이 아닌, 일정한 거리를 전제하되 그 바탕에 있는 욕구와 대상의 심적 체험은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142] 그러나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대상과 완전한 동일화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감상의 결과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들이 보편적인 일상의 경험의 차원에서도 공감하되,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화자의 행동과 종장에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극적인 비일관적인 심적 변화 등에 주목할 수 있는 비계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마지막 범주인 정서적 무반응의 경우, 인지적으로는 작품의 희극성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정서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학습자 반응으로, 이는 뒤에서 패러디 작품 창작을 통한 학습자 반응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시 논하도록 한다. 다음은 조소적 희극성의 사례이다.

조소적 웃음의 경우, 대상의 우월한 특징과 열등한 특징에 초점화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비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과 그것이 설정되는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소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의 반응의 범주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정서적 무반응'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소적 웃음에 대한 관습화된 반응의 범주

	범주
조소적 웃음에 대한 관습화된 반응	대상의 열등함에 대한 교훈 도출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
	정서적 무반응

142) 김흥규, 앞의 글, p.14 참조.

학습자들은 자신과 공유되지 않으며 배척하는 대상이 되는 열등함을 인지하고 그러한 열등함과 반대되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이며 단순화된 반응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품을 요소에 초점화하여 더욱 풍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계를 제공할 수 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 등장하는 세 대상의 관계를 탐색하고 종장의 '날랜 나'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주목하도록 하는 비계가 필요하다. 다음은 작품 속 세 대상의 관계를 탐색하도록 하는 비계 질문이다.

[예시] 1. 두꺼비, 파리, 송골매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적용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과학중점반이라는 특성에 맞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포식자-피식자 관계임을 파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비계 질문으로서, 두꺼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두꺼비가 과연 '날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 학습자에게 이들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반응을 활성화하여 간단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에게 동물들이 인물들이라면 어떠한 인간상을 그려낸 것인지 상상하도록 하는 비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앞에서 생태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들의 권력 관계를 연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공감적 웃음의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대상에 대한 동조와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가 대상의 열등함 뒤의 보편적 인간 욕망과 낭패감을 자세하게 다뤘다면, 조소적 웃음에서는 그러한 시선이 제거되고 열등함에 초점화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서 두드러졌던 몰입적인 일체화의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희극성 감상을 위해서는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며, 조소적 웃음의 경우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상이 우월함에서 열등함으로 추락하는 불일치에 초점화할 수 있는 비계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장면을 시각화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현대의

개그 프로그램에도 조소적 웃음이 많이 활용되지만 학습자들이 조소적 웃음을 시에서 경험하는 것은 시각화의 차원에서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적용 수업에서는 송골매의 등장을 기점으로 장면을 반으로 나눠, 학습자들에게 각각의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앞에서 탐구한 맥락을 바탕으로 장면을 시각화하고 대상의 열등함을 의미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한다.[143]

사례와 함께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을 탐색하는 교육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인물의 특성 추출하기, 시적 상황 구체화하기[144], 종장 초점의 변환 주목하기를 내용으로 하는 비계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활동은 각 사설시조의 희극성 유형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다.

3.2.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학습자 소그룹 토의는 학습자가 균형 잡힌 접근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들은 때로는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혹은 맥락에 대한 힌트가 부족하여 희극성 경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자 간 토의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다음 두 가지

---

143) '정서적 무반응'에 해당하는 학습자 반응과 관련해서는 뒤의 "3.3.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에서 다시 언급한다.

144) 시적 상황 구체화하기는 장면에 새로운 정보를 상상하여 추가하여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거나, 시각화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시각적인 자료에 익숙하기 때문에 희극성이 두드러지는 같은 장면이더라도 글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장면에서 더 큰 희극성을 경험한다.(같은 내용을 비디오, 오디오, 스크립트로 제시했을 때, 스크립트에 비해 비디오나 오디오로 제시된 경우 더 많은 웃음과 미소를 유발한다. G. Neil Martin 외 3인, "Measuring responses to humor", *HUMOR* 21(2),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or Studies, 2008 참고.) 글을 통해서 읽는 것은 장면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기에 학습자가 장면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H1-3-14-님]과 같은 학습자의 반응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학습자는 시각적이라면 희극성을 경험했겠지만, 글이기 때문에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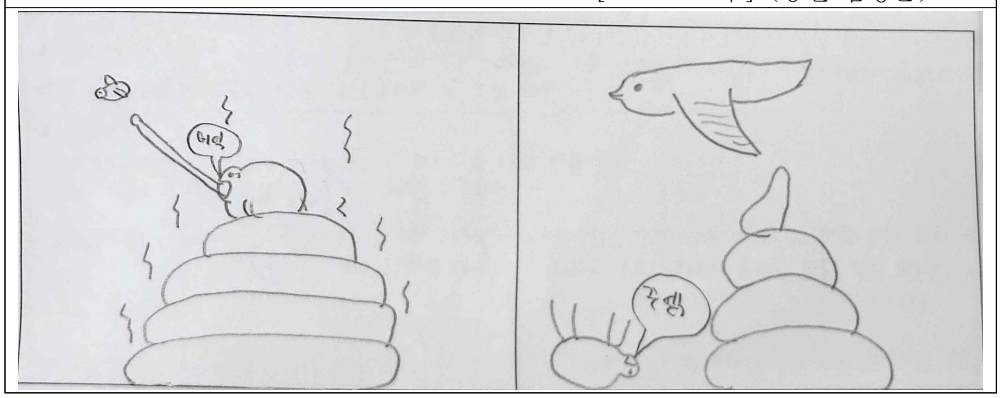
[H1-3-14-님] 이것을 글로 풀다보니 재미가 없어졌다. 영상으로 보거나 직접보아야 재밌는 상황일 듯하다. 마찬가지로 내용이 너무 짧아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학습자가 배경지식 부족으로 잠재적으로 희극적인 제재를 이해하거나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준다. 둘째, 희극성 경험은 함께 읽고 공유하는 사회적 작업이 중요하다. 미묘한(subtle) 희극성에 대한 감수성(sensitivity)은 능숙한 독자가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서로 내용을 공유하였을 때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145]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는 인물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자신의 해석을 표현하고 동료들의 해석과 비교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서 두꺼비의 열등함은 바로 앞 장면에서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 위풍당당했던 모습과의 불일치 및 대조에서 유발되므로 학습자는 두 장면을 시각화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간단한 감상문과 그림의 예시이다. 학습자는 2차시에 패러디 활동까지 모두 마친 후 감상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1차시에 간단한 비계 활동 후 중간 감상문에 해당하는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상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비계 활동에 대한 답변과 함께 소그룹 토의의 내용이 된다. 다음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각기 다른 사례이다.

먹이 사슬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먹기 위해 살고 먹히지 않기 위해 산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누가 나를 노릴지 모른다. 이것이 자연이다.

- [Y1-10-07-두] (중간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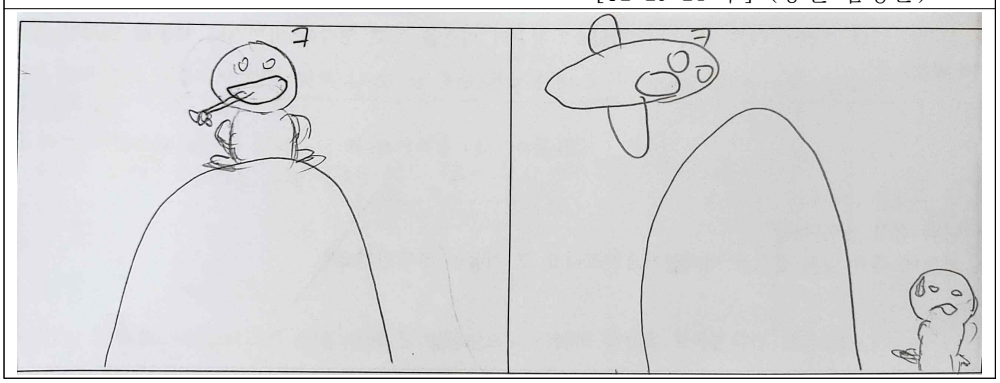
[Y1-10-07-두] 학습자는 작품을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

145) Donna M. Sharon, 앞의 글, pp.119-150.

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그림에서도 강하게 드러나는 바, 파리-두꺼비-송골매의 관계를 크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약자와 강자가 잘 드러나게 시각화하였다. 또한 말풍선을 달아 두꺼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완하였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송골매는 두꺼비를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나 두꺼비는 배를 위로 뒤집는 약자의 모습을 한 채 외마디의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그려졌다. 학습자는 두엄이라는 배경에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두엄을 배설물로 묘사했으며 주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표현하여 냄새 혹은 온도까지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두꺼비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비웃게 만든 것 같다. 또한, 이 시조의 종장이 ‘님이 오마 하거늘’의 종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 [Y1-10-14-두] (중간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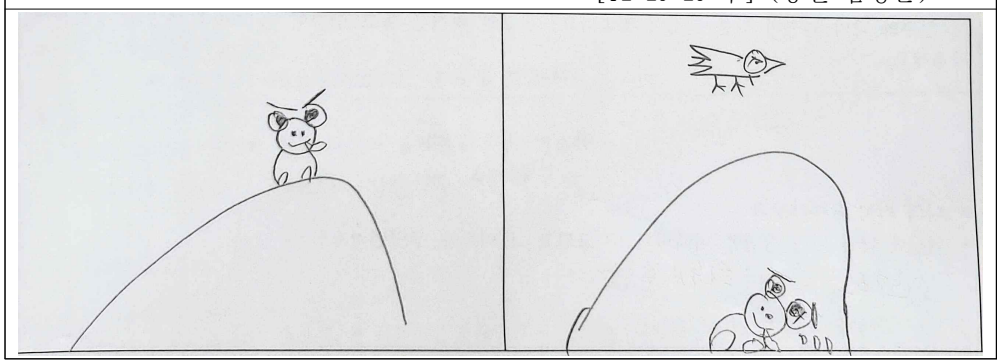


[Y1-10-14-두] 학습자는 두꺼비를 희화화하는 작품의 시선에 주목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두꺼비를 비웃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웃음’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은 학습자의 그림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림과 함께 웃음을 표시하는 ‘ㅋ’ 문자로 대상들의 심리 표현을 보완하고 있다. 왼편에는 두꺼비가 파리로 보이는 형상을 잡아 자부심의 표현으로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있으며, 오른편에는 두엄에서 떨어진 두꺼비가 경직된 자세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하늘 위 송골매가 비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는 바로 전 작품인 <님이 오마 하거늘>과 종장에서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낭패를 무화하려

는 화자의 노력에 초점화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사설시조의 유사한 부분이 다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간 활발한 토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두꺼비가 있지도 않은 멋있는 척을 하다가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오니까 무서워하다가 강자가 가니까 다시 멋있는 척을 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

- [Y1-10-10-두] (중간 감상문)



[Y1-10-10-두] 학습자는 두꺼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있지도 않은' '멋'을 부리는 모습이 왼쪽 그림에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와서 무서워하며 우는 두꺼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의 사례와는 달리 송골매는 두꺼비를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두꺼비 혼자 낭패를 당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시조에 두꺼비의 눈물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린 것은, 두꺼비의 추락에 가세하려는 수용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눈썹의 방향을 통해 위풍당당한 표정과 위축된 표정을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두꺼비의 약자를 대할 때와 강자를 대할 때의 상반된 태도를 짚으며 '꼴보기 싫다'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는 각각 약육강식의 틀에서 진지한 지향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려 하거나, 작가의 관점과 의도를 통해 작품을 바라보려고 하거나,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서로 다른 개성적인 반응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이 한 조에 배정되어 상호소통을 한다면 서로 작품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되어 반응이 활성화

되고,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포착된 일부의 장면들이다. 학습자들은 소그룹 토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하기도 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자신의 반응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학생1: 얄밉다라는 게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시어잖아요.
교사: 그렇지 그렇지.
학생1: 얼마나 더 사랑할만한 사람이고, 외양적으로 완벽하면, 얄밉다, 라고 했잖아요.
교사: 완벽한 외형.
학생1: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것이 되라는 뭐겠어요, 내가 친구네 놀러갔을 때 남자를 볼 수라도 있게 그렇게라도 보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생2: 아-.(깨달은 듯이)

- <저 건너 흰 옷입은 사람> 에 대한 토의 中

(화자의 내면에 대해 토의 중)
학생A: 감정은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막 몸이 뭔가 앞서는.
학생B: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학생C: 이성적으로 살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변하는.
교사: 둘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 같아, 아니면 이미 헤어진 것 같아?
학생C: (확신하며) 헤어졌죠.
학생A: (고민하다가) 응, 이미 헤어진 것 같아.
교사: 화자도 알고?
학생B: 아니요, 사랑을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아 저 잘못 들었어요.
교사: 이미 이별을 한 상태인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학생A: 이별을 해서 이 사람이 오면은 좋은 건데 계속 안 오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요.

교사: 어우 되게 슬프다.

학생A: 그리고 이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헤어진거지요.

교사: 작품의 분위기는

학생A: 암울하다.

학생B: 관계에서 헤어졌으면 뛰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몸만 떨어진 거지.

- <님이 오마 하거늘> 에 대한 토의 中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에 대한 토의에서 학습자는 비합리성에 대한 나름의 해설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 다른 학습자에게는 연결되지 않았던 종장의 비합리성이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저 건너 흰 옷 입은 사람>에 대한 토의에서는 인물의 관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면서 학습자의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설시조를 자신과 현대와 연결시킴으로써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보다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패러디 시 창작을 제안한다.

3.3.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

패러디의 어원은 'parodia'로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전의 '희극적 개작'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패러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146] 모방, 변용, 골계(comic)는 패러디의 3요소로 제시되고는 한다.[147] 학습자는 사설시조를 모방하고 변용하여 희극성을 가진 현대적 패러디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패러디 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전 경험에서 축적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과 관련지어 희극적인 사설시조 패러디를 창작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친숙한 세계를 작품에 대입해봄으로써 모순된 요소가 희극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이해하고, 모순된 요소에 대한 정서 반응의 위계를

146) 김준오, 앞의 책, pp.249-250.
147) 위의 책, p.251.

성공적으로 전복시켜 반응을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인지적으로 반응하지만, 그것이 정서적인 반응과 희극성 향유로 이어지지 않는 학습자들에게도 유의미한 교육적 처치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인물의 위치에 자신을 대입해보고, 웃음 유발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변형하면서 반-규제적 웃음에서 비합리성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공감적 웃음에서 공감적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조소적 웃음에서 대상의 열등함을 새로운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 때 창작에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에게는 틀을 제공한 후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교수자는 사설시조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희극성이 드러나는 사설시조를 창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사설시조의 사설은 어원상 '사슬[鎖]'과 'ᄉᆞ셜[辭說]'로 전자는 쇠사슬의 사슬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며, 후자는 말을 길게 늘여놓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엮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설시조는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가지게 된다.[148] 한편 그 내용은 '거침없음'과 '자연스러움'을 특징[149]으로 한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상기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원 텍스트 차용 - 패러디 시 창작 - 공유의 단계로 나눠진다. 우선 원 텍스트에서 패러디 시로 차용할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패러디는 어떤 작품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차용하여 텍스트 간의 관련성으로 독자의 반응을 유도한다.[150] 학습자들은 의도적 모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패러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원 텍스트에서 차용할 요소를 탐색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독자 역시 패러디 시가 특정 사설시조의 패러디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 때 학습자는 창작하는 패러디 시가 희극성

148) 이지엽,「현대시조 창작교육의 실천적 연구-사설시조를 중심으로」,『비평문학』(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p.446.

149) 사설시조는 청구영언 후발을 쓴 마악노초 이정섭의 진술을 토대로 규정한 바처럼 말의 '거침없음'과 '자연스러움'을 생명으로 하되, 시조의 양식적 틀의 제어를 받는다. 김학성,「사설시조, 그 양식적 개방성」,『사설시조의 특성과 그 전망』, 고요아침, 2008, p.41.

150) 이혜경,「시 창작 지도에 있어서 패러디의 활용 연구」,『열린정신 인문학연구』1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p.132.

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기존 텍스트의 웃음 유발의 기제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 패러디 작품 창작의 과정에서는 기존 사설시조 텍스트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을 패러디 시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인해 여전히 낯설고 어려웠던 사설시조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희극적 텍스트를 창조적 상상력으로 창작하는 활동은 일종의 놀이로써, 학습자를 희극성 향유에 적합한 심리적 상태에 놓게 해줄 수 있다.[151]

마지막으로, 또래 학습자들과 패러디 작품을 공유하면서 본래의 사설시조와 새롭게 창작된 패러디 시를 동시에 향유하게 된다. 패러디 시를 감상하는 것은, 패러디 되는 텍스트나 전통을 알아야 한다는 점[152]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극성을 경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현대적인 개작 작품을 통해 기존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의 패러디 시이다.[153]

---

151) 앱터(Michael J. Apter)의 전환이론(Reversal Theory)은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한 동기화 상태(motivational stat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희극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표에서 자유롭게 흥분을 추구하는 유희적 심리 상태(패러텔릭 상태, paratelic state)에 놓여야 하는데, 이는 강의식 수업 현장보다는 희극성을 가진 텍스트를 창작하는 놀이의 활동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Rod A. Martin and Thomas Ford, 앞의 책 참조.) 또한 파버(J. Farber) 역시 불일치하는 요소에 대한 각각의 심리적 반응인 [b]가 [a]와 위계를 바꾸는 것은, 수용자가 자유로운 흥분 추구 상태인 놀이 모드(play mode)일 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J. Farber, 앞의 글, p.69) 놀이의 성격을 가진 패러디 창작 활동은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152) 패러디는 패러디된 작품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러닉한 전도에 의한 모방이다. (린다 허천, 김상구,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p.14.)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러디는 전통의 파괴가 아닌 전통에의 복귀이며, 패러디는 일종의 역사성을 획득하게 된다. 독자들은 패러디되는 텍스트나 전통을 알고 이를 인식해야 수용자로서 기호부여자와의 예술적 대화가 가능해진다. (유영희, 「패러디를 통한 시 쓰기와 창작 교육」,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5, pp.80-95 참조.)

153) 여기서는 Y고등학교의 학습자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D고등학교의 학습자 자료를 인용하였다. Y고등학교의 학습자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이 창작 활동을 하기에는 더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D고등학교에서 본조사 이후 희망하는 학습자에게 패러디 시조를 창작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학습자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시간을 통해 창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총 90명의 학습자가 참여해주었고 여기서는 세 작품만 살펴본다.

저 건너 티셔츠 입은 형 몹시 얄밉고도 얄미워라
작은 방 건너 큰 거실 넘어 괴롭히러 오는가 귀찮게 하러 가는가 어허, 남의 집 주고 싶어라
진실로 남의 집 못 줄 것이면 군대나 갔으면

- [D2-09-01-저(패)]

내일이면 드디어 학교에 간다기에 일찌감치 고구마색 교복을 걸어 놓고
새 학교는 어떨까 새 교실은 어떨까 새 친구는 어떨까 설레이며 턱을 괴고 앉아 학교 가는 길을 상상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 눈이 번쩍 뜨이고 몸은 헐레벌떡 일어나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룩주룩, 아이고 늦었구나! 첫날부터 지각이네! 우당탕탕 허둥지둥 방문 열고 나가보니 아직은 3월1일,
깜빡 잠이 들어 꿈이었길 망정이지 행여나 밤잠이었으면 첫날부터 출석부에선 그어질 뻔 했구나.

- [D2-11-07-님(패)]

교육부가 학생을 물고 권력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학생들이 뛰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정책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꾸고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삼수할 뻔 했구나

- [D2-09-15-두(패)]

[D2-09-01-저(패)] 학습자는 원래의 사설시조가 가졌던 '얄밉다'의 반어적 뜻을 뒤집어 문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화자와 대상은 짝사랑하는 여인과 흰 옷 입은 남성이 아닌 자신과 티셔츠 입은 형으로 대체되었다. 이 작품은 자신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형을 '남의 집 주'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기에 '군대나 갔으면'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원 작품의 흐름을 잘 따랐으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반-규제적인 비합리성에서 얄미운 형과 집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희화화하여 내용을 현대적으로 바꾼 예시이다.

[D2-11-07-님(패)] 학습자는 착각이라는 구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앞의 사례처럼 현대 학습자들이 공감하기 쉬운 주제를 가져왔다. 님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은 새로운 학기의 시작에 대한 설렘과 준비로 대체된다. 특기할 점은 본래의 사설시조가 간절한 기다림이 유발한 자신의 착각이었듯이, 패러디 시에서의 착각 역시도 새 학기의 시작에 대한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유발한 스스로의 착각이라는 점이다. 패러디 시를 창작하면서 시에 대한 관찰과 감상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첫날부터 지각이라는 생각에 우당탕탕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희극성을 유발한다. 상월 칠일이라는 날짜는 3월 1일로 대체되고, 결국 학교를 가지 않는 빨간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 학습자는 꿈이라는 설정을 통해 더 큰 '기대의 무화'를 유발하여 희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종장에서 본래의 사설시조의 화자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은 패러디 시에서 화자가 출석부의 출결부터 걱정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대체되어 웃음을 유발한다.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체면에 자유롭지 못한 화자의 모습과, 개학의 설렘을 가지면서도 출결 점수에 연연하는 학생의 모습이 겹치며 웃음을 유발한다.

[D2-09-15-두(패)] 학습자는 교육부와 학생의 권력의 불균형에 착안하여 잦은 정책의 변화에 우왕좌왕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을 그렸다. 종장에서 자신의 체면을 애써 세우는 두꺼비의 모습은 잦은 정책의 변화에서도 '삼수'는 하지 않았다는 화자의 자부심으로 대체된다. 이는 '재수'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극성을 유발하면서도, 동시에 교육 정책의 잦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래'기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해 단순히 교육부라는 대상을 을 조롱하는데서 나아가 풍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패러디 활동과 공유 활동에서의 학습자의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Y고등학교의 최종감상문으로부터 패러디활동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54]거나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향유했던 당대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155]는 등의 반응을 통해 학습자들이 사설시조 패러디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희극성 경험에 대한 반응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패러디 창작 활동을 일종의 놀이로 받아들이고

154) [Y1-10-02-님] (최종 감상문) '두터비 파리를 물고'를 감상하고 처음에는 그닥 재미가 없었지만 이해를 하고보니 정말 웃기고 재밌다고 느꼈다.

155) [Y1-10-01-저] (최종 감상문) 아마 저 종장의 강한 인상이 이 시를 그 시대에 유행하게 했을 것 같다. 많은 여인들이 이 시를 보면서 공감하고 웃었을 것 같다. 답답한 삶 속에서 이상함과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다.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원 텍스트의 희극성 기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희극성 경험의 쾌의 감각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Ⅴ. 결 론

본고는 사설시조의 미적 본질인 희극성을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웃음 유형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그간 사설시조의 본질로서 중요하게 연구되어왔으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의 형태로 암기되며 희극성의 본질답게 경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교수·학습할 때 그 특징을 섣불리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설시조의 희극성은 '해학과 풍자'라는 지식으로서만 학습자에게 주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의 반응과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설시조 희극성이 제공하는 경험은 내용상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는 일탈의 반-규제적 성격, 욕망의 보편성으로 추동되는 대상의 범용함을 긍정하는 공감적 성격, 대상의 열등함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조소적 성격을 가진다. 본고는 이러한 사설시조를 감상하는 수용자 내면의 일련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파버(J. Farber)의 확장된 불일치 이론을 사용하였다. 그는 텍스트의 차원에서 주로 분석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불일치 이론을 확장하여 수용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파버에 따르면 수용자는 "①작품 내 불일치 요소 탐색 ➔ ②불일치 요소에 대한 상반된 심리적 반응 활성화 ➔ ③상반된 심리적 반응의 위계 전복으로 인한 심리적 보상"의 내적 단계를 따르며, 그 내용은 희극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설시조 희극성의 종류는 파버의 분류를 참고하여 불일치하는 두 요소와 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보상의 내용에 따라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규제적 웃음,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감적 웃음,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소적 웃음으로 분류되었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희극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적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고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 연구를 지향하여, 희극성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보고를 1부터 10까

지의 리커트 척도로 수집하였으며, 그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감상문을 수집하였다. 리커트 척도 10점 만점 중 4점을 부정 응답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양적인 분석의 결과로,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가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반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음에도 각 유형에 대한 학습자 반응이 가진 전체적인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규범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공감적 웃음의 사설시조의 경우 대상의 열등함이 가진 보편성으로 인해 희극성을 쉽게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조사에서는 학습자 감상문을 수집하여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콜레지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반-규제적 웃음의 사설시조에서 의미화 실패의 양상을 보였다. 작품 내 비합리성을 의미화하지 못한 경우, 논리적인 비판을 하거나 이를 아예 무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감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수용자는 거리조절 실패의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는 대상의 열등함에 대해 거리를 넓게 조절하여 조소적 웃음과 비슷한 반응 양상을 보이거나, 대상의 심리에 공감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거리를 지나치게 좁혀 대상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조소적 웃음이 드러나는 사설시조 작품에 대해 수용자는 관습화된 반응의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는 대상의 추락에 대해 교훈적 의미를 도출하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관습적으로 대상에게 공감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감적 웃음과 조소적 웃음에 대한 학습자 반응에서는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작품의 희극성에 반응하는 것과 달리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특기할 점이었다.

희극성을 경험한 학습자 중 희극성 경험을 자세하게 서술한 반응 텍스트를 통해 단계적 반응을 분석할 수 있었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학습자와 달리, 이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희극성을 통한 쾌를 경험하였다. 반-규제적 웃음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을 통한 사회적 규범의 확인, 상상을 통한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환기, 위반의 긍정을 통한 욕구 충족의 추론적 반응을 보였다. 공감적 웃음에 대해서는 내면 해석을 통한 대상의 보편성 확인, 자기 연결을 통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 환기, 타자와의 동질감 확인을 통한 욕

구 충족의 관용적(寬容的) 반응을 보였다. 조소적 웃음에 대해서는 행위 분석을 통한 대상의 열등함 확인,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한 우월감에 대한 욕구 환기, 대상에 대한 부정을 통한 욕구 충족의 평가적 반응을 보였다.

희극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습자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반응을 비교하여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극성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는 희극성의 경험이 단계적이기보다 부분적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계적인 비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의 부족, 불확실한 해석 등이 작품의 맥락 이해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반응의 다양성을 살펴본 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희극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설시조의 다양한 희극성 유형별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자 반응을 고려한 사설시조 희극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설시조 희극성의 다양한 실현 방식을 이해한다. 둘째,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 셋째, 고전시가의 희극성 향유 능력을 신장한다.

사설시조 희극성 경험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설시조의 불일치 요소 발견, 웃음 유형별 희극성의 기제 파악, 희극성 체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사설시조의 희극성이 가진 가벼운 웃음과 진지한 지향을 모두 아울러 감상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비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설시조의 희극성 경험을 위해서는 비합리성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환기하고, 작품을 통해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을 더욱 관여하여 상상을 통해 희극성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비계 질문을 통한 텍스트의 맥락 탐색, 소그룹 토의를 통한 반응 조정,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2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여 논의의 구체성을 더했다. 비계 질문은 대상의 특성 추출하기, 시적 상황 구체화하기, 종장 초점의 변환 주목하기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작품의 불일치 요소에 초점화하고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때의 비계 질문은 각 유형에 맞는 질문이어야 한다. 소그룹 토의

를 통한 반응 조정에서 학습자들은 인물과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표현하고 조정하게 된다. 패러디 시 창작을 통한 수용자 관여 확대에서 학습자는 인물의 위치에 자신을 대입하고 웃음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는 익숙한 것을 대입하여 사설시조를 새롭게 경험하고, 창작한 작품을 공유하면서 상호텍스트적으로 본래의 사설시조 작품을 다시 향유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본고는 사설시조의 희극성을 텍스트 수준이 아닌 수용과 반응이라는 학습자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학습자의 희극성 경험에 대해 비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이 다른 종류의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학습자가 서술한 텍스트 자료에 크게 의존한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양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을 적용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논저

강민규,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행방과 향방」,『문학교육학』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강태근, 「<문학 교육 분야> 해학의 개념 연구」, 『새국어교육』41, 한국국어교육학회, 1985.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고정희, 「사설시조의 희극적 특징 고찰」, 『한국문학논총』 35, 한국문학회, 2003.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_____, 「조선시대 규범서를 통해 본 사설시조의 희극성」, 『국어국문학』159, 국어국문학회, 2011.

_____, 「사설시조와 리얼리즘」,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김대행,『웃음으로 눈물 닦기: 한국언어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분한 외 8명,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9(6) 한국간호과학회, 1999.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20.

김진희, 「영어시조에 나타난 위트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42, 한국시조학회, 2015.

김학성, 「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 『어문연구』 3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_____,「사설시조, 그 양식적 개방성」, 『사설시조의 특성과 그 전망』 , 고요아

침, 2008.
김효, 「보들레르의 웃음 담론과 판소리의 희극성」, 『비교문학』 52, 한국비교문학회, 2010.
김황기, 「미술교육에서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의 통합」, 『미술교육논총』 19(3), 한국미술교육학회, 2005.
김흥규, 「사설시조의 시선 유형과 그 변모」, 『한국학보』 18(3), 1992.
_____, 『사설시조의 세계:범속한 삶의 만인보』, 세창출판사, 2015.
류수열, 「사설시조 텍스트 구성 원리 연구: 선행 텍스트 수용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류연석,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7.
문선정, 「Catharsis in Comedy: Traditional vs. Modern」, 『인문학연구』 9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박상영, 「사설시조에 드러난 희비극성의 양상과 그 미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2011.
_____,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 한국시조학회, 2012.
_____,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방민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통일의식 연구-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5,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송지언,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신윤경, 「사설시조에 나타난 '연애걸기'의 양상과 그 의미-<만횡청류>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6, 이화어문학회, 2008.
심여택, 「사설시조에 나타난 해학성」, 『논문집』 14, 인문학편, 1982.

오창근, 「웃음의 미학, 비애의 휘발」, 『실천문학』, 2007.
유승호, 「한국현대소설의 구현원리로서 웃음의 미학적 특성과 의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유영희, 「패러디를 통한 시 쓰기와 창작 교육」,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5.
이도연, 「국문학 연구에 있어 희극성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예비적 시론」,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이도흠, 「만횡청류 사설시조에서 통속성의 미적 범주와 양상」,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이영석,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서의 의미작용에 대한 시론』에 나타난 웃음과 희극성 분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8(2),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6.
이영태,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청개고리 복질하여 죽은날 밤"의 해석」, 『시조학논총』 30, 2009.
이재준, 「사설시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그 의미 - 대상과의 관계 맺기 방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7, 온지학회, 2013.
이지엽, 「현대시조 창작교육의 실천적 연구-사설시조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이형대, 「사설시조에 발현된 희극성의 육체적 표상들」, 『한국시가문화연구』 33,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이혜경, 「시 창작 지도에 있어서 패러디의 활용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장희창, 「한국미의 범주로서의 해학」, 『민족미학』5, 민족미학회, 2005.
조규익, 「만횡청류 연구-골계와 미적 승화에 대한 논의」, 『숭실어문』 12, 1995.
조동일, 『한국사상대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_____,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조성진, 「사설시조 사랑노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조세형, 「가사와 민요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 『장르 교섭과 고

전시가』, 월인, 1996.
조현일, 「미적 향유를 위한 소설교육 : 감정이입과 미적 공체험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_____, 「웃음, 유머에 대한 문학교육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66, 국어교육학회, 2018.
진선희, 「학습독자 반응 연구의 문학교육적 함의 및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성현란 외, 『발달심리학』, 학지사, 2019.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하윤섭, 「인간 존재에 대한 사설시조의 시선」,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2. 국외 논저

Aristotle, 천병희 역,『시학』, 문예출판사, 1994.
Bergson A., 정연복 역,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세계사, 1999.
Endres R. J., "Humor, Poetry, and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19(4),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 1966.
Farber J.,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Humor in Literature and the Other Arts",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41(4),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7.
Fremantle A., *This Little Band of Prophets*, Mentor, 1960.
Fried K. & S. Carson,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expectations and personality on audience ratings of humor", *Humor* 31(4), De Gruyter, 2018.
Greene M., "The Ambiguities of Freedom", *English Education* 33(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2000.
Gordon M., "What makes humor aesthetic?",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CPI, 2012.
Hutcheon L., 김상구,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Kant, I., 백종현 역,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Martin G. N. et al., "Measuring responses to humor", *HUMOR* 21(2),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or Studies, 2008.
Martin R. A. & T. Ford, *The Psychology of Humor: An Integrate Approach,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2006.
Morreall J., "Humor and Aesthetic Educ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5(1),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1.
Nunez-Ramos R. & Lorenzo G., "On the aesthetic dimension of humor", *Humor* 10(1), De Gruyter, 1997.
Russell R. E., "Understanding laughter in terms of basic perceptual and response patterns", *Humor* 9(1), De Gruyter, 1996.
Sharon D. M., "What children find humorous in the books they read and how they express their responses", *Humor* 12(2), De Gruyter, 1999.
Stanton M., "What's so funny about the imagination?: Four ways humour encourages students to be creative, *Access* 30(4), Cambridge Publishing, 2016.

3. 온라인 자료

안동포 마을 협동조합, "안동포 제작과정". 2021.12.12.
http://andonghemp.kr/bbs/content.php?co_id=sub1_s3

<부록1>
분석 대상이 된 학습자 자료

■ 반-규제적 웃음에 대한 의미화 실패

비합리적 전개에 혼란
[D2-2-21-저]앞뒤 맥락 없이 저 사람을 서방 삼고 싶다는 게 뭔가 쌩뚱맞음.
[D2-1-05-저]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 벗(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는 부분이 공감되지 않는다. 남 주기 싫고 내 것 하기에는 아깝다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기에는 꺼려지는 것조차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남에게 주기 싫은데 어찌하여 화자는 자신의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라도 맺어짐을 바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구를 위한 마음이 큰 것인가?
[D2-2-02-저] 1행에서 얄밉다고 했다가 다음 행부터 서방으로 삼고 싶고, 그렇게 못한다면 친구로라도 삼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드러냈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D2-10-11-저]황당하다. 왜 저 사람이 얄미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고 왜 서방으로 삼고 싶은지 모르겠다.
[D2-10-29-저]짝사랑의 감정이 공감된다. 한편으로 이해가 안된다. 나같으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남도 갖지 못하길 바라는 심리가 생길텐데 내가 갖지 못하면 친구가 갖으라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D2-11-03-저]이해 불가능. 초장에는 '흰 옷 입은 사람'이 얄밉다고 하였는데 중장에서는 서방 삼고 싶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D2-11-06-저]뭔가 강가에 앉아 강 건너에 흰 옷 입은 사람을 보면서 아무말이나 하고 있는 느낌이다.
[D2-11-19-저]이런 작품을 왜 짓는 것인지 모르겠다. 처음 본 사람을 서방으로 삼고 싶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D2-11-23-저]잘 이해를 못하겠다.
[H1-1-10-저]처음에 얄밉다고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H1-1-14-저]무언가 아리송한 느낌.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얄밉고 미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째서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을 벗이나 배우자로 삼고 싶은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H1-1-15-저]화자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시조에서 모순되는 말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작품에서 초장에서는 밉다고 하였지만 종장에서는 서방으로(삼고) 싶다고 한 부분이 건너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H1-11-17-저]만약에 진짜로 서방 삼고 싶다고 말한 거였으면 벗의 임이라도 되라는 부분의 의미가 내 벗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 못하고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H1-11-19-저]기괴하다.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당황스럽다. 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왜 서방으로 삼고 싶다 했는지 모르겠다.
[H1-2-03-저]자신이랑 잘 안 될 것이면 친구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이상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다
[H1-2-12-저]결말이 살짝 이상하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H1-2-14-저]어지럽다. 화자의 감정이 엇갈려 있어 그렇게 느낀 것 같다.
[H1-2-17-저]조금 두서없고 가벼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서도 답답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이해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했습니다.
[H1-3-07-저]살짝 엉뚱하고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에는 얄미웠다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차라리 친구의 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H1-3-11-저]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왜 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흰 옷 입은 상황과 건너간다는 것만으로 흰 옷 입은 사람이 죽어서 친구의 임이나 되어 나타나서 보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H1-3-16-저]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마지막의 말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H1-4-11-저]게다가 친구의 임이 되면 더 짜증날 것 같은데 왜 소망이 벗의 임이나 되었으면 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차라리 멀리 떠나서 앞으로 안 보

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H1-6-03-저]화자의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화자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자의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H1-6-18-저]혼란스럽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남자가 얄밉다고 하지만. 후에는 자신의 임이나 벗의 임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배경이 예측되지 않고. 화자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 예측이 안 된다.
[H1-6-21-저]어이가 없다. 얄밉다고 하다가 갑자기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하다가 뜬금없이 벗의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하기 때문이다.
[H1-7-03-저]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너무 복잡하다. 대체 이 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밉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이 와중에 내 친구 임이나 되라는 건 진짜 본인 소망인지 아님 비꼬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다. 솔직히 당장 화자가 무슨 생각이나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설명이 안 되어서 진짜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밖에 생각이 안 든다.
[H1-7-05-저]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처음에는 저 건너 흰옷입은 사람이 얄밉다고 했다. 그런데 중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을 서방삼고 싶다고 한다. 갑자기 서방삼고 싶다고 한 것이 당황스럽다. 마지막에서는 자기 서방이 못 될 것이면 벗의 서방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말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H1-7-06-저]이상하다. 작품에서 처음에는 건너에 있는 사람이 얄밉다고 한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방 삼고 싶어 한다. 먼저 여기서부터 화자의 심정이 모순적이다. 또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서방이 못 된다면 벗의 임이 되라고 한다. 이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벗의 임이 되라는 심정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처럼 화자의 생각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낀다.
[H1-7-14-저]화자가 떠나가는 사람을 얄미워하는 진짜 이유나 자신의 서방 또는 친구의 임으로 하고 싶다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H1-7-15-저]작품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을 보고 얄밉다고 했다가 서방을 삼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글쓴이의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1-6-16-저]혼란스럽다
화자 비판

[D2-1-08-저]임이랑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화자가 바라는 뒷 소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나랑 사귈 운명이 아니면 임이랑 잘되라고 바라고 있지만 솔직히 나랑 안된다고 그 사랑이 바로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친구랑 임이랑 사귀면서도 화자는 그 마음을 버리기 힘들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임한테 치근덕댈수 있다. 친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다.
[D2-1-15-저]남자의 겉모습만 보고 반해서 따라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보기 굉장히 불편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행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 경멸감이 느껴졌다.
[D2-1-17-저]서방을 벗에게 준다는 표현에서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D2-11-25-저]이를 보면서 감정의 변화가 너무 격하지 않나 싶었고 굳이 자신의 벗의 임으로라도 만들어 자기 곁에 두고 싶게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H1-2-09-저]집착하는 느낌? 이게 뭐지 싶었다.
[H1-4-07-저]화자가 조금 안타깝다. 화자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다
[H1-4-10-저]사랑하긴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시조들처럼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처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선 중장에는 저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초장에서는 저 사람이 얄밉다고 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꼭 자신의 남편이 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친구의 애인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반어법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반어법은 보통 아예 반대되는 상황(ex 헤어지기 싫다→헤어져도 괜찮다)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H1-5-05-저]미성년 시기, 어리숙한 시기에 어느 한 사람에 빠져 가벼이 실망하면서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 분위기 같다. 무상하다. 특별히 강한 인상이 남지 않는다.
[H-1-6-09-저]재미가 없다. 어이가 없다. 딱히 인상 깊은 점도 없고, '벗의 임이나 되었으면' 이라는 말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화자의 말에서 화자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H1-6-14-저]뛰어가서 말이라도 잡아보지.... 왜 말도 안 해보고 얄밉다고 하는 걸까. 자신이 그 사람을 보고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했을 때 가서 어떤 사람인

지를 알아야지 친구한테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H1-6-16-저]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운 사람인거 같기도 하고 솔직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나의 주변에 놓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합리적 전개 비판
[H2-2-04-저]얄밉다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싶다는 부분에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시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H1-2-01-저]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 어떤 점이 얄미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아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바로 결혼해서 서방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 요즘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다.
[H1-4-20-저]작가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락 없는 전개가 이어졌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H1-5-10-저]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재미없는 글이다. 앞뒤 상황 아무 설명 없이 문맥 없이 그냥 매력적인 남자를 보고 서방 삼고 싶다는 것이기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이 글이 무엇을 의도하고 썼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H1-6-17-저]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개연성 없는 전개 방식 때문인 것 같다.

화자 동정
[D2-1-21-저] 또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마지못해 친구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안쓰럽다. 사람 뛰어가는 걸 보고 얄미운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보니 모종의 이유로 맘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 짠하다
[D2-1-26-저]화자가 불쌍하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과 그사람은 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는 그 상황은 중학교때 한번 겪어봤기에 충분히 화자가 공감되고 불쌍하다. 이 작품을 쓰는 화자 역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쓰고 있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악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D2-10-12-저]웃긴 것보다는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라도 해서 임을 서방님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D2-10-16-저]작은 돌다리를 건너서 큰 돌다리를 넘어서 바삐 뛰어가는 흰 옷 입은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말하고 만약 나의 남편이 되지 못한다면 친구의 임이 되어 곁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매우 안쓰럽다.
[D2-11-15-저]화자가 불쌍하다. 흰 옷 입은 사람과 이어지지 못해서?
[D2-11-25-저]대체로 애상적이고 애처로움. 화자가 안쓰럽게 느껴진다.
[H1-2-19-저]시적화자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다. 시적화자의 불쌍한 상황이 안타깝고, 시적화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H1-2-20-저]자신과 마음이 다른 임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분위기. 자신과 마음이 다른 임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H1-3-15-저]약간 어이없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화자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화자의 계속해서 바뀌는 생각이 처음에 어이없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흰 옷 입은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서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H1-3-02-저]신기한 시이다. 왜 싫다가 남편이 되고 싶어 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H1-4-04-저]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왜 갑자기 얄미웠다가 서방으로 삼고 싶어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H1-5-08-저]화자의 짝사랑이 안 이뤄질 것 같아서 불쌍하다. 처음에는 화자가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간에는 자신의 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진심은 두 번째(서방이 되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는 친구의 서방이라도 되어서 자신에게는 친구로라도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 점에서 화자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사실은 화자의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상황이 갑자기 떠올라서 불쌍했다.
[H1-6-15-저]갑자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길가에서 지나가는 것을 본 상황인 것 같고, 남자를 짝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인데 아직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웠고, 화자의 마음이 남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다.
화자 공감
[D2-1-22-저]누구나 멋지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있으면 주변에 괜찮은 발견하면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서 화자에게 공감을 했다
[D2-2-19-저]서경별곡 화자처럼 아예 이별을 거부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속으로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된다.
[D2-11-16-저]짝사랑했던 예전 생각이 나서 공감이 되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얄밉다고 표현한 것의 의도를 모르겠다.
[H1-3-08-저]소박하고 일상적인 느낌이 든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H1-3-17-저]풋풋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한 대상을 좋아하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만 애타게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풋풋하다고 여겨졌다.
[H1-5-03-저]친근하다. 익숙하다. 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며 사랑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에서도 멀리서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 친근감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서 웃음을 유발하였습니다.
부정적 감정 경험
[D2-2-10-저]슬픔. 작품이 슬퍼서.
[D2-10-10-저]사랑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슬프다.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슬플 것 같아서.
[H1-2-11-저]불쌍하다. 화자의 상황이 안쓰럽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밉다.
[H1-2-20-저]시의 화자는 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임은 화자의 마음을 모르고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화자와 멀어지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러한 임을 미워하지만 임을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종장에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

지만,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H1-6-20-저]슬픈 느낌. 씁쓸하다. 여기서 화자가 흰 옷 입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종장의 '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이라는 말이 남자가 화자를 이미 거절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의 '벗의 임이나 되었으면'이라는 말에서 나는 거절당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내 친구에게라도 소개시켜주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긴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이다.
[H1-7-09-저]그렇게 좋아하게 된 사람을 남에게 넘기려는 화자의 태도가 아쉽고 슬프다. 흰옷 입은 남자는 화자로부터 멀리 떠나는 느낌을 받아 아쉽다
[H1-7-10-저]저 건너에 사람에 사랑에 빠진 느낌이 전해진다. 재미없다. 재밌는 요소가 없다.
[H1-7-18-저]하지만 '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 벗(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에서 자신과 맺어질 수 없으면 자신의 친구와 맺어져 그 사람이 근처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 무거운 느낌이 든다.
[H1-7-20-저]재밌지만 약간 슬펐다. 시조를 보면 화자는 흰 옷 입은 사람을 싫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느낌이 든다. 서방을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가 서방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친구로라도 남으라고 하는 것이 슬펐다.
[D2-2-05-저]사내를 관찰하며 사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설레는 분위기라고 오해 할 수 있으나 음침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화자의 음침한 면에서 소름끼친다고 느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우습고 화자또한 답답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나를 향한 마음을 독배한다고 생각해보라. 실로 소름끼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 공감적 웃음에 대한 거리조절 실패

화자 비공감
[D2-10-20-님]얼마나 그리우면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해서 허둥지둥 나갈까.
[H1-3-13-님]보자마자 허둥지둥 달려갈 만큼 좋아할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럽다.

[H1-4-16-님]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저런 상황이 일어 날 것 같지 않아 일상적이라고 느끼진 않는다.
대상의 열등함과 거리두기
[D2-1-08-님]오버액션이 심하다.
[H1-3-13-님]화자가 매우 멍청해 보인다.
[H1-6-16-님]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에 나갔다기에는 너무 허겁지겁 나간 것 갔지 않나 싶다. 굳이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재미없었다.
[H1-6-21-님]뒤에서는 화자의 멍청함으로 웃기려고 한다.
[H1-7-16-님]허둥지둥하는 모습이 귀엽다
[H1-7-17-님]화자의 멍청함을 드러내고 있다.
조소적 웃음 지향
[D2-1-05-님]상황이 밤인 것이 좀 아쉬웠다. 낮이었으면 남이 보아 더욱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D2-11-09-님]웃프다. 딱하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 딴 곳에 붙어먹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기다릴 것 같다.

화자 동정
[D2-1-17-님] 이는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고 아마 만나지 못한 기간도 꽤 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정심이 드는 동시에 여성화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다는 감정도 생기게 만든다.
[D2-1-27-님]헛것이 보일정도로 임을 기다리는 화자가 불쌍하며
[D2-2-28-님]조금 안타깝다. 화자가 님을 초조하게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거무희뜩한 벗긴 주추리 삼대를 보고 님으로 착각해서 반기러 나갔다가 착각해서 속는 모습을 보고 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 또 그런 자신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것이 더욱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D2-10-28-님]화자에게 연민을 느낀다.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주추리 삼대를 집으로 돌아오는 임으로 착각했을까 싶었다.

[H1-4-05-님]화자가 불쌍해 보인다. 화자가 임을 기다리려고 미리 밥을 먹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임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다른 것을 임으로 착각해서 자기 혼자 웃고 있는 것이 불쌍해 보인다.
[H1-6-13-님]화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사람이 온 줄 알고 갔다가 아니면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H1-7-03-님]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온 것 같으니까 엄청 열심히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물을 착각해서 본 것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또 마지막에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는 말이 뭔가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다.
화자 공감
[D2-1-17-님]나까지 허탈해지는 느낌이고 왠지 안타깝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다.
[D2-10-05-님]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평소에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놓는 것이 공감되었다
[H1-1-15-님]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잘 느껴지게 되었고 임이 어디를 가서 아직 안 온 것인지 궁금했다.
[H1-2-19-님]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H1-3-12-님]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은 한 번 쯤은 있다. 그렇기에 조금은 공감이 되었다.
[H1-6-04-님]화자가 불쌍하기도 하고,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져서 살짝 애틋하면서도 화자의 상황이 공감이 된다. 님이 온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어지럽히면서까지 님을 보고 뛰어가려 하는 화자의 마음이 애틋했다.

부정적 감정 경험
[D2-1-19-님]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이다. 화자의 감정에 이입되어 화자가 안타깝게 느껴진다.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이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이 시조는 웃음을 유발 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시조인 것 같다.

[D2-1-25-님]허무함이 든다. 화자가 혼자서 망상을 펼쳤는데 그냥 임이 아니였다는 걸 보고 어이없었기 때문이다
[D2-1-27-님]임의 착각을 하는 화자의 행동보고 웃기기보다는 슬펐다.
[H1-1-14-님]답답함. 글자들이 너무 빽빽하게 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임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려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H1-1-17-님]슬프다. 화자가 임을 보고 싶어 해서 달려 나갔는데 임이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낮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불쌍하다. (속으로는 엄청 슬플텐데 겉으로 멀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H1-2-19-님]껍질 벗긴 주추를 님으로 착각한 것이 슬프다.
[H1-3-01-님]공감성 수치가 느껴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자가 저렇게 급하게 갔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뻘쭘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밤이라서 아무도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1-3-03-님]안쓰럽고 슬프다. 사물을 달빛에 사람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 자체는 우스꽝스럽지만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물을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간절함이 느껴져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밤이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 다행이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함께 임은 결국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함이 느껴졌다.
[H1-3-15-님]화자의 감정이 느껴져서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저의 경험에 공감이 가서 웃기기보다는 부끄러운 상황으로 느꼈어요.
[H1-4-04-님] 하지만 착각해서 허둥지둥 나간 것은 재미있고 내가 다 창피해지는 기분이다.
[H1-5-08-님]화자의 감정이 생각되어 슬프기만 했다. 이처럼 기대하며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다. 화자가 실망했을 감정 또한 알 거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다.
[H1-6-02-님]안타깝다. 이 시는 전에 보던 웹툰('가000')에서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만화의 내용과 함께 생각나며 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H1-7-20-님]작품을 보면 화자는 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

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다. 님이라 착각하여 버선발로 나갔지만 그 또한 임이 아니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슬픈 감정을 느꼈다.
인접 경험 조회
[D2-1-22-님]나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 사촌이 놀러온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촌들이 늦게 온다고 하길래 사촌을 위해 저녁시간이 되도 밥을 같이 늦게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면서 사촌의 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한 적이 있어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됐다.
[D2-1-26-님]이런 상황을 두 번 정도 겪어본 터라 화자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된다. 임이 언제쯤 올까 그리워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또한 나의 그때당시 모습과 흡사하기에 공감된다.
[D2-10-05-님]내가 기다리던 누군가가 도착한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다가 아니었던 경험들과 겹쳐 보여서 공감된다.
[H1-4-15-님]중학교 시절 특정 지형에서 총을 쏘는 게임을 즐겨했었는데, 사람이 멀리 있을 경우에 모니터에 비치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나무와 식별이 불가했다. 화자를 보며 나무를 사람인줄 알고 열심히 쏜 내 자신이 떠올라서 묘하게 웃겼다.
[H1-6-04-님]그리고, 나도 저렇게 시간이나 날짜를 착각하고 급하게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상황이 더 잘 그려져서 공감이 갔다.

인지적 반응
[D2-10-27-님]허겁지겁 하는 모습을 보아 해학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웃긴 포인트가 어딘지는 알겠다. 하지만 세대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웃기지가 않다. 약간 이모부가 아재개그를 했을 때의 느낌이다. 약긴 피식 할 정도까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웃기지 않았다. 그랬다.
[H1-1-05-님]그냥 흔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발생하는 일을 담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임을 기다리는 표현이나 임을 만나고 싶어 표현한 많은 부분들이 자세하긴 했으나 조선시대의 유머코드는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H1-1-11-님]엉뚱하지만 생각보단 재미없다. 공감이 되지 않아서 재미없던 것 같다. 또한 현대의 소설이나 인터넷으로 적응되어 어려운 것 같다.

[H1-3-07-님]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충분히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1-3-14-님]이것을 글로 풀다보니 재미가 없어졌다. 영상으로 보거나 직접보아야 재밌는 상황일 듯하다. 마찬가지로 내용이 너무 짧아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H1-4-20-님]옛날의 감정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H1-6-05-님]화자가 임을 매우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허둥지둥 그를 맞이하려는데 알고 보니 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임을 기다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H1-6-18-님]이 작품은 실제로 코미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는 개그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실수로 인하여 고생을 한다" 라는 형식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러 단어가 반복되지만 그 뜻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재미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 조소적 웃음에 대한 관습화된 반응

진지한 지향
[D2-1-17-두]이 시를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생각보다 심오한 주제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는 글이라 이상한 기분이었다.
[D2-1-25-두]아는 시조여서 그런지 그냥 두꺼비를 풍자한다, 이런 느낌만 들었다.
[D2-11-30두]두꺼비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서 두꺼비를 풍자할 의도로 시인이 시조를 쓴 것 같다.
[H1-1-15-두]작품에서 두꺼비의 모습이 양반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려하는 느낌이 들었다.
[H1-3-07-두]단순히 개구리의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개구리를 비유하는 대상이 있을 것 같다.
[H1-3-13-두]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를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

한 삶의 덕목인데, 자신이 잘못 뛰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하며 다음번에 잘 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H1-3-18-두]두꺼비는 파리를 두엄 위에서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송골매와 눈이 마주쳐서 못 먹게 되었다. 송골매는 힘이 약한 파리를 도와준 존재이다.
[H1-4-15-두]서로가 서로에게 먹고 먹히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다.
[H1-5-11-두]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작품 내에선 알 수 없으나 두꺼비를 덜떨어졌다고 취급하는 것 같다. 풍자적.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예시로 이중잣대 등을 풍자하는 듯하다.
[H1-6-02-두]두꺼비를 풍자하는 것 같다. 두꺼비는 무슨 의미일까?
[H1-6-21-두]두꺼비가 사람을 묘사한 것 같다.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 비공감
[H1-1-11-두]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다. 두꺼비와 파리, 송골매와 두꺼비로 먹이사슬을 표현하여 흥미를 유발한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나에겐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인지, 흥미를 느끼진 못했다.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H1-1-16-두]물론 두꺼비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긴 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므로 딱히 재미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대상 비판
[D2-10-12-두]두꺼비가 얍삽하다. 파리한테는 한없이 강하지만 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얍삽하다라고 느꼈다.
[D2-11-06-두]두꺼비가 좀.. 재수 없다. 자신보다 약한 파리를 물고 있지만 자신의 천적인 흰 송골매가 산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뛰어내리고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또한 도망치고 나서 자신이어서 살았다며 우쭐하는 모습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는다.
[H1-3-01-두]두꺼비가 별로입니다. 송골매를 보고 도망가려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으면서 자신이 대단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허세부리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H1-3-15-두]자빠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며 피멍이 들지 않는 자

부심을 나타내는 두꺼비를 보면서 어이없고, 상당히 자존감이 높으며, 자만심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졌다.
[H1-4-12-두]개구리가 바보 같다. 중소기업에서의 송골매가 사장, 두꺼비가 중간 상사, 파리가 말단 직원 같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뛰어내린 것을 가지고 나여서 안 다쳤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친구가 생각해서 바보 같다 느꼈다.
[H1-4-15-두]두꺼비가 송골매에게 겨우 피하고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랜 나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좀 뻔뻔한 것 같다.

대상 동정
[D2-1-08-두]두꺼비가 불쌍해 보인다. 사람으로 치면 집에서 밥 먹다가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밥상을 엎고 나를 공격한 거다.
[H1-1-03-두]두꺼비가 송골매에게 잡아먹힐 뻔한 것이 안타까웠다.
[H1-3-12-두]두꺼비가 불쌍함.
대상 공감
[D2-1-08-두]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가끔 무슨 일을 해결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을 때 혼잣말로 뭐라뭐라 할 때가 있다.
[D2-10-30-두]그도 그럴 것이 이 시에서는 지금 두꺼비가 다칠 뻔 한 것이 아닌가? 이 시를 보고 웃음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 딴 곳 보고 있다가 천적을 만나 화들짝 놀란 개구리를 상상하며 웃음을 지었겠지만 나는 개구리가 떨어져서 다칠 뻔한 것이 더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며 두꺼비가 불쌍하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H1-1-05-두]다큐멘터리처럼 동물의 상황이 떠오른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마음에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
[H1-3-17-두]두꺼비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파리를 포식한 상위포식자 두꺼비가 더 상위포식자인 송골매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공감되었다.
[H1-6-01-두]두꺼비가 느낀 잠시의 긴장감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그 긴장감과 안도감에 대한 표현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대한 묘사가 확실하게 나타나있고 그에 대한 두꺼비의 감상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 두꺼비의

감정에 집중하고 몰입해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H1-5-03-두]어렸을 때 자꾸 사고로 다치고 주변 친구들 때문에 안 아프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두꺼비의 행동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H1-7-20-두]재밌지만 약간은 무섭다. 나도 예전에 넘어져서 다친 적이 많았기에 남일 같지 않다.

작가의 관점 공감
[D2-1-26-두]탐관오리에게 세금을 수탈당하고 뜯기는 모습은 이 사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아주 많이 공감된다. 또한 그 억울함과 분함 또한 공감된다.

인지적 반응
[D2-10-20-님]그래도 이 작품은 중딩 때 한번 배웠어서 웃기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
[H1-5-01-두]마지막에 두꺼비 입장에서 한 말이 재미있으라고 쓴 것 같은데 별로 재미는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한 생각이 들었다. 2번째 작품인 말로 뭔가 재미있게 하거나 재미있는 말실수 같은 것이 더 재밌다.
[H1-6-18-두]우스꽝스러운 것은 맞지만 이것을 통해 웃음이 나진 않는다.

<부록2>

적용 수업 활동지

옛 우리 문학 작품들(1)	사설시조와 웃음	학년 반 이름: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는 현실의 삶과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한 세태를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설시조 중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조선시대와는 다르기에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작품 속 웃음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세 작품을 읽고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보며, 사설시조의 다양한 웃음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몹시 얄밉고도 얄미워라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바삐 뛰어 가는가 가로질러 뛰어 가는가 어허, 내 서방 삼고 싶어라. 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 [ ]
▶ 들어가며 1) 시의 흐름을 고려하여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상상해서 아래에 써봅시다. 그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시의 종장과 내가 쓴 종장을 비교해봅시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잠깐! 멈추고, 더 들어가기 전에 시의 첫 인상만으로 간략한 감상을 적어봅시다. (5문장) [ ]

3) 작품이 향유되던 배경인 조선시대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종장을 설명해봅시다.

4) 이 시를 쓴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라고 상상해봅시다. 위 시조와 같이 말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 정리하며

• 화자의 상황은?

• 화자의 감정은?

• 작품의 분위기는?

• 친구와 나의 의견이 다른 지점이 있었나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각한 점을 써주세요.

▶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 화자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분위기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종장 마무리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달려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는가 가는가 건너편 산 바라보니 거무희뜩한 것이 서 있거늘 저것이야말로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븨 님븨 곰븨 천방 지방 지방 천방(엎치락뒤치락 허둥지둥)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우당탕탕) 건너 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히도 나를 속였다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
▶ 들어가며 1) 약간의 상상을 덧붙여 위의 사건의 줄거리를 다시 써봅시다. ✋ 잠깐! 멈추고, 더 들어가기 전에 시의 첫 인상만으로 간략한 감상을 적어봅시다. (5문장) 2) 위의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봅시다. 3) 원하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 달려간 경험(예) 급식소로 뛰어간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위의 화자의 움직임과 자신의 움직임/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써주세요.

4) 종장이 화자의 혼잣말이라면, 혼잣말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 정리하며

• 화자의 상황은?

• 화자의 감정은?

• 작품의 분위기는?

• 친구와 나의 의견이 다른 지점이 있었나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각한 점을 써주세요.

▶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 화자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분위기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종장 마무리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거름더미)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

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이 들 뻔했구나

▶ 들어가며

1) 두꺼비, 파리, 송골매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잠깐! 멈추고, 더 들어가기 전에 시의 첫 인상만으로 간략한 감상을 적어봅시다. (5문장)

2) 작은 파리는 먹이로 물고, 송골매에게는 오히려 도망다니는 두꺼비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두꺼비와 같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초장에 파리를 물고 언덕 위에 앉은 두꺼비의 감정과, 두엄 아래 자빠진 두꺼비의 감정을 상상하며 거름 더미 위의 두꺼비의 모습과, 두엄 아래 자빠진 두꺼비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4) 두꺼비를 본 적이 있나요? 시조에서 두꺼비가 스스로를 '날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두꺼비는 빠른 동물인가요?

▶ 정리하며

• 두꺼비의 상황은? (초장, 중장의 화자가 아닌, 두꺼비!)

• 두꺼비의 감정은?

• 작품의 분위기는?

• 친구와 나의 의견이 다른 지점이 있었나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각한 점을 써주세요.

▶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 두꺼비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분위기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의 종장 마무리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만난 시조들을 기억했다가,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옛 우리 문학 작품들(2)	사설시조와 웃음	학년 반 이름:

● 패러디 시 창작하기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몹시 얄밉고도 얄미워라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바삐 뛰어 가는가 가로질러 뛰어 가는가 어허, 내 서방 삼고 싶어라. 진실로 내 서방 못 될 것이면 벗(친구)의 임이나 되었으면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달려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는가 가는가 건너편 산 바라보니 거무희뜩한 것이 서 있거늘 저것이야말로 님이로다. 버섯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엎치락뒤치락 허둥지둥)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우당탕탕) 건너 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히도 나를 속였다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 했구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이 들 뻔 했구나

Abstract

A Study on the Comicality Education of Saseolsijo
– on the learner's response by types of humor

Jeong, Eunsun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tent and method of Saseolsijo comicality education focusing on the response of the perceivers to different types of humor. Comicality of Saseolsijo have counter-restrictive, empathetic, derisive characteristic. This study followed Jerry Farber's Incongruity Theory.

According to Jerry Farber, who set forward his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 of humor based on Incongruity Theory, the perceiver explores the elements of incongruity, activates opposing set of psychological responses, and overturns the hierarchy of the opposing psychological responses. Comedy is experienced as psychological reward, and the reward varies by types of humor. Types of humor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ounter-Restriction Humor, Empathic Humor, and Derisive Humor, depending on the incongruous elements, the perceiver's response to it, and its psychological reward. This study proposes the stages of learners' psychological responses to the comicality of Saseolsijo, examines the stages through which the actual learners react according to the type of humor in

Saseolsijo, and then designs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comicality education of the Saseolsijo.

This study categorized students'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Saseolsijo. Recipients of counter-restriction humor of Saseolsijo failed at constructing meaning due to nonsensical characteristic of the text. Recipients of emphatic humor of Saseolsijo failed at having proper distance with the character in text. Recipients of derisive humor of Saseolsijo responded with patterns of conventional acceptance. Moreover, learners had tendency to only have cognitive responses but not much of emotional responses, when responding to emphatic humor and derisive humor. The learners who reported that they did not experience comicality of Saseolsijo were different from the ones who experienced it in that their responses had no specific stages.

If learners go through the stage of comedy re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humor, they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Saseolsijo which is comicality. Based on theses premise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education. The following three goals were set as the goal of Saseolsijo comicality education considering learners' responses. First is to understand different types of humor in Saseolsijo. Second is to experience comicality of Saseolsijo with agency. Third is to improve ability to enjoy comicality in other classic korean poetry.

The content of education of experiencing comicality of Saseolsijo covers discovering incongruous element of the poetry, apprehending types of humor in text, and experiencing psychological reward through comicality. The specific methods were answering scaffolding questions, peer discussion, and parody writing.

This study empirically studies the comicality of Saseolsijo focusing on the learners' acceptance and responses, instead of text. In addition, the educational suggestion presented in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as an education for literary enjoyment that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 in enjoying Saseolsijo.

Key words : Poetry Education, Saseoulsijo, Comicality, Incongruity Theory, Psychological Response, Response Steps, Types of Humor

Student Number : 2020-21222